

# 한국어 구문 유형론



## 연재훈

1961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및 대학원 언어학과 졸업 (문학석사)

런던대학교 소아스 언어학과 박사학위 취득 (1994년)

현재 런던대학교 소아스(SOAS) 한국학과 교수

저서: *Korea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ir Form and Meaning* (Saffron Books, 2003),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Routledge, 2011) 등

편자: 『유럽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쟁점』 (박이정, 2011) 등

논문: ‘국어 중립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한글, 1989) 등

## 한국어 구문 유형론

초판 제1쇄 인쇄 2011년 9월 6일

초판 제1쇄 발행 2011년 9월 15일

지은이 | 연재훈

펴낸이 | 지현구

펴낸곳 | 태학사

등록 | 제406-2006-00008호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도시 498-8

전화 | 마케팅부 (031) 955-7580~82 편집부 (031) 955-7585~89

전송 | (031) 955-0910

전자우편 | thachak4@chol.com

홈페이지 | www.thachaksa.com

© 연재훈, 2011

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ISBN 978-89-5966-455-9 93710

가능피동구문

중립동사 구문

상호 구문

주격중출 구문

심리동사구문

수여동사 구문

소유 구문

신체부위명사구문

처소교체구문

관계절

사동문

피동문

격표지 유형론

여격주어구문

소유주 상응 대격 중출 구문

## |머리말|

최근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도 언어 유형론적 접근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는 듯하다. 학자들마다 언어 유형론적 접근방법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구조주의 문법과 형식문법의 방법론 이외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전통적 의미에서 언어 유형론은 가벨렌츠(Gabelentz(1840-1893))에서 시작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등의 언어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후 그린버그(Greenberg)의 업적에 힘입어 다양한 함의적 보편소 목록이 제시되고 논의되기 시작한다. 언어 유형론에서 발견되는 함의적 보편소는 특정 언어의 깊이 있는 연구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고 다양한 범언어적 비교를 통해서만 논의될 수 있는 언어의 보편성이라는 점에서 형식문법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콤리(Comrie)로부터 시작되는 언어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언어유형론은 광범위한 언어의 비교 분석을 전제로 문법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언어외적 요인들을 원용한다는 점에서 형식문법과 대조되는 언어 연

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문법이 철저하게 언어내적, 문법이론 내적 요인들을 통해 언어 현상을 설명하고 형식화하려는 데 비해 기능문법으로서의 언어유형론은 언어외적 요인들을 통해 언어 현상을 설명하고 ‘왜’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도상성’이나 ‘경제성’과 같은 언어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인지 구조나 문화, 환경 등이 언어의 보편성과 다양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범언어적 보편성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언어 유형론과 각 개별 언어의 연구는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각 개별 언어의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는 광범위한 언어의 비교 분석을 전제로 하는 언어 유형론적 연구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론은 개별 언어의 기술 문법에 우선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범언어적으로 확립된 유형론적 보편성은 개별 언어의 문법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문법 구문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문법행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어의 여러 구문에 나타나는 문법현상을 범언어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언어 유형론적 통찰이 개별 언어의 문법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절반 이상은 이미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그 내용을 수정 증보한 것이고 일부는 새로 쓴 것이다. 이미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 증보한 경우에는 각 장의 앞부분에서 초고의 출처를 밝혀 주었고, 이 책을 집필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기급적 많이 첨가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최근의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주로 주석을 통해서 첨가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1년 1학기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원에서 <언어 유형론 연구>라는 강의를 5주 동안 집중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이 책의 초고를 교재의 일부로 사용했다. 집중 강의의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과 미완의 초고를 가지고 함께 공부한 서울대 언어학과, 국문과, 국어교육과 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다. 특별히 수정 단계에서 초고의 일부를 읽고 관련 논의 보충에 도움을 준 고려대 국문과 함희진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까지 필자에게 가르침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선후배 동료 학자들에게도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남기고 싶다. 부끄러운 심정으로 마음속에 그 감사의 정을 새겨두기로 한다. 이 연구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 자리에 적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없는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태학사 지현구 사장님과 편집부 김지혜 선생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목차|

머리말	4
제1장 연구의 대상과 방법	9
제2장 기능 - 유형 문법론	19
제3장 격표지 유형론과 여격 주어 구문	55
제4장 사동문의 유형론	89
제5장 피동문의 유형론	123

제6장 피동·사동의 상관성과 목적어 있는 피동문	169
제7장 처소 교체 구문	189
제8장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	211
제9장 관계절의 유형론	233
참고문헌	254
찾아보기	268



# 1장

---

## 연구의 대상과 방법: 문법관계 교체 구문의 종류와 행태

### 1. 머리말

이 책에서는 한국어의 여러 구문에 나타나는 문법현상을 범언어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언어 유형론적 통찰이 개별 언어의 문법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범언어적 보편성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언어 유형론과 각 개별 언어의 연구는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각 개별 언어의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는 광범위한 언어의 비교 분석을 전제로 하는 언어 유형론적 연구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론은 개별 언어의 기술 문법에 우선 의 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범언어적으로 확립된 유형론적 보편성은 개별 언어의 문법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언어 유형론에서는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형태-통사적 다양성과 보편성을 연구한다. 물론 유형론에는 음운 유형론이나 문법범주 유형론, 어순 유형론 등 다양한 하위 분야가 존재하지만 이 책에서는 한국어 문법 구문의 형태-통사적 유형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2. 연구 대상과 목적

이 책은 한국어 구문들 중에서 격표지 교체를 보이거나 문법관계 교체를 보이는 문법관계 교체 구문들 중 몇 가지 구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문법관계 교체 구문이란 어떤 두 구문이 의미적으로 관련성<sup>1)</sup>을 보이면서, 격표지 교체에 따르는 명사구 논항의 문법관계 교체를 보여주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문법관계 교체 구문들의 종류와 행태는 각 언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동문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반피동(antipassive) 구문이 존재하는 언어 유형<sup>2)</sup>도 있을 수 있고, 한 언어에는 존재하는 구문이 다른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어의 문법관계 교체 구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문법관계 교체 구문의 예는 피동문일 것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1) 가. 영수가 도둑을 잡았다.

나. 도둑이 영수한테 잡혔다.

(1나)에서 보는 것처럼, 피동문에서는 능동문에서의 명사구 논항들의 문법관계가 교체(재배열)된다. 설명의 편의상 능동문을 출발점으로 보면,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능동문의 주어는 사격 보어로 교체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삭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법관계의 교체는 동사에 형태적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무표지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한국어 피동 구문의 경우에는 동사 어간에 붙는 피동 접미사 ‘-하-’에 의해서 문법적으로 표시된다. 이 경우, 능동문과 피동문에서의 명사구 논항들의 의미기능은 변하지 않는 것

---

1) 여기서 말하는 의미적인 관련성은 피동문에서처럼 의미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사동문에서처럼 의미차이가 생겨나는 경우도 포함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단 정의해 둔다. 편의상 우리는 두 구문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형태적으로 관련이 있는 술어가 사용된 두 구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미적 연관성이라고 이해하기로 한다.

2) 소위 원인격 언어(ergative language)라고 하는 언어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으로 간주된다. 즉 행위자(agent)는 ‘영수’이고 피행위자 또는 수동자(patient)는 ‘도둑’이다.

피동문 이외에도, 한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문법관계 교체 구문들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동문 구성이다.

(2) 가. 아이가 약을 먹었다.

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2나)와 같은 사동문은 새로운 명사구 논항을 도입하여 사동문의 주어 위치에 세움으로써 논항의 숫자가 하나 증가한 문법관계 교체 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사동문에서도 사동화 절차를 표시하는 형태가 동사 어간에 첨가된다. 원래 문장의 주어는 술어가 1항 술어인가, 2항 술어 혹은 3항 술어인가에 따라 대응하는 사동문에서 대격이나 여격 혹은 사격을 취하게 된다. 원래의 주어 자리에서 하강한 사동문의 피사역주가 어떤 격표지로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유형론적으로 흥미로운 연구 거리를 제공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sup>3)</sup>

피동문과 사동문은 일견 아무 유사성도 없어 보이지만, 주어가 겪는 문법관계의 교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피동과 사동 모두 원래의 주어가 문법관계의 위계상 ‘하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피동문에서처럼 주어가 사격 보어 위치로 하강하든(혹은 삭제되든), 사동문에서처럼 주어가 목적어나 사격 보어의 위치로 하강하든, 주어가 하강하고 다른 성분이 주어의 위치로 상승하여 문법적으로 초점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한가지이다<sup>4)</sup>.

다음으로는 중립동사 구문<sup>5)</sup> 또는 반사동 구문(anticausative)<sup>6)</sup>이라고 불

---

3) 사동문의 피사역주(causee)가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 어떤 격표지로 실현되고, 그에 따라 어떤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재훈(2002)에서 논의된 바 있다.

4) 이런 점에서 피동과 사동은 모두 ‘태’(voice)라는 문법범주에 속한다(Shibatani 1985).

5) 국어의 중립동사 구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연재훈(1989)을 참고하라.

6) 반사동(anticausative)이라는 술어는 시비엘스카(Siewierska 1984), 콤리(Comrie 1985)

라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3) 가. 아이가 돌을 움직였다.  
나. 돌이 움직였다.

(3)과 같은 반사동 구문은 타동문의 목적어가 자동문의 주어로 전환되는 문법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반사동 구문은 피동이나 사동과는 달리 동사가 형태론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입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피동 구문과 반사동 구문의 문법관계 교체 양상을 비교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피동화]		
Passivization		
Active	—————→	Passive
동사 형태가 변화함		
Agent--Nom--Subj	—————→	Agent--Dat/Obliq/∅--Adjunct
Patient--Acc--Obj	—————→	Patient--Nom--Subj
[반사동화]		
Anticausativization		
Transitive	—————→	Anticausative
동사 형태 변화 없음		
Agent--Nom--Subj	—————→	∅
Patient--Acc--Obj	—————→	Patient--Nom--Subj

또 반사동 구문이 피동 구문과 대비되는 의미적 차이는 피동 구문에서는 동작주가 형태적으로 표시되든, 표시되지 않든 간에 그 존재가 전제되는 반면에, 반사동 구문에서는 동작주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유주 상승(Possessor Ascension) 구문이라고 불리는 다음과 같은 일종의 대격 중출 구문도 문법관계 교체 구문으로 볼 수 있다.

.....  
등이 사용하고 있다.

- (4) 가.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나. 영수가 순이를 손을 잡았다.

(4가)에서 소유주의 역할을 수행하던 명사구 논항이 (4나)에서 대격 표지를 갖는 목적어 명사구로 교체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동사에는 아무런 형태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소유격으로 표지된 명사구가 대격 표지의 목적어로 바뀌는 조건은 의미론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8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구문은 타동문에서 장소보어의 문법관계가 교체되는 처소 교체 구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 가. 영수가 정원에 소나무를 가꾸었다.  
나. 영수가 정원을 소나무로 가꾸었다.

(5가)와 (5나)를 비교해 보면, (5가)에서 처격 표지를 가졌던 장소보어가 (5나)에서 대격 표지를 가진 장소 목적보어로 교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법관계의 교체에 따라 의미적 기능의 차이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7장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소유주 상승 구문이나 처소 교체 구문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법관계 교체 구문(피동, 시동, 반사동 구문)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주어의 문법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주어 이외 논항의 문법관계 교체가 문제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처소 교체 구문]

1. 동사의 형태 변화:	없음	
2. 논항의 문법관계 교체:	처격 장소보어	→ 직접목적어
	직접목적어	→ 도구(재료)격 보어
3. 의미 특성:	대격 장소보어	- 전체적관여
	처격 장소보어	- 부분적 관여

## [소유주 상승 구문]

- |                 |            |                 |
|-----------------|------------|-----------------|
| 1. 동사의 형태 변화:   | 없음         |                 |
| 2. 논항의 문법관계 교체: | 소유격 표지 명사구 | → 주목적어          |
|                 | 원래의 목적어    | → 부목적어          |
| 3. 의미 특성:       | 소유주        | → 직접 영향 입는 피영향자 |

처소 교체 구문과 소유주 상승 구문의 문법관계 교체 양상에 있어서 공통적인 현상은 두 가지 구문 모두 비목적어 위치의 명사구 논항을 목적어 위치의 논항으로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목적어 논항을 주어 위치로 상승시키는 피동화 절차와 비교해서 처소 교체 구문과 소유주 상승 구문의 문법관계 교체 양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어(Subject) 능동자(Agent)	목적어(Object)	비목적어(Adjunct) 수동자(Patient)
처소 교체 구문			← 처격 보어
소유주 인상 구문			← 소유격 표지 소유주
피동 구문	←		

우리는 본론에서 여러 가지 문법관계 교체 구문에서 나타나는 격표지 교체와 그에 수반되는 의미 기능의 차이를 관찰할 것이다. 대격 표지 ‘을/를’은 그에 선행하는 명사구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거나 변화를 경험한다는 의미 기능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심리 형용사 구문과 심리 동사 구문의 교체를 생각할 수 있겠다. 한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리 형용사 구문과 심리 동사 구문이 서로 의미적 연관성을 보이며 문법관계 교체 구문을 형성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6) 가. 나에게/나는 순이가 싫다.

나. 나는 순이를 싫어한다.

심리 형용사 ‘싫다’가 사용된 (6가)에서는 감정의 대상인 낯은 의미의 수동자(Patient)<sup>7)</sup> ‘순이’가 주격 표지를 갖고 있고, ‘주관적 감정의 외재화’라

는 의미 기능을 갖는 조동사<sup>8)</sup> ‘(-어) 하다’가 첨가된 심리 동사 ‘싫어하다’가 사용된 (6나)에서는 수동자가 전형적인 대격 표지를 갖고 있다. 또한 (6가)에서는 여격 표지된 명사구가 능동자 주어 위치에 오는 반면 (6나)에서는 전형적인 주격 주어가 사용된다. 우리는 (6가)와 (6나)의 의미 기능의 차이가 주어의 ‘의도성’(volition)의 정도의 차이에 있다고 가정한다. 심리 형용사 구문을 비롯한 소유/필요/존재 구문 등은 범언어적으로 여격 표지된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격 주어 구문(Shibatani 1983) 또는 간접 주어 구문(Klaiman 1981)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여격 주어 구문은 유형론적으로 타동성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낮은 타동성을 표시하고 의도성이 낮은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더 상세하게 고찰하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수여 구문의 여격 표지 명사구가 대격 표지 명사구로 교체되어 생겨나는 (7가)나, 사격 표지 명사구가 대격 표지 명사구로 교체되어 생겨나는 (7나)와 같은 소위 대격 중첩 구문이다.

---

7) 여기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수동자란 ‘포괄적 의미기능’(macro-semantic role)을 가리키는 것으로 Foley & Van Valin(1984)의 ‘undergoer’와 비슷한 개념이다. Palmer (1994)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Patient’와 소문자로 시작하는 ‘patient’를 대조시켜, 문법적 의미기능(grammatical roles)인 ‘Patient’와 관념적 의미기능(notional roles)인 ‘patient’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포괄적 의미기능으로서의 능동자(actor/Agent)와 수동자(undergoer/Patient)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관념적 의미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능동자는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을 수행, 시작, 유발시키거나 통제하는 논항으로, 두 개의 명사구 논항이 나타나는 타동문(능동) 구성에서 유정성, 의도성, 행위성, 통제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명사구 논항이다. 수동자는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을 수행, 시작,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의해 영향을 입는 논항으로, 두 개의 명사구 논항이 나타나는 타동문(능동)구성에서 유정성, 의도성, 행위성, 통제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명사구 논항이다(cf. Foley & Van Valin 1984: 29). 포괄적 의미기능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Foley & Van Valin(1984), Palmer(1994), Yeon(1994) 등을 참고할 것.

8) 김세중(1994)에서도 심리 형용사에 붙는 조동사 ‘하다’의 기능을 우리와 유사하게 분석하고 ‘SHOW’라는 의미 자질을 설정하고 있다.

- (7) 가. 영수가 순이에게 책을 주었다. → 영수가 순이를 책을 주었다.  
 나. 영수가 순이를 머리로 삼았다. → 영수가 순이를 머리를 삼았다.

이러한 예들도 형태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설정한 문법관계 교체 구문과 유사한 교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7가)나 (7나)와 같은 교체를 허용하는 동사가 상당히 제한되어 거의 한 두 동사에 국한되어 있으며, 교체된 구문들 사이에 관찰되는 통사-의미적 차이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다<sup>9)</sup>. 우리는 일단 (7)과 같은 구문들이 일종의 문법관계 교체 구문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두 구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의미차이는 더 자세히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 책에서 다루는 문법 구문에는 한국어 관계관형절을 포함한다. 관계절은 키난과 콤리(Keenan & Comrie 1977) 이후 유형론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로서, 특히 문법관계 위계 가설과 함께 논의되었다. 9장에서는 관계절의 유형론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한국어 관계절 해석에 있어서는 의미-화용론적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국어 문법 연구에서 격표지 교체 현상<sup>10)</sup>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로 우순조(1994)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우순조(1994)에서는 “한 문장 안에 두 명사구의 관계 표지가 동시에 교체되는 현상을 다루지 않고”, “한 성분의 관계 표지가 다른 표지로 바뀔 때 따라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관계 표지가 복수로 출현하게 되는 현상” 즉 “관계 표지 중출 현상”(p16-7)에 대해서만

9) 딕슨(Dixon 1989:110)은 ‘give’, ‘tell’, ‘show’ 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 범언어적으로 문법관계 교체 구문을 허용하는 빈도가 처소 교체 구문에 나오는 동사들의 그것보다 훨씬 적고, 구문들 사이의 의미차이도 처소 교체 구문들은 전체/부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반면, ‘give’류 동사들에서는 의미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관찰을 제시하고 있다.

10) 우순조(1994:3)에서는 ‘격표지’라는 용어 대신에 ‘문법관계 표지’라는 의미의 ‘관계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가 나타내는 개념은 기존의 격조사나 자리 토씨라는 개념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루고 있다. 그 결과 우리가 위에서 문법관계 교체 구문으로 설정한 피동, 사동, 반사동 구문과 처소 교체 구문 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sup>11)</sup>

---

11) 우순조(1994)에서 다루고 있는 관계 표지 중출 구문들은 주어표지 중출 구문(소유관계 구문, (심리/도량/평가) 형용사 구문, ‘기’ 명사형 구문, ‘여기다’ 구문), 목적어 표지 중출 구문, 간접목적어/처소 표지 중출 구문 등이다. 우리가 문법관계 교체 구문에서 명사구 논항들의 문법관계가 교체된다고 보는 반면, 우순조(1994:18)에서는 “한 명사구에서 관계 표지가 교체되더라도 그것이 교체 이전에 담당하던 문법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는데 이 점은 중요한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피동구문

중립동사 구문

상호 구문

주격중출 구문

심리동사구문

수어동사 구문

소유 구문

신체부위명사구문

처소교체구문

관계절

사동문

피동문

격표지 유형론

여격주어구문

소유주 상응 대격 중출 구문

## 2장

---

### 기능-유형 문법론

#### 1. 개관<sup>1)</sup>

한국어 구문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능-유형론적 접근방법(a functional-typological approach)을 채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설명 방식은 형식주의가 아닌 기능주의적 관점의 설명 방식이 될 것이고, 범언어적 비교 분석의 토대 위에서 언어 현상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일반화를 이끌어 내는 데 관심을 둔다.

기능-유형론적 문법이란, 형식문법 연구에 대조되는 기능 중심적 언어 연구 방법론으로서 범언어적 비교에 토대를 두고, 인간 언어 문법구조의 보편성과 차이점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문법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언어외적인 인자-화용론적 요소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유형론이라고 하면, 언어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등으로 분류해 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그 후 그린버그(Greenberg)가 함의적 보편소(Implicational universals)들의 목록을 만든 것

---

1) 2장의 내용은 연재훈(1995)를 토대로 내용을 수정 증보한 것이다.

을 기점으로 해서는 여러 언어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범언어적 문법 구조의 연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언어 연구 방법론의 하나로서의 기능-유형 문법은 언어의 형태(구조)와 의미(기능) 사이의 관계를 범언어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비교 연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형식문법과는 달리 의미-화용론적 요소나 언어외적인 요소(extra-linguistic/external motivation)가 언어 연구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고려된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방법(예: 형식문법)과 대조되는 하나의 연구 방법론을 지칭한다(Croft 1990).

형식문법에서의 설명이 규칙의 형식화라면, 기능-유형 문법에서의 설명은 “왜”라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점에서 더 언어의 본질 탐구에 접근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질적인 면에서 형식적인 모형이란 일반화를 좀더 빈틈없게 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을 재진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2)</sup>. 기능-유형 문법에서는, 어떤 구성이 왜 한 언어에서는 가능하고 다른 언어에서는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라든가, 인간의 인지/인식 구조가 어떻게 언어에 형태적으로 반영되는가 또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다르게 인식되는 개념이나 체계상의 차이가 언어에 어떻게 다르게 범주화되는가 하는 문제 등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음에 있어, 우리는 문화적, 사회적, 기능적, 그리고 인간의 인지 구조적 측면에서의 설명을 구하기도 한다.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문법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언어의적인 요인 혹은 인간의 인식/인지 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의 인식 구조에서 다르게 인지되는 현상이라면, 언어 구조에서도 형태/

---

2) 형식문법에서의 설명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설명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Givón(1979:6-7)은 형식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재진술은 사실을 나열하는 것보다 뚜렷하고,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 (중략) ... 그런데 형식모형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 즉 모형은 아무 것도 설명을 하지 못한다. 모형은 모형 자체에 대한 설명도 못한다. 위의 두 가지 사실은 언제나 참이다. 그래서 형식모형만으로는 복잡하고 유기적인 행동의 “이론”이 될 수 없다”

통사적으로 다르게 실현되거나 다른 행태를 보일 것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 역도 성립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인지/인식 구조와 언어의 형태/통사 구조가 예외 없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설명은 꽤 설득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사이의 인지적 거리와 형태 구조와의 상관관계 (Haiman 1983)

나 분리가능한 소유관계(alienable possession)와 분리불가능한 소유관계(inalienable possession) 사이의 인지적 거리와 그것을 표시하는 형태 구조나 통사행태상의 차이(Fox 1981)

다 유정성(Animacy), 의도성(Volition), 통제성(Control), 영향받음(Affectedness) 등 인지적 개념과 이것들이 언어에 반영되는 모습(DeLancey 1984, Klaiman 1988, 연재훈 1993가)

구체적인 예문들에 대해서는 밑에서 따로 논의하겠지만, 특히 인식론적 거리의 차이가 형태-통사 구조상 거리의 차이로 반영된다는 것의 예들은 널리 알려져 있다(Bybee 1985).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본론에 앞서 몇 가지 문법현상에 대한 기능-유형 문법적 분석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 2. 직접/간접 사동과 형태 구조 사이의 상관관계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간의 인지/인식적 거리 차이는 여러 언어의 형태 구조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고 있다. 직접 사동이란 사역주가 피사역주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므로 그 인식 상의 거리가 간접 사동에 비해 짧다고 할 수 있다. 간접 사동에서는 사역주가 피사역주의 행위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피사역주의 독립성이 직접 사동의 그것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이다. 즉 직접 사동은 인지적 거리가 짧고, 간접 사동은 인지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 언어에 짧은 사동형과 긴 사동형이 공존할 경우에, 거의 예외없이 짧은 사동형은 직접 사동을, 그리고 긴 사동형은 간접 사동을 표현한다는 범언어적 보편소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Haiman 1983, H. Lee 1985, Knott 1988 등 참고). 예를 들어, 필리핀어인 체부아노(Cebuano)에서는 어휘적(synthetic) 사동형은 직접 사동을 표시하고, 접두사 ‘-pa’와 함께 나타나는 분석적(analytic) 사동형은 간접 사동을 표시한다(Haiman 1983:785).

힌디어(Hindi)에서는 직접 사동을 표시하는 데 접미사 -aa를 사용하고 간접 사동을 표시하는 데는 접미사 ‘-vaa’를 사용하여, 어근 ‘parh-’(study)에서 파생된 두 가지 사동형 ‘parh-aa’(teach) 와 ‘parh-vaa’(have someone study)이 각각 직접 사동의 의미와 간접 사동의 의미를 표현한다(Saksena 1980). 다음 예문을 보자.<sup>3)</sup>

- (1) a. mai-nee    larkee-koo    parh-aa-yaa.  
          I-Agt      boy-Dat/Acc    study-Dir.Caus-Past  
          “I taught the boy.”
- b. mai-nee    larke-koo    parh-vaa-yaa.  
          I-Agt      boy-Dat/Acc    study-Indir.Caus-Past  
          “I had the boy study.”

(1a)는 직접 사동을 나타내고 (1b)는 간접 사동을 나타낸다.

또 아무르강 상류와 사할린 지역에서 사용되는 니브크(Nivkh)말에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동문이 관찰된다(Knott 1988).

---

3) 이 책에서 인용되는 예문들의 전사 체계는 가급적 원래 인용 논문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논의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표기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화된 전사 체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점은 이하 모든 예문에서 마찬가지이다.

- (2) a. If p'az-d'  
 he undress-Finite  
 “He undressed (intr.)”
- b. 직접 사동(-u- suffix plus consonant change in root)  
 emek p'o:la faz-u-d'  
 mother her child undress-Caus-Finite  
 “The mother undressed her child.”
- c. 간접 사동(-gu- suffix)  
 emek p'o:la-ax p'az-gu-d'  
 mother her child-Causee undress-Caus-Finite  
 “The mother made her child undress.”

Knott(1988)에 따르면, (2b)와 (2c)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직접 사동형 접미사는 생산적이지 못한 반면, 간접 사동형 접미사는 생산적인데, 이것은 우리말의 어휘/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에 각각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두 유형은 통사적 행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바, 직접 사동형의 피사역주(causee)는 일반적 타동 구문의 직접목적어와 같이 아무런 형태적 표지도 갖지 않는 반면, 간접 사동형의 피사역주는 유정명사일 경우 예문 (c)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한 격표지를 받는다. 셋째, 직접 사동 동사는 일반 타동사와 별 차이가 없고 논항의 의미 기능도 사역주가 전형적 타동사의 행동주 역할과 같다는 점에서 타동사와 큰 차이가 없다.

네팔에서 사용되고 있는 티베토-버마어인 뉴아리(Newari)에서도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규칙적으로 구별하고 있다(DeLancey 1984). 이 언어에서 직접 사동은 사동 접미사 ‘-khal’의 첨가로 표시하고, 간접 사동은 접미사 ‘-khe’<sup>4)</sup>에 조동사 ‘yat-’(do)를 결합시킨 일종의 분석적 형태로 표시한다.

---

4) 이 접미사도 사동 접미사 ‘-khal’과 기원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한다.

(3) a. mæca cahil-o  
 child walk-Perf  
 “The child walked.”

b. misa-no wo mæca-yato cahi-khal-o  
 woman-Erg the child-Dat walk-Caus-Perf  
 “A/the woman walked the child.”

c. misa-no wo mæca-yato cahi-khe yat-o  
 woman-Erg the child-Dat walk-Caus do-Perf  
 “A/the woman made the child walk.”

(3b)와 (3c)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걷는 행위에 있어서 아이의 의도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들란시(DeLancey 1984:194)에 의하면, (3b)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길로 잡아끌어 걸리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고, (3c)에서는 여자가 아이에게 걸으라고 명령/권유해서 아이가 그 말에 따라 행동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의미상의 함축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1)-(3)에 제시한 예들에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차이는 사역주와 피사역주의 행위 사이의 인지적 거리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 거리상의 차이가 언어상으로는 짧은 사동형과 긴 사동형이라는 형태 거리상의 차이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말에서도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사이의 의미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어에서 직접 사동은 어휘적/형태론적 사동형으로, 간접 사동은 분석적/통사적 사동형으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이러한 의미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 (4) 직접 사동: 가. 엄마가 아이에게/를 옷을 입혔다.  
 나. 의사가 환자를 침대에 눕혔다.



- (5) 간접 사동: 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나. 의사가 환자를/에게 침대에 눕게 했다.

다른 나라 말에서와 같이 한국어에서도 간접 사동은 생산적이고, 직접 사동은 비생산적이다. (4)와 (5) 사이의 차이는 피사역주인 ‘아이’나 ‘환자’의 의도가 옷을 입는 행위나 침대에 눕는 행위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동문에서는 사역주(causer)나 피사역주가 의도성을 가질 수 있는 인물명사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사역주가 무정물인 경우에는, 간접 사동의 사역주가 미술적인 힘이나 주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간접 사동의 피사역주가 무정물인 다음 예문을 보자.

- (6) 가. 영수가 나무를 살게 했다. (cf. 영수가 나무를 살렸다)  
나. 영수가 의자를 돌게 했다. (cf. 영수가 의자를 돌렸다)

위 문장들이 이러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간접 사동이라는 것이 사역주와 피사역주 간에 물리적 접촉을 함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적 접촉이 없고 행위를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진 인물명사가 중간자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는 마치 미술적 힘에 의해서 그 행위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 함축이 영어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하이만(Haiman 1983: 784)은 기술하고 있다. 다음 예문이 그 예이다.

- (7) a. I caused the tree to fall.  
b. the chicken to die.  
c. the cup to rise to my lips.

특히 (7c)의 경우에는 사역주의 미술적 힘이 강력하게 함축되는 듯하다. 그러나 (6)-(7)에서 관찰되는 미술적 힘이라는 함축이 한국어의 형태론적 사동문 (8)이나 영어의 어휘적 사동문 (9)에서는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8) 가. 영수가 나무를 살렸다.

나. 영수가 의자를 돌렸다.

(9) a. I felled the tree.

b. I killed the chicken.

c. I raised the cup to my lips.

피사역주가 유정명사이거나 특히 인물명사일 경우에는 사역주에게 미술적 힘을 부여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간접 사동이라고 하더라도 사역주의 명령에 의해 피사역주가 사동 행위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간접 사동이 일반적으로 유정명사를 피사역주로 요구한다는 언어 사실을 기능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기능-유형 문법의 입장에서, 피사역주가 형태론적으로 어떤 표지를 취하며, 어떤 통사-의미적 특징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본론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콤리(Comrie 1981, 1989)가 제시한 문법관계 위계(hierarchy of grammatical relations)<sup>5)</sup>만으로는 피사역주의 다양한 형태-통사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만을 여기서는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 3. 분리가능한 소유관계와 분리불가능한 소유관계

인지적 거리의 차이가 언어의 형태-통사 구조나 그 행태상의 차이로 반영되는 예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소유주 인상 구문, 혹은 신체부위명사

---

5) 콤리는 주어>직접목적어>간접목적어>사격 보어라는 위계를 설정하고 사동문의 피사역주는 이 위계상에서 충족되지 않은 가장 왼쪽의 문법관계 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자동문이 사동화 되면 피사역주는 직접목적어자리에 오고, 직접목적어자리가 채워진 타동문이 사동화 되면 피사역주는 간접목적어자리에 오고,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자리가 모두 채워진 수여동사 구문이나 3항 술어 구문이 사동화 되면, 피사역주가 사격 보어 자리에 온다는 일반화를 주장하였다. 그가 전형적인 예로 든 언어는 터키말이다.

구문이다. 분리가능한 소유관계는 인지적으로 분리불가능한 소유관계보다 그 거리(긴밀성의 관계)가 소원한데, 이러한 사실이 언어 구조에도 반영된다고 보이는 예가 소유주 인상 구문의 통사행태상의 특성이다.

유형론적으로 신체부위명사구를 포함하는 구문들은 형태, 통사 구조상 신체부위명사가 그 소유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언어외적/실제적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이 우리의 관점에서 흥미를 끄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와 유럽어들에서는 소유주 명사구가 직접목적어나 여격 표지 목적어자리로 인상되고 소유물 명사구는 전치사구를 포함하는 사격 보어의 위치로 ‘하강’하는 다음과 같은 구문들을 소유주 인상 구문이라고 불러왔다(Fox 1981).

(10) a. I kicked him in the leg.

b. I kissed him on the cheek.

(11) Spanish: a. Le seco las lagrimas.

her he-dried the tears

“He dried her tears.”

b. Le veo las enaguas.

her I-saw the petticoat

“I saw her petticoat on her.”

스페인어 예문 (11)에서 소유주는 일반적인 소유격 형태 대신에 여격 대명사 형태로 나타나고, 소유물은 정관사 ‘las’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소유주 명사가 대격 표지를 갖는 주목적어<sup>6)</sup>의 위치로 인상

---

6) 주목적어는 ‘Primary object’를 가리킨다. 소유주 인상 구문에서 목적어로 상승된 소유주를 우리는 주목적어라 부르고, 원래의 목적어가 대격 표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적어로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부목적어 ‘Secondary object’라고 부른다. 주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상승될 수 있지만, 부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는 통사행태상의 차이를 보인다. 다음 예문을 보자.

되고, 소유물 또한 대격 표지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소위 ‘대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게 된다. 한국어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유주 상승 구문이란 다음과 같은 구문을 가리킨다.

- (12) 가.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 영수가 순이를 손을 잡았다.  
 나. 영수가 순이의 얼굴을 때렸다. → 영수가 순이를 얼굴을 때렸다.  
 다. 영수가 순이의 등을 밀었다. → 영수가 순이를 등을 밀었다.

(12)에서 소유격 표지의 소유주 ‘순이’가 대격 표지의 목적어로 문법관계를 바꾸고 있음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이 때, 소유주가 목적어로 상승될 수 있는 것은 뒤에 신체부위명사가 소유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기능-유형 문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앞 장에서도 잠시 암시된 것처럼, 대격 표지를 갖는 목적어는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나 사건에 의해 일차적으로 변화를 입거나 영향받음(affectedness)을 그 보편적 의미 특성으로 한다. 그리고 소유격 표지의 사격 보어는 기본적으로는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나 사건에 의해 변화되거나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12)에서는 변화나 영향받음의 관점에서 중립적인 소유주 명사구가 목적어 위치로 인상되어 대격 표지를 받음으로써 동사의 행위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 받는 의미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승이 가능한 이유는 순이의 ‘손’이나 ‘얼굴’, ‘등’이 동사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신체부위의 소유자인 ‘순이’가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신체부위와 그 소유자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 세계의 사실을 언어의 문법구조와 그 행태가 반영하고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신체부위명사가 아닌 분리가능한 소유물의 경우에 소유주 상승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예문 (13)을 (12)와 비교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 
- 1) 가.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 영수가 순이를 손을 잡았다.  
 나. 순이가 영수에게 손을 잡혔다.  
 다. \*순이 영수에게 순이를 잡혔다.

뒷받침 받을 수 있다.

- (13) 가. 영수가 순이의 사과를 먹었다. → \*영수가 순이를 사과를 먹었다.  
나. 영수가 순이의 선생을 때렸다. → \*영수가 순이를 선생을 때렸다.

(12)에서는 소유주와 소유물 사이의 관계가 밀접했기 때문에 소유물이 동사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입으면 필연적으로 그 소유주도 그 행위에 의해 영향을 입는다. 그 결과 소유주가 동사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목적어의 위치로 상승되어 대격 표지되는 것이 가능했다. 그에 반해서, (13)에서는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가 (12)만큼 밀접하지 않고, 소유물이 동사의 행위에 의해 변화를 입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주는 그 행위에 의해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목적어의 위치로 상승되어 대격 표지를 받으면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동사 구조의 행태상의 차이는 (12),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부위명사가 소유물로 사용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행태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체부위명사와 그렇지 않은 명사들은 통사행태상 상이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문법현상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체부위명사가 소유물 자리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주가 항상 목적어자리로 상승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비동작동사가 사용된 문장 구조에서는 비록 신체부위명사가 나타나도 그 소유주가 상승될 수 없다.

- (14) 가. 영수가 순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 \*영수가 순이를 목소리를 들었다.  
나. 영수가 순이의 다리를 보았다. → ?영수가 순이를 다리를 보았다.

‘목소리’도 넓은 의미에서 신체부위명사로 간주한다면, (14가)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듣다’라는 비행위 동사의 사용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 즉 영수가 순이의 목소리를 듣는 사건에 의해서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 ‘순이’는 거의 아무 변화나 영향을 입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가 상승된 구문은 어색

하게 들리는 것이다. (14나)도 그 부자연스러움이 (14가)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보다’와 같은 비동작동사, 즉 지각동사에 의해 유발된 사건에 의해서 는 소유주가 거의 영향을 입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 상승 구문이 (12)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제약 현상은 여러 나라 말에서 확인되는 범언어적 보편 현상인데, 다음에 몇 가지 예만 들어 보이겠다 (Fox 1981:327).

- (15) Dutch: a. Ik schudde hem de ha  
 I shook him the hand  
 “I shook his hand.”  
 b. \*Ik zag hem de hand.  
 I saw him the hand  
 “I saw his hand.”

- (16) a. I hit her on the leg.  
 b. \*I saw her on the leg.

(15a)의 ‘shake’나 (16a)의 ‘hit’와 같은 동작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소유주를 목적어자리로 교체해서 소유주 상승 구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15b)나 (16b)에서처럼 지각동사가 사용된 구문에서는 소유주를 목적어 자리로 상승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소유주 상승 구문은 언어에 따라서, 소유주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유주가 인물명사인가, 아니면 유정명사나 무정명사인가의 대립에 따라 소유주 상승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다음에 보이는 영어의 예문은 이러한 유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문장의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Fox 1981: 328).

- (17) a. I hit her on the leg.  
 b. ?I hit the tree on the branch.  
 c. \*I painted the house on the door.

예문 (17)에서 보는 것처럼, 인물명사가 소유주일 경우에는 소유주 상승이 자연스럽지만, 비인물명사나 무정명사가 소유주로 사용되면서는 그 자연스러움이 덜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유정성의 정도에 따른 소유주 상승의 허용 가능성은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비인물명사나 무정명사가 소유주로 나타나다라도 소유주 상승의 허용도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예문이 이 사실을 보여준다.

- (18) 가. 영수가 나무의 가지를 잘랐다. → 영수가 나무를 가지를 잘랐다.  
 나. 영수가 집의 벽을 허물었다. → 영수가 집을 벽을 허물었다.

(18가)에서는 비인물-유정명사 ‘나무’가 소유주 상승되었고, (18나)에서는 무정명사 ‘집’이 소유주 상승되었는데, 둘 다 자연스러운 문장들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유정성의 정도가 소유주 상승 구문 형성에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 (19) 가. 영수가 그 책의 표지를 찢었다.  
 나. 영수가 그 책을 표지를 찢었다.

(19나)에서 무정명사 ‘책’이 목적어자리로 상승되어 대격 표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영어와는 달리, 유정성의 정도가 소유주 상승 구문의 제약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아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정성의 정도가 피동 구문을 형성하는 데는 하나의 제약으로 행세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영어와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영어에서는 피동문의 주어자리에 유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명사가 올 수 있다.

(20) 가. 영수가 그 책의 표지를 찢었다.

나. \*그 책이 영수에게/에 의해서 표지를 찢겼다.

(20)에서와 같이 소유주 상승 절차에 의해서 목적어자리에 온 대격 표지 무정명사 ‘책’이 피동문의 주어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은, 다른 소유주 상승 구문에서 상승된 인물명사가 피동문의 주어자리로 또 한 번 상승될 수 있다는 통사행태와 비교해 볼 때 특이한 현상이며 따라서 한국어의 피동문 형성에서는 유정성의 정도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21) 가. 영수가 순이를 손을 잡았다. → 순이가 영수한테 손을 잡혔다.

나. 영수가 순이를 등을 밀었다. → 순이가 영수한테 등을 밀렸다.

목적어자리로 상승된 인물명사 ‘순이’는 (21)에서처럼, 피동문의 주어자리로 자연스럽게 상승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비인물명사와 무정명사가 소유주 상승된 문장 (18)의 피동문 허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18') 가. 영수가 나무를 가지를 잘랐다. → ?나무가 영수한테 가지를 잘랐다.

나. 영수가 집을 벽을 허물었다. → \*집이 영수에 의해 벽을 허물렸다.

비인물명사가 피동문의 주어로 사용된 (18'가)는 완전히 비문법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어색하고, 무정명사가 피동문의 주어로 사용된 (18'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장이 되어 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무정명사는 피동문의 주어자리에 잘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리가능한 소유관계와 분리불가능한 소유관계가 문법행태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소유주 상승 구문의 성립 여부가 소유주와 그에 뒤따르는 소유물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가 신체부위와 같은 분리불가능한 소유관계일 경우에는 소유주 상승이 허용되지만, 책이나 자동차 등의 일반적 소유물로서 분리가능한 소유관계일 경우에는 소유주



상승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약 조건을 관찰하였다. 신체부위명사구와 다른 명사구들이 문법 구문에서 상이한 행태를 보이는 현상을 기능-유형론적 문법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예가 될 것이다.

#### 4. 유정성(Animacy)의 정도 차이가 문법에 반영되는 모습

위에서 유정성의 정도 차이가 영어에서는 소유주 상승 절차의 제약 조건으로,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피동문의 주어화 절차의 제약조건으로 사용되는 예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 유정성의 정도 차이라는 의미 자질이 유형론적으로 여러 언어에서 중요한 형태-통사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sup>7)</sup>

한국어 문형 구조에서도 유정성의 정도는 어떤 명사구 논항이 주어 위치에 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즉 국어 문장에서 두 개의 명사구 논항이 명시적으로 표시될 경우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보통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sup>8)</sup> 다음 예문을 보자.

(22) 가. \*칼이 민호를 찔렀다.

나. 민호가 칼에 찔렀다.

7) 유정성의 정도에 따라 문장 성분들이 각기 다른 격표지를 취하거나 상이한 문법행태를 보이는 경우들의 예를 콤리(Comrie 1981, 1989: Ch. 9)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예시하고 있다. 또 잘 알려진 것처럼 후기 중세국어에서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소유격이 형태론적으로 서로 다르게 표시되었다는 것도 유정성 자질이 문법 형태 구조에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클라이만(Klaiman 1988)은 한국어에서 기본적으로 유정성의 정도가 주어의 선택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능동문과 피동문의 선택이 주어 명사구의 유정성 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3) 가. \*돌이 나를 쳤다.

나. 내가 돌에 차였다.

두 개의 명사구 논항 중에서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주어 위치를 차지하는 문장 구조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위 예문 (22), (23)이 보여 주고 있다. 물론 (가)에 예를 든 문장들도 문학 작품이나 시 등에서 쓰일 수 있겠지만,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주어로 사용된 (나)의 문장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능동문과 피동문의 선택도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를 주어자리에 놓으려는 문법적 기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영향을 입은 피동주주 명사구가 주어보다 유정성의 정도가 높을 때, 피동문 구조가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두 개의 명사구 논항이 모두 유정명사이고 인물명사일 경우에는 다음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능동, 피동의 두 구문이 모두 수용 가능하고 자연스럽다.

(24) 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나.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25) 가. 저 사람이 그 아이를 쫓는다.

나. 그 아이가 저 사람에게 쫓긴다.

위 예문에서는 행위자나 피행위자가 모두 유정성이 높은 인물명사인데, 이 경우 능동문이나 피동문이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행위자가 인물명사이고 영향을 받는 피행위자가 무정명사일 경우에는 능동문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을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7) 가. 영수가 공을 쫓고 있다.

나. \*공이 영수에게 쫓기고 있다.

(26) 가. 영수가 가방을 잡았다.

나. \*가방이 영수에게 잡혔다.

(26나), (27나)와 같이 피동문에서 행위자 명사구가 사격 보어 형태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어와 행위자 명사구보다 유정성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아주 부자연스런 피동문이 형성되고 만다. 이상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유정성의 정도라는 의미 자질이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주어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행세하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 말에서도 어떤 명사구가 주어자리에 오는가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데, 구노(Kuno 1973: 30)는 일본어에서도 타동사는 일반적으로 유정명사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은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는 용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고 하였다.

(28) a. \*taihuu                      ga            mado            o kawasita.  
         typhoon                  Nom    window       Acc broke  
         “The typhoon broke the window.”

         b. \*zidoosya-ziko            ga            teenager       o korosita.  
         traffic accident       Nom    teenager       Acc killed  
         “A traffic accident killed the teenager.”

따라서 한국어에서나 일본어에서는 능동문이나 피동문의 선택이 대체로 주어, 목적어 명사구 논항의 상대적 유정성 정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정성 위계라는 것이 제안되었는데(Silverstein 1976), 이것은 능동, 피동 구성 뿐 아니라 문장 구성의 선택이 유정성 위계상,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주어 위치를 차지하는 문장 구성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덕슨(Dixon 1979: 85)도 이와 비슷한 개념의 행위주 가능성

(potentiality of agency)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st person pronoun > 2nd person pronoun > Demonstrative > 3rd person  
pronoun > Proper nouns > Human common nouns > Animate common  
nouns > Inanimate common nouns

결국 실버스타인(Silverstein 1976)이나 딕슨(Dixon 1979)의 위계는 거의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유정성의 차이가 유정 대 무정의 단순한 정도 차이가 아니라 인칭과 같은 정밀한 차이도 문법행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끼체(Quiche)<sup>9)</sup>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Palmer 1994: 30-1).

- (29) \*s-kun-as            le yawap            w-umal  
Past-cure-Pass        the sick one        1Sg+Poss-by  
“The sick one was cured by me.”

(29)는 3인칭이 주어자리에 온 피동문인데, 이것이 비문이 되는 이유는 1인칭 대명사가 유정성 위계상으로 더 상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자리에 와야 한다는 제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인칭의 차이가 문법행태상의 차이로 반영되는 또 다른 예를 남티와어(Southern Tiwa)<sup>10)</sup> (Comrie 1981: 185-6)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언어에서는 3인칭과 비3인칭(1/2인칭)이 대립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타동문 구성에서 주어자리 논항이 1인칭이나 2인칭으로 목적어자리 논항보다 유정성이 높거나 같으면, 반드시 능동문 구성이 선택되고 인칭 일치 접두사가 동사구에 표시된다.

---

9) 과테말라 중부 고원지대에서 사용되는 마야 어족 언어의 하나이다.

10) Southern Tiwa는 멕시코의 아리조나와 그 인근 지역에서 사용되는 Tanoan어이다.

- (30) Bey -mu -ban  
 2Sg-1Sg see Past  
 “You saw me.”

그러나 목적어자리 논항이 1인칭이나 2인칭이고 주어자리 논항이 3인칭으로, 목적어자리 논항이 주어자리 논항보다 유정성이 높으면, 반드시 피동문 구성이 선택되어 유정성이 높은 목적어자리 논항을 주어자리로 보낸다.

- (30') Seuanide-ba te -mu-che-ban  
 man-Inst 1Sg see-Pass-Past  
 “The man saw me; literally: I was seen by the man.”

주어자리 논항과 목적어자리 논항이 모두 3인칭인 경우에는 능동문이나 피동문이 모두 자연스럽게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다(Comrie 1981: 186).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유정성의 정도라는 자질은, 언어에 따라 ‘인물명사 대 비인물명사’의 대립에서부터 실버스타인이나 덕슨 류의 정밀한 인칭 및 유/무정 대립, 그리고 티와(Tiwa)말에서처럼 ‘3인칭 대 비3인칭’의 대립 등 다양한 대립의 양상이 문법구조에 반영되는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정성의 정도라는 자질은 문법행태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법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정성이라는 개념이 관여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에서는 유정물 목적어만이 전치사 ‘a’를 취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간접목적어 명사를 가리킨다 (Palmer 1994: 36).

(31) a. Ha                    presentado        su amigo        a su madre  
              have+3Sg        introduced        his friend        to his mother  
              “He has introduced his friend to his mother.”

b. Ha                    comprado        un nuevo libro.  
              have+3Sg        bought            a new book  
              “He has bought a new book.”

c. Ha                    comprado        a un nuevo caballo.  
              have+3Sg        bought            to a new horse  
              “He has bought a new horse.”

(31a)에서는 목적보어가 둘 다 유정명사인 데 간접목적어 성분에 전치사 ‘a’가 선행하고 있고, (31b)와 (31c)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직접목적어인데 유정명사일 경우에만 전치사 ‘a’가 선행하고 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유정성의 정도가 문법행태의 차이에 관여하는 또 다른 예도 있다. 여격 표지 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갖는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직접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지 못하고, 여격 표지 목적어만이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거의 예외없이 여격 표지 목적어는 인물명사이고 직접목적어는 무정명사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유현경 (2007)은 한국어에서의 유정성을 조사 ‘에게’의 결합 양상을 통해서 살펴본 뒤에 한국어의 ‘유정성’은 다른 언어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차이점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

11) 물론 상황이 이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비록 유정명사라 하더라도, 비지시적 유정물 (non-specific animates)인 경우에는 다음 예처럼 전치사가 선행하지 않는다.

Busco                    una        criada.  
              look for+1Sg        a            maid  
              “I am looking for a maid.”  
              그러나 특정 인물을 찾고 있을 경우에는 전치사를 동반하여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Busco a una criada

기능-유형 문법에서는 전형성(prototype)이라는 개념과 정도(degree)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파동 구문이라고 하더라도 전형적 파동 구문이 있을 수 있고 덜 전형적이지만 파동 구문의 특성을 가지는 구문 등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문법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있고 없음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체(continuum)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자질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정도 차이라는 개념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 개념이 관여하는 또 다른 영역이 다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도성이나 통제성의 개념이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문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모습이다.

## 5. 의도성(volition), 통제성(control)의 정도 차이

기능-유형 문법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의도성’이나 ‘통제성’이라고 하는 의미 자질이 문법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과 그러한 인지 차이가 실제로 문법에서 달리 표현되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점 등이다. 의도성이 있는 주어의 행위와 의도성이 없는 주어의 행위는 인지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언어 구조에 반영되는 언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피사역주의 경우 사역주의 사동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피사역주가 행위에 대한 통제성을 가지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 차이도 언어 구조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언어학적으로 흥미로운 의의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논의의 편의를 위해 영어 문장 “We fell to the ground”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보면, 우리는 주어 명사구가 행사하는 통제성(의도성)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Comrie 1981: 53).

- a. We deliberately fell down(full control).
- b. We fell owing to our carelessness.  
(potential control not exercised)
- c. We inadvertently succumbed to a hostile universe or were  
pushed(no control).

영어에서는 위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의 의도성의 차이가 문법적(형태론적)으로 주어에 달리 표시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그러한 차이를 문법적으로 달리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한 언어도 있다. 한 예로 조지아 공화국 북부에서 사용되는 북-중부 코카시아 언어인 바츠(Bats)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Comrie 1981: 53).

(32) a. txo        naizdrax        kxitra  
         we-Abs   to-the-ground   fell  
         “We fell to the ground (unintentionally).”

b. atxo        naizdrax        kxitra  
         we-Erg   to-the-ground   fell  
         “We fell to the ground (intentionally).”

위 예문에서는 주어가 의미 기능에 따라 절대격과 원인격을 각각 취하고 있는데, (32a)에서는 주어가 넘어지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경우이고 (32b)는 주어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주어의 의도성(통제성)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건에 따른 주어의 격표지 형태의 차이는 소위 행동주형(Active-type) 언어<sup>12)</sup>라고 분류되는 언어 부류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데 지면 관계상 다음에 한 가지 예만 더 보이기로 한다. 이런 유형의 언어에서는

---

12) 행동주형(Active-type) 언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문은 말린슨과 블레이크(Mallinson & Blake 1981:52)를 참고할 것.



타동사문의 주어는 일관되게 원인격(ergative)을 취하는 반면, 자동사문의 주어는 의미적 특성 - 의도성의 정도 - 에 따라 원인격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다른 격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즉 자동문의 주어가 의도성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격표지를 취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라사 티베트말에서는 의도성을 갖는 자동문의 주어는 원인격을 취하고, 의도성이 없는 자동문의 주어는 무표격(zero)을 갖는다. 다음 예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33) a. Active type language: Lhasa Tibetan(DeLancey 1984: 132).

na-s stag bsad-pa-yin.

I-Erg tiger kill-Perf/Volitional

“I killed a tiger.”

b. na-s nus-pa-yin.

I-Erg cry-Perf/Volitional

“I cried.”

c. na si-byun

I die-Perf/Involitional

“I died.”

(33a)는 타동문이므로 주어가 원인격으로 표시되었고, (33b)는 자동문의 주어가 원인격, (33c)는 자동문의 주어가 무표격으로 표시된 예이다. (33b)에서는 주어가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를 갖고 우는 것이고, (33c)에서는 주어가 죽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소위 행동주격형 언어에서는, 타동문의 주어는 일관되게 원인격 표지를 받는 반면, 자동문의 주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격표지를 받는다. 즉 (33b)에서처럼, 주어가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격 표지를 갖지만, (33c)에서처럼, 주어가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 비의도성 주어인 경우에는 아무런 격표지를 갖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도성의 정도에 따라 문장의 주어가 달리 표시되는 경우

를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영역은 사동문의 피사역주(causee)가 그 행위에 관여하는 통제성의 정도에 따라 어떤 문법행태상의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영어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생각해 보자.

- (34) a. I made him fall.  
b. I had him fall.

(34a)는 피사역주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떨어진 경우이므로 피사역주가 행위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34b)는 피사역주가 상대적으로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기술하는 예이다(DeLancey 1984).

실제로 많은 언어에서 피사역주의 형태론적 표지와 의미 기능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일본어에도 피사역주의 두 가지 형태 표지에 따라 의미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Comrie 1981: 54).

- (35) a. Taroo-ga      Zi-roo-o      ik-aset-a.  
          Nom          Acc          go-Caus  
          “Taroo made (forced) Zi-roo go.”
- b. Taroo-ga      Zi-roo-ni      ik-aset-a.  
          Nom          Dat/Inst      go-Caus  
          “Taroo got (persuaded) Zi-roo to go.”

(35a)는 피사역주인 Zi-roo에게 최소의 통제력만을 부여하고 있고, (35b)는 상대적으로 피사역주가 높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다음과 같은 언어에서도 발견된다(Saksena 1980: 820).

- (36) Bolivian Quechua: a. nuqa    Fan-ta      rumi-ta    apa-ci-ni.  
                                  I    Juan-Acc    rock-Acc    carry-Caus-1Sg  
                                  “I made Juan carry the rock.”

b. nuqa Fan-wan rumi-ta apa-ci-ni

I Juan-Inst

“I had Juan carry the rock.”

(37) Kannada:<sup>13)</sup>

a. Avanu nanage bisketannu tinnisidanu  
he-Nom me-Dat biscuit-Acc eat-Caus-Past  
“He fed me a biscuit.”

b. Avanu nanninda bisketannu innisidanu  
he-Nom me-Inst  
“He caused me to eat a biscuit.”

(38) Hungarian:

a. Köhögtettem a gyerek-et  
I-caused-to caught the boy-Acc  
“I made the boy cough.”

b. Köhögtettem a gyerek-kel  
boy-Inst

“I had the boy cough.” (by asking him to do so)

위 예문들에서 (a)는 피사역주의 통제력이 거의 없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b)는 상대적으로 피사역주가 통제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사역주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충고나 설득에 의해서 피사역주로 하여금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간접 사동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콜(Cole 1983)은 유형론적으로 통제력이 있는 피사역주와 통제력이 없는

13) 칸나다(Kannada)는 인도 남부에서 사용되는 드라비다어(Dravidian)이다.

14) 앞에서 우리는 직접사동과 간접 사동이 동사구 내부의 길이의 차이, 즉 짧은 사동형과 긴 사동형으로 구별 표현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언어에 따라, 그러한 짧은 형과 긴 형의 구별이 없는 언어에서는 피사역주의 형태론적 격표지의 차이에 의해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인지 차이가 사동 구조에 반영되기도 한다.

피사역주를 형태론적으로 구별 표지함에 있어 어떤 보편적 형태론적 기제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간단히 말하면,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피사역주는 보통 도구격으로 표시되고, 통제력이 없는 피사역주는 보통 파동작주(patients)를 표시하는 격과 동일한 대격이나 여격으로 표시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격은 전형적인 파동작주를 표시하는 격표지로서 아주 낮은 통제력을 가진 논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고, 도구격<sup>15)</sup>은 높은 통제력을 가진 논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경험주(experiencer)나 수혜자(recipient)를 표시하는 여격은 보통 통제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중간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명사구 논항의 통제력이라는 의미 자질의 관점에서 형태론적 격표지 위계를 ‘instrumental > dative > accusative’와 같이 설정할 수 있었는데, 콤리(Comrie 1981)도 사동문에서 피사역주가 행사하는 통제력을 피사역주에 표시되는 격표지와와의 상관 관계로 분석하면서 똑같은 격표지 위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형태론적 사동 구문에서는 이 위계가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형태론적 사동문의 피사역주는 통제력이 거의 없는 것 같기 때문인데, 이것은 한국어의 형태론적 사동사가 일반 타동사처럼 기능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석적(통사적) 사동에서는 다른 언어에서와 같이, 피사역주를 표시하는 대격과 여격 사이에 상당한 의미차이를 수반하는 것 같다. 이효상(Lee 1985)에서 지적된 것처럼, 다음 예문에서 피사역주의 격표지는 통제력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는데, 이것은 콤리의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9) 가. 아버지가 아이를 마당에서 놀게 했다.  
       나. 아버지가 아이에게 마당에서 놀게 했다.  
       다. 아버지가 아이가 마당에서 놀게 했다.

---

15) 혹은 파동문에서 사격 보어로 나타나는 행위주를 표시해 주는 격도 이 부류에 들어간다.

(39)에서 보는 것처럼, 피사역주에 표시된 대격은 사역주의 강력한 강요를 함축하고, 여격은 그보다는 약한 명령이나 권유, 그리고 주격은 단순한 허락이나 분위기 조성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이효상(Lee 1985)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사동 구문에서 피사역주가 행사하는 통제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주격>여격>대격의 순으로 통제력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위에서 주로 문장의 주어가 갖는 의도성의 정도와 사동문의 피사역주가 행사하는 통제성의 정도가 형태적으로 상이하게 표시되는 예들을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인간의 인지/인식 구조상의 차이가 언어 구조에 상이하게 반영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영향입음(Affectedness) 자질이 문법구조에 반영되는 모습

일반적으로 대격 언어에서 전형적인 목적어는 대격 표지를 받는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는 목적어가 그 전형성(prototypicality)의 정도에 따라 대격뿐만 아니라 부분격이나 생격 등의 비대격 표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보통 호퍼와 톰슨(Hopper & Thompson 1980) 식의 전형적 타동문 구성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목적어라고 하면, 지시성(definite participant)이나 유정성 또는 영향입음(affectedness) 등의 자질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는 영향입음 자질과 격표지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언어에서, 목적어가 전체적으로 사태 구조에 관여하고 있을 때에는 전형적인 목적어 표지인 대격 표지를 갖지만, 부분적으로만 관여하고 있을 때에는 생격이나 부분격 등의 비대격으로 표시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 (40) Russian  
(Malinson & Blake 1981:65):
- a. Peredajte mne xleb.  
pass me bread-Acc  
“Pass me the bread.”
- b. Peredajte mne xleba.  
pass me bread-Gen  
“Pass me some bread.”
- (41) Finnish  
(Shibatani 1982: 110):
- a. Lauri otti rahan  
took money-Acc  
“Lauri took (all) the money.”
- b. Lauri otti rahaa.  
took money-Partitive  
“Lauri took some money.”

이러한 대격 표지와 비대격 표지의 전체적 관여와 부분적 관여라는 상관관계는 여러 언어에서 목격되고, 한국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소위 처소 교체 구문에서의 격표지 교체와 의미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 (42) 가. 영수가 책표지에 검은색을 칠했다.  
나. 영수가 책표지를 검은색으로 칠했다.

위 예문에서는 장소보어 ‘책표지’가 각각 처격 표지와 대격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42가)에서는 영수가 책표지의 일부분에 검은색을 칠했다는 의미가 강한데 비해, (42나)에서는 책표지 전체가 검은색으로 칠해졌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대격으로 표지된 장소보어가 ‘전체적 관여’라는 의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장소보어의 부분적 관여와 전체적 관여라는 의미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믿으며, 또한 이러한 의미 차이는 다음에서 보일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범언어적 보편소인 것이다.

(43) 가. 아기가 책표지에 검은색을 칠했지만, 다행히 반 이상은 깨끗하게 남아 있다.

나. ?아기가 책표지를 검은색으로 칠했지만, 다행히 반 이상은 깨끗하게 남아 있다.

(43가)는 자연스러운 반면 (43나)는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43나)에서는 책표지 전체가 검은색으로 칠해졌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내용이 후행절에 따라옴으로써 의미/화용론적으로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 시험은 다음과 같은 영어 문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왔다(Brown & Miller 1982: 173ff, 215-17).

(43') 가. The child painted black colour on the book-cover but fortunately more than half the bookcover was not marked.

나. ?The child painted the bookcover with black colour but fortunately more than half the bookcover was not marked.

(43'나)의 영어 문장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위치에 있는 'bookcover' 전체가 검은색으로 칠해졌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치되는 후행절이 나타남으로써 어색한 문장이 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 차이를 노출하는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

(44) 가. 영수가 벽에 신문지를 붙였다.

나. 영수가 벽을 신문지로 붙였다.

위의 예문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의미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데, (44가)는 벽지로 발라져 있는 벽에 신문지 조각을 한 구석이나 일부뿐, 또는 신문에 난 기사를 오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기억을 돕기 위하여 신문지를 오래 붙인 상황 등을 설정할 수 있겠다. 반면에, (44나)는 영수가 벽 전체를 신문지로 도배했거나, 벽 전체가 신문지로 붙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제 또 한 가지 범언어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처소 교체 구문의 예를 살펴보고, 여러 나라 말에서 나타나는 예문들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논의를 유형론적으로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음 예문 (45)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 처소 교체 구문의 예이다.

(45) 가. 영수가 정원에 소나무를 가꾸었다.

나. 영수가 정원을 소나무로 가꾸었다.

(45가)는 영수가 정원에 소나무 말고도 다른 나무나 꽃을 가꾼 경우도 사용할 수 있지만, (45나)는 영수가 정원 전체를 오직 소나무 한 가지로만 가꾼 것을 함의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의미차이는 다음과 같은 검증을 통해 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45') 가. 영수는 정원에 소나무를 가꾸고, 순이는 장미를 가꾸었다.

나. 영수는 정원을 소나무로 가꾸고, 순이는 장미로 가꾸었다.

(45'가)에서 장소보어 ‘정원’은 처격 표지 ‘에’에 의해서 사건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45'나)에서 장소보어 ‘정원’은 대격 표지 ‘을’에 의해서 사건에 전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 야기되는 의미차이는 (45'가)에서는 영수와 순이가 똑같은 정원에 소나무와 장미를 각각 재배한 경우를 함축하고 있는 듯 하고, (45'나)에서는 영수가 자기의 정원 전체를 소나무로, 순이는 자기의 정원 전체를 장미로 가꾸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상 소략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처소 교체 구문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보어는 대격 표지와 비대격 표지의 교체에 상응하는 의미차이를 노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46) 바르다, 장식하다, 덮다, 채우다, 메우다, 조성하다, 새겨넣다.

유형론적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46)과 같은 동사 범주가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사한 의미차이를 보여주는 보편적 의미 범주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paint’, ‘plant’, ‘paste’, ‘spray’ 등과 같은 동사들은 거의



모든 언어에서 앞에서 말한 의미차이를 수반하는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한다.  
다음 예들은 영어 및 다른 나라 말에서 발견되는 처소 교체 구문의 예들이다.

- (47) a. John sprayed (smeared) paint on the wall.  
       a'. John sprayed (smeared) the wall with the paint(Moravcsik 1978:248).  
       b. John planted trees in the garden.  
       b'. John planted the garden with trees(Brown & Miller 1982:173).  
       c. John loaded hay on the truck.  
       c'. John loaded the truck with hay. (Foley and Van Valin 1984:61)  
       d. John engraved an epitaph on the stone.  
       d'. John engraved the stone with an epitaph. (Miller 1989:195)

(48) German(Comrie 1985:313)

- a. Hans pflanzt Baume im Garten.  
    "Hans plants trees in the garden."  
 b. Hans be-pflanzt den Garten mit Baumen.  
    "Hans plants the garden with trees."

(49) Russian(Comrie 1985:314)

- a. Ivan sejet/posejal pshenicu v pole.  
    "Ivan sows/sowed wheat in the field."  
 b. Ivan zaseivajet/zasejal pole pshenicej.  
    "Ivan sows/sowed the field with wheat."

(50) Hungarian(Moravcsik 1978:248)

- a. Janos fak-at ultett a kert-be.  
    John trees-Acc plant the garden-into  
    "John planted trees in the garden."  
 b. Janos be-ultett a kerte-t fak-kal  
    John Appl-planted the garden-Acc trees-with  
    "John planted the garden with trees."

(47)-(50)에 제시된 처소 교체 구문들은 모두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전체와 부분이라는 의미차이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47)-(50)에 열거한 문장 외에도 의미차이를 수반하는 처소 교체 구문의 예들을 통간어(Tongan), 왈비리(Walbiri), 카바디언(Kabardian), 타갈로그(Tagalog)말 등을 포함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다(Van Valin & Foley 1980:336).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 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의미차이를 수반하는 처소 교체 구문의 의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것은 대격 표지가 범언어적으로 영향입을 자질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행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준 한 예가 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전형적인 목적어를 표시하는 대격 표지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성/한정성(definiteness)과도 관련성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터키말에서는 한정적 목적어(definite direct object)만이 특수한 대격 표지인 -ı나 이것의 음운론적 변이형을 취하고, 다른 목적어들은 무표지로 나타난다(Comrie 1981:125).

- (51) a. Hasan            öküz-u        aldı  
          Hasan        ox-Acc        bought

“Hasan bought the ox.”

- b. Hasan bir        öküz        aldı  
                  a    ox            bought

“Hasan bought an ox.”

(51a)는 특정적인 소를 가리키므로 대격 표지를 가지고 있고, (51b)는 불특정적인 소를 가리키므로 목적어가 무표지로 나타난 것이다<sup>16)</sup>. 또 페르시아

16) 터키말에서는 “Hasan öküz aldı”와 같은 문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장은 몇 마리의 소를 샀는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는다. 즉 “Hasan bought an ox or oxen.”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말에서는 한정적 목적어를 표시하기 위해 접미사 ‘-ra’를 사용한다(Comrie 1981:126).

- (52) a. Hasan ketāb-rā did.  
 Hasan book-Acc saw  
 “Hasan saw the book.”
- b. Hasan yek ketāb did.  
 a book saw  
 “Hasan saw a book.”

(52a)는 한정적 목적어가 접미사 ‘-rā’와 함께 나타난 예이고, (52b)는 비 한정적 목적어가 무표지로 나타난 예이다.

목적어의 격표지 특성과 관련하여 더욱 복잡하고 재미있는 현상은 유정성(animacy)과 한정성(definiteness) 자질이 서로 맞물려서 목적어 표지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힌디말에서는 인물명사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후치사 ‘ko’로 표시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인물명사 목적어라도 비한정적인 경우에 한해서 후치사 ‘ko’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비인물명사는 특히 무정물인 경우에는 결코 후치사 ‘ko’를 취할 수 없는데, 목적어가 한정/특정 명사인 경우에는 무정물이라도 후치사 ‘ko’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일련의 예문들이 힌디말에서의 이러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Comrie 1981: 126).

- (53) a. Aurat bacce ko bulā rahī hai.  
 woman child Acc calling Prog is  
 “The woman is calling the/a child.”
- b. ?Aurat bacca bula rahi hai.
- c. Un patrō ko parhie.  
 those letters Acc read-Polite  
 “Please read those letters.”

- d. Ye        patr        paṛhie.  
          these    letters    read-Polite  
          “Please read these letters.”
- e. Patr        likhie.  
          letters    write-Polite  
          “Write letters please.”

(53a)는 목적어가 인물명사이기 때문에 한정/비한정에 상관없이 후치사로 표지되었고, (53b)는 인물명사 목적어가 후치사 없이 사용되어서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든 예이다. (53c)는 이 목적어이지만 한정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후치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경우이고, (53d)와 (53e)는 비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은 후치사를 취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예문 (53)이 보여 주는 것처럼, 힌디말에서 목적어자리 논항에 후치사 ‘ko’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정성이라는 자질과 한정성이라는 자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적어 논항의 여러 가지 인지적 의미 자질에 따른 격표지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의미 자질과 형태표지 사이의 상관관계도 범언어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해 줄 것이다.

## 7.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기능-유형 문법이란 무엇이고, 언어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접근방법을 채택했을 때 어떤 문법현상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문법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기능-유형 문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우리가 위에서 시도하고자 한 것은 유형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언어의 유형적 분류나 다

양한 언어의 참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문법에 대비되는 기능 중심적 설명 방식으로서 언어 구조의 보편성과 차이점을 탐구해 나가려는 언어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을 몇 가지 예문 분석을 통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가능피동구문

중립동사 구문

상호 구문

주격중출 구문

심리동사구문

수어동사 구문

소유 구문

신체부위명사구문

처소교체구문

관계절

사동문

피동문

격표지 유형론

여격주어구문

소유주 상응 대격 중출 구문

## 3장

### 격표지 유형론과 한국어 여격 주어 구분

#### 1. 머리말<sup>1)</sup>

격표지 유형론적 관점에서 언어는 대격(accusative) 언어와 원인격(ergative) 언어<sup>2)</sup>로 나뉜다. 원인격 언어의 전형적 타동문 구성은 원인격-절 대격(ergative-absolutive)의 구조를 갖고, 대격 언어의 전형적 타동문은 주

---

1) 제3장의 내용은 연재훈(1996다)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 증보한 것이다.

2) ‘원인격 언어’라는 것은 ‘절대격-원인격 언어’(absolute-ergative language)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ergative’를 보통 ‘능격’이라고 부르는데, 필자는 이 술어를 이향천(1991)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원인격’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rgative라는 말은 원래 ‘cause, bring about, create’를 의미하는 희랍어 동사로부터 만들어진 단어인데 (Lyons 1968: 352), 종래에 바스크어나 조지아말, 또는 몇몇 호주 원주민 언어들의 격 현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던 술어이다. 이 술어에 대한 역어는 197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상익(1970/1999: 117)에서 처음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1) “ergative case는 ‘역격’(役格) 또는 ‘인격’(因格), ‘의격’(依格) 등이 가당할 것이고, ergativity는 ‘역동성’(役動性)이 어떨까 한다”.

그런데 이상익(1972)에서는 일본학자 야스이(安井)를 본받아 ‘능격’이라는 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 국어학계에서 별 반성 없이 이 용어가 받아들여져 사용되어 온 듯하다. 그러나 ‘능격’이라고 했을 때는 그 원래의 개념(cause, bring about, create)이 잘 연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상익(1970)에서 처음 제안된 역어들이 원 개념에는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격-대격(nominative- accusative) 격표지를 갖는다. 그러나 한 언어의 격표지 체계는 이러한 전형적 격표지 체계 이외에도 다양한 비전형적 혹은 비일관적 격표지(case-marking deviation) 양상을 보여 준다. 소위 원인격 언어에서의 ‘쪼개진 원인격’(split ergativity) 구성<sup>3)</sup>이 잘 알려진 예이다. 원인격 언어에서의 예외적 격표지 현상과 마찬가지로 대격 언어에서도 비일관적/비전형적 격표지 현상이 발견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비일관적 격표지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유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여격 주어구문을 비전형적 타동문 구성의 한 예로 분석할 것이다. 한국어에 나타나는 여격 주어구문이란 다음과 같은 심리 형용사 구문, 필요 구문, 소유/존재 구문에 나타나는 ‘여격-주격 구성’의 구문들을 가리킨다.

(1) 가. 나에게는 영화가 좋다.

나. 선생에게(는) 학생이 필요하다.

다. 영수에게 이들이 있다 / 영수에게 돈이 많다.

‘여격 주어’라는 술어<sup>4)</sup>가 암시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구문들에 나타나는 여격 표지의 첫 번째 명사구를 문장의 통사적 주어로 간주하는데 이에 대한 통사적 근거는 본문에서 논의될 것이다. 우리는 ‘주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전형성’(prototype)이란 개념을 도입한다.<sup>5)</sup>

3) 소위 ‘쪼개진 원인격/능격성’(split ergativity)에 대한 유형론적 소개와 국어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영근(1986)을 참고할 것.

4) ‘여격 주어’라는 술어가 논쟁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예문 (1)에 나타나는 여격 표지 명사구들은 전형적인 타동문 구성에 나타나는 주격 주어에 비해 주어로서의 속성이 약하고 형태적, 의미적 특성도 전형적 주어로서의 속성을 보여 주지 않지만, 통사적 측면에서 주어적 속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여격 주어’라는 술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논의의 궁극적 목적은 이러한 ‘여격-주격 구성’에 나타나는 명사구의 문법관계(주어, 목적어 등)를 밝히는 데 있지 않고, 이러한 비전형적 타동문 구성을 유형론적으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설명하느냐에 있다.

5) ‘전형성’(prototype)이라는 측면에서 문법범주를 정의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시바타니(Shibatani 1985)의 피동문 정의, 호퍼와 톰슨(Hopper & Thompson 1980), 연재훈



우리는 기능-유형론적 문법의 관점에서 여격 주어구문의 통사, 의미 특성을 관찰하고 비전형적 타동구문의 격표지 현상으로서 대격 언어와 원인적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격 주어 구문을 유형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격표지 유형론과 비일관적 격표지 양상

이제 원인적 언어와 대격 언어에서 나타나는 비일관적 격표지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형적 격표지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격표지 현상에 대해서 기능-유형론적 설명을 제시해 보도록 하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기본 의미-통사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호를 사용할 것이다.<sup>6)</sup>

- (2) 자동 구문의 주어자리 의미 기능: S
- 타동 구문의 주어자리 의미 기능: A
- 타동 구문의 목적어자리 의미 기능: P

위의 표에서 S, A, P는 각각 넓은 의미에서의 의미-통사 관계를 나타낸다. 유형론적으로 범언어적 보편성을 찾기 위해서는 각 개별 언어의 철저한 구조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개별 언어에서 문장구성과 구조를 분석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문법관계와 의미기능 사이의 대응관계이다. 자동문의 주어 S는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S는 1항 술어 구문에서의 유일한 명시구 논항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문제는 2항 술어 구문, 즉 타동문 구성에 있다. 전형적 타동문 구성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

(1997)의 타동문 정의, 류시중(1995)의 보조용언 정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약호는 덕슨(Dixon 1979)과 같다. 다만, 덕슨은 타동문의 목적어에 우리가 사용하는 ‘P’ 대신에 ‘O’라는 약호를 사용하고 있다.

의미역할(semantic roles)	→	문법관계(grammatical relations)
동작주(agent)		주어(subject)
피동작주(patient)		목적어(object)

이주 간단히 말하면, ‘동작주’라는 의미기능은 일반적으로 ‘주어’라는 문법 관계에 대응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언어에서 주어라는 문법관계가 동작주라는 의미기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기능이 주어자리에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언어마다 다르다. 영어에서는 주어자리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의미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sup>7)</sup>. 한국어에서도 주어자리에는 다음 예문 (3)에서처럼 여러 가지 의미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 물론 주어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기능은 동작주이지만 도구나 수혜자, 경험자 등이 모두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

(3) 주어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의미기능

- |                       |                    |
|-----------------------|--------------------|
| 가. 영수가 친구를 쳤다         | [agent]            |
| 나. 돌이 거울을 깼다.         | [instrument]       |
| 다. 순아가 편자를 받았다.       | [goal (recipient)] |
| 라. 개가 소라를 들었다.        | [experiencer]      |
| 마. 잠실운동장이 2만 명을 수용한다. | [locative]         |

예문 (3)에서 진한 고딕체로 표기된 명사구들은 좁은 의미의 의미기능에서 는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구조에서 더 적극적인 의미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의미기능을 설정할 필요를 느낄 수 있다. 폴리와 반 발린(Foley & Van Valin 1984:29)은 주어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포괄하여 주어기능을 수행하는 ‘포괄적 의미기능’을 ‘능동자’(actor)라고 이름 붙이고 ‘동사가

7) 이 점에 대해서는 브라운과 밀러(Brown & Miller 1991: 320ff) 참조

지시하는 행위나 사건을 수행, 통제, 유발하거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명사구 논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제 목적어자리에 올 수 있는 의미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목적어자리의 전형적 의미 기능은 피동작주나 대상 역할이지만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소역이나 도구역할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어도 발견할 수 있다.

(4) 목적어자리에 올 수 있는 다양한 의미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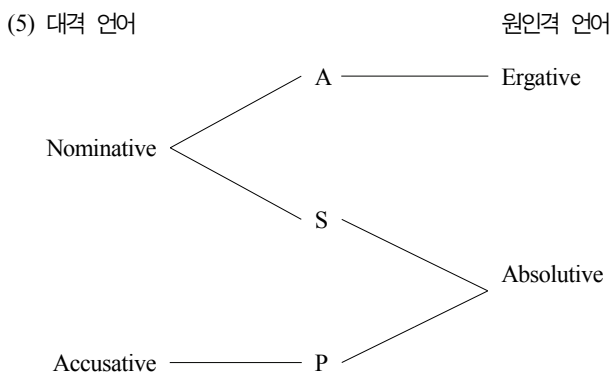
- |    |                |              |
|----|----------------|--------------|
| 가. | 영수가 공을 던졌다.    | [theme]      |
| 나. | 순아가 친구를 쳤다.    | [patient]    |
| 다. | 화살이 표적을 맞추었다.  | [locative]   |
| 라. | 철수가 돌을 벽에 던졌다. | [instrument] |

폴리와 반발린(Foley & Van Valin 1984:29)은 목적어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 기능의 명칭으로 ‘수동자’(undergoer)를 제안하고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나 사건을 수행, 통제, 유발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행위나 사건에 의해 영향을 입는 명사구 논항’이라고 정의하였다.

반 발린(Van Valin 1994: 1330)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이 ‘포괄적 의미 기능’을 제안한 이유는 위에서 본 것처럼, 문장의 통사 구조에서 일군의 의미 역할이 통사적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인데, 이것은 이미 예문 (3)과 (4)에서 보인 바 있다. 즉 (3)에서는 동작주, 도구, 수혜자, 경험자, 처소역이 모두 능동자로서 타동 구문의 주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4)에서는 대상역, 피동작주, 처소역, 도구가 모두 수동자로서 타동 구문의 목적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포괄적 의미 기능이 주어, 목적어 같은 문법관계와 동일시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우선, 앞에서 우리가 설정한 S, A, P 등은 포괄적 의미 기능이고, S와 A를 대격 언어에서 같은 격표지(주격)로 표시하는 관계(S=A)나 S와 P를 원인격 언어에서 같은 격표지(절대격)로 표시하는 관계(S=P)는 문법관계인 것이다.<sup>8)</sup>

위의 표 (2)에서 S는 자동사문(혹은 1항 술어문)에서의 명사구 논항을 가리키고, A는 타동사문 (혹은 2항 술어문)에서 능동주(주어 명사구) 논항을 가리킨다. 그리고 P는 타동사문에서 수동주(목적어 명사구) 논항을 가리킨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A가 반드시 동작주 주어 명사구를, 그리고 P가 반드시 피동작주 명사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전형적인 문장의 주어는 동작주이고 목적어는 피동작주이지만, 비전형적 타동 구성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위치에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

어떤 언어가 S와 A를 동일한 격표지로 표시하고 P를 다른 격표지로 표시하면 그것은 (주격-)대격 언어이고, S와 P를 동일한 격표지(절대격)로, 그리고 A를 원인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표지로 표시하면 그것은 원인격(-절대격) 언어이다. 이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6) 대격 언어: 한국어

가. 영수가 죽었다.

나. 영수가 미아를 죽였다.

---

8) 포괄적 의미 기능의 도입 필요성과 문법관계와의 구별 필요성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반 발린(Van Valin 1994)를 참고할 것.

(7) 원인격 언어: Warrgamay(Australian) (Dixon 1979)

- a. Nulmburu      gaga-ma  
      woman-Abs   go-Fut  
      “The woman will go.”
- b. maal-du      Nulmburu      Nunda-lma  
      man-Erg      woman-Abs      see-Fut  
      “The man will see the woman.”

한국어에서는 S와 A가 주격으로 나타나고 P는 대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7)에서는 S와 P가 절대격으로, A는 원인격으로 표시되고 있다. 위의 예문만을 본다면, 대격 언어와 원인격 언어의 구분이 그래도 명확하고, 그 나름대로 일관된 격표지 행태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언어 내에서도 비일관적 격표지 행태가 종종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대격과 원인격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목격된다. 유형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원인격 언어에서의 ‘비일관적’ 격표지가 그 한 예이며, 대격 언어에서도 비일관적 격표지 행태를 발견할 수 있다.

딕슨(Dixon 1979)에 따르면, 범언어적으로 비일관적 혹은 예외적 격표지 행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견된다.

- (A) 동사의 의미특성에 따라(Split conditioned by semantic nature of verb)
- (B) 명사구의 의미특성에 따라(Split conditioned by semantic nature of NPs)
- (C) 시제와 상에 따라(Split conditioned by aspect/tense of sentence)
- (D) 주절이나 종속절이냐에 따라(‘Main’ vs. ‘Subordinate’ clause split)

지면 관계상 몇 가지 예만 들어보자. 우선 (B)에 해당하는 예 한 가지를 살펴보겠다. Warrgamay에서는 명사구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격표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명사와 3인칭 대명사의 경우에는 원인격 언어의 격표지 특성을 보여주고, 1,2인칭 대명사의 경우에는 대격 언어의 격표지 특성을 보여준다.

1인칭과 2인칭 대명사가 쓰이고 있는 다음 예문과 명사가 쓰이고 있는 예문 (7)을 비교해 보자.

- (8) a. Nana                      gaga-ma.  
           we (Nom)            go-Fut  
           “We go.”
- b. nyuurra            Nana-nya    Nunda-lma.  
           you (Nom)    we-Acc        see-Fut  
           “You will see us.”

(7)에서는 원인격 언어의 격표지 특성을 보여 주었던 언어가 (8)에서는 대격 언어의 격표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쪼개진 원인격’(split ergativity) 현상을 보여 주는 언어로 조지아말(Georgian)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은 (A)와 (C)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예를 보여준다. 조지아말에는 1유형부터 4유형까지 네 가지 부류의 동사군이 있는데, 일반적 타동사군이 속해 있는 1유형, 피동사를 포함한 자동사군이 속해 있는 2유형, 소위 중립동사(middle or medial verb)가 속해 있는 3유형, 감정동사군을 포함하는 4유형 중에서 원인격 구성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타동사군이 속해 있는 1유형의 타동사군이다(연재훈 1993나:260). 이렇게 동사의 유형에 따라 원인격 구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A)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조지아말에서는 문장의 시제와 상에 따라 격표지 행태가 달라지는데, 과거 시제의 경우에만 원인격 체계가 나타나고 비과거(현재나 미래) 시제 문장에서는 대격 체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비일관적 격표지 행태는 (C)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9) a. st'alin-i            tav-is            mt'r-eb-s            ga-(o)-zlet'-s  
           Nom    his own    enemy-pl-Dat    he=will=exterminate=them  
           “Stalin will exterminate his enemies.”



- c. na si-byun  
I die-Perf/Involitional  
“I died.”

(10b)에서는 주어가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를 갖고 우는 것이고, (10c)에서는 주어가 죽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소위 행동주형 언어에서는, 타동문의 주어 A는 일관되게 원인격 표지를 받는 반면, 자동문의 주어 S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격표지를 받는다. 즉 (10b)에서처럼, 주어가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격 표지를 갖지만, (10c)에서처럼, 주어가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 비의도성 주어인 경우에는 절 대격 표지(무표지)를 갖는다.

또 한편, 어떤 언어에서는 자동사문의 주어뿐만이 아니라 타동사문에서도 주어의 의도성이나 행동성 여부에 따라 타동주어가 상이한 격표지를 받기도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1) Batsby(Volitionality of A) (Comrie 1981, Shibatani 1983)

- a. tXo            naizdraX            qitra.  
we(Nom)    to-the ground    fell  
“We fell to the ground(unitentionally).”
- b. atXo            naizdraX qitra.  
we(Erg)  
“We fell to the ground(intentionally).”

예문 (11)은 전형적 타동구성은 아니지만, 2개의 명사구 논항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예문 (10)과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11a)에서는 주어가 넘어지고 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경우이고 (11b)는 주어가 의도적으로 넘어졌다는 의미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어의 행위에 있어서 의도성의 정도 차이에 따라 (a)에서는 주격이, (b)에서는 원인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인격 언어에서 나타나는 비일관적 격표지 행태에 대해



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비일관적 격표지 행태는 원인적 언어 뿐만이 아니라 대격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격 언어의 타동문 구성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격표지 행태는 아래 (12a)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 밖에도 몇 가지 불규칙한 격표지 행태를 보여준다.

(12)	A	P	
a.	NOM	ACC	V(canonical pattern)
b.	NOM	Non-ACC	V
c.	DAT	NOM	V

(12b)의 경우는 타동문의 목적어가 대격이 아닌 다른 격표지로 표시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여격이나 공동격(comitative)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로서, 이러한 모습은 여러 언어에서 관찰된다. 다음은 국어에서 P 명사구가 여격이나 공동격 같은 비대격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 (13) 가. 철수가 선생님에게 인사했다.  
 나. 영수가 순이와 결혼했다.  
 다. 우리나라가 영국(을+에게) 이겼다.  
 라. 순이는 엄마(를+와) 닮았다.

(13)의 표현들은 국어에서는 P 명사구가 비대격으로 나타나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대격의 직접목적어 형태로 나타난다. 또 어떤 언어에서는 타동문의 P 명사구가 특수한 의미 환경 아래서 소유격이나 부분격(partitive)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sup>10)</sup>.

여격-주격 행태는 범언어적으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이제 아래에서 여격-주격 형태, 소위 우리가 여격 주어구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격 언어에서의

10) 타동문의 P 명사구가 전체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느냐, 부분적으로 관여하느냐에 따라 러시아어에서는 대격 대 소유격(생격), 핀란드말에서는 대격 대 부분격의 격표지 교체 양상을 보인다. 실제 문장 예는 Mallinson & Blake(1981:65)와 Shibatani(1982:110)을 참고하라.

비전형적 타동문 구성으로 간주하고 그것들의 통사, 의미적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또한 이러한 비전형적 타동문의 격표지 형태를 기능-유형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천착해 보기로 하겠다.

### 3. 한국어 여격 주어구문: 비전형적 타동문 구성

먼저 한국어 여격 주어구문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세계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여격 주어 구문들을 모아보고 그것들의 격표지 형태를 관찰해 보기로 하자. 다음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상태동사가 쓰이는 문구성에서는 여격 주어 구문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sup>11)</sup>

- (14) a. Spanish: Me gusta la cerveza.  
                   I-Dat like the beer-Nom  
                   “I like beer.”
- b. Russian: Mne nuzna kniga.  
                   I-Dat necessary book-Nom  
                   “I need a book.”
- c. Kannada: Manage jarman baratte.  
                   I-Dat German-Nom can  
                   “I can (understand) German.”
- d. German: Mir gefallen diese Damen.  
                   I-Dat like these ladies-Nom  
                   “I like these ladies.”
- e. Turkish: Ban-a para lazim.  
                   I-Dat money-Nom need  
                   “I need money.”

11) 예문 (14)의 자료들은 Shibatani(1982)와 Klaiman(1981)에서 빌려 온 것이다.

f. Japanese: Taroo ni kane ga aru.  
 Dat money-Nom have  
 “Taro has money.”

g. Malayalam: nanage avalu ishta adalu.  
 I-Dat she liking became  
 “I liked her.”

위의 예문들은 비록 사건구조 내에 두 개의 참여자 논항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비행동주, 비의도성 주어가 사용되고 있고, 수동자(undergoer) 논항도 사건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도 입지 않는 논항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들은 호퍼와 톰슨(Hopper & Thompson 1980)의 타동성 변수에 따르면 모두 타동성이 매우 낮은 문장들이다.

범언어적으로 여격 주어구문에 쓰이는 술어들은 몇 가지 의미범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대충 다음과 같은 의미범주들로 갈라볼 수 있다.

- (15) 가. 심리적, 감정적 경험 (Mental and Emotional Experience)
- 나. 필요, 의무 (Need/Duty/Obligation)
- 다. 소유, 존재 (Possession/Existence)

각각의 의미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어의 예들을 들어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6) 심리 술어 구문<sup>12)</sup>: 가. 나에게서는 뱀이 무섭다.  
 나. 나에게서는 고향이 그림다.  
 필요구문: 다. 선생에게 학생이 필요하다.  
 소유, 존재 구문: 라.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다.  
 마. 할아버지에게 돈이 많다.

12) (16가,나)의 예문이 어색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장의 문법성에 대해서는 더 조심스런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정인상(1980), Chun & Zubin(1990), Cho(1988), Gerdt & Youn(1988) 등에서 모두 이러한 문장 유형들을 적격한 한국어 문장으로 논의하고 있고, 필자가 개인적으로 문의한 많은 사람들도 가능한 문장으로 동의하였다. 또한 ‘-에게’라는 여격에 주제가 이루어져서 ‘-는’이 연결된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는 훨씬 더

그런데 심리 술어 구문과 필요, 소유, 존재 구문은 통사행태상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16 가, 나)의 심리 술어 구문에서는 3인칭 주어와 현재 시제 문장에서 사용될 수 없는데 비해, (16 다, 라, 마)의 필요, 소유, 존재 구문에서는 이러한 주어의 인칭 제약이 없다. 주어의 인칭 제약이 있고 없음에 따라 심리 술어 여격 구문과 필요, 소유, 존재 여격 구문을 구분해서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구분없이 여격 명사구의 통사적 지위를 논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심리 술어 구문에 나타나는 여격 주어의 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겠다.

예문 (16)의 여격 주어는 또한 주격 표지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16')와 같은 소위 이중 주격 문장을 형성할 수 있다.<sup>13)</sup>

- (16) 가. 내가 뱀이 무섭다.  
       나. 내가 고향이 그림다.  
       다. 선생이 학생이 필요하다.  
       라. 할아버지가 아들이 있다.  
       마.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우리는 (16)과 (16')에 예를 든 문장들을 비전형적 타동문 구성이긴 하지

---

자연스러운 것 같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예문들을 일단 가능한 유형이라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어떤 문장들의 문법성은 문법적인 문장, 비문법적인 문장의 두가치로만 규제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정도의 차이로서 적절성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장의 문법성의 논의에서 ‘정도성’의 개념에 대하여는 권재일(1988)을 참조할 것.

- 13)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NP1-에게’와 ‘NP1-은/는’을 대조하여, ‘(가) 나에게 뱀이 무섭다 vs. (나) 나는 뱀이 무섭다’를 비교하였다. (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선행 연구자들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가)에서 (나)가 유도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서정수(1971), 임흥빈(1972))과 (가)와 (나)가 별개의 문장이라고 보는 입장(임동훈(1997), 유현경(1998)), 그리고 (가)와 (나)에서 NP2만이 주어라고 보는 입장(이남순(1985) 등이 있다. 또한 유동석(1998)에서는 (가)와 (나)는 원인격 구성과 대격 구성에 대응된다고 보고 (나)의 명사구는 ‘주어-보어’로 볼 수 있으나, (가)의 경우 주어는 NP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진화(2003)는 한국어에 여격 주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주격중출 구문이 기본 구문이고 여격 주어구문은 유표적인 해석을 위한 변형구문이라고 하였다.

만, 여전히 일종의 타동문 구조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위 문장에 사용된 심리 술어들이 자동사와는 달리 모두 두 개의 명사구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술어들이기 때문이다.<sup>14)</sup> ‘여격 주어 구문’이라는 술어가 시사하듯이 우리는 (16)에서 여격 표지된 명사구 논항이 문장의 통사적 주어라고 가정하는데, 그 통사적 근거에 대해서는 밑에서 논의할 것이다. 또한 (16')의 문장들에서도 두 개의 주격 표지 명사구들이 나타나지만 우리의 가정은 그 중 하나만이 주어이고 나머지는 비전형적 목적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어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전형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가장 전형적인 주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유형론적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문법관계이다.<sup>15)</sup>

(17) 가. 형태론적 특성: 주격 표지를 갖는다.

나. 의미론적 특성: 동작주(agent)가 주어자리에 온다<sup>16)</sup>

다. 통사론적 특성: 주체 존재 일치 현상, 재귀사 호응 현상, 접속문 등 일 주어 생략 현상, 관계절 형성 기능성과 같은 일련의 통사적 절차에 의해 주어로 판명되어야 한다.

라. 유형론적 특성: 일반적으로 문두에 위치한다든가, 관계절 형성 절차에서 다른 성분에 비해 제약이 없다든가 하는 등의 범언어적 주어의 속성을 보인다.

14) 문장의 타동성을 ‘전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예로 Hopper & Thompson(1980)과 연재훈(1997)을 들 수 있다. 전형적인 타동문은 2개 이상의 참여자 논항을 가질 것, 주어는 의도성을 가질 것, 목적어는 사건구조에서 완전히 영향 입을 것 등 10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5) Keenan(1976:312-323)에서는 범언어적 연구를 기반으로 추출된 주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특성(syntactic properties)들을 제시하고 있고, 정인상(1980:11-15)도 Keenan(1976)의 논의를 요약하여, ‘주어는 일반적으로 재귀대명사를 지배하고, 서술어와의 호응(verb agreement)을 지배하고, 관계화 될 수 있고, 수량사이동을 수행한다’는 등의 11가지 구체적인 통사현상들을 소개하고 있다.

16) 물론 동작주가 아닌 주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형용사문이나 존재사 구문, 지정사 구문 등에서 주어의 의미역할은 ‘동작주’가 아니고, 우리의 여격 주어구문의 주어도 동작주는 아니다. 그러나 A 명사구와 P 명사구를 포함하는 타동문 구성에서 전형적인 주어의

여격 주어는 주격 주어에 비해 형태론적 특성면에서 덜 전형적이고, 의미 역할도 행동주가 아닌 경험주이기 때문에 비전형적이다. 그러나 다음에 보일 통사적 특성이란 면에서는 문장의 통사적 주어로서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그 반면 주격표지를 갖고 있는 두번째 명사구는 전형적인 주어가 주격을 취한다는 형태론적 특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주어가 갖고 있어야 할 속성들을 갖고 있지 않다.

‘주어’, ‘목적어’와 같은 문법관계는 형태론적 격표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사적 기준에 의해서 판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sup>17)</sup> 물론 형태론적 표지와 문법관계 사이에는 많은 경우에 대응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비전형적인 격표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항상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주어’라는 문법관계는 주체 존재 일치 현상, 재귀사 호응 현상, 접속문에서의 동일 주어 생략 현상이나 관계절 형성 양상과 같은 통사적 절차에 의해 판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사론적인 측면에서의 주어 논의에 있어서도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통사 현상들을 바탕으로 하여 주어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18)</sup>

‘목적어’라는 문법관계를 통사론적으로 정립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목적어’를 판명하는 기준으로 현재 범언어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통사적 절차는 피동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피동화 절차가 목적어를 판명하는 데 ‘리트머스 시험’이 될 수 있지만,

---

의미역할은 동작주인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뜻이다.

- 17) 정인상(1980:3)은 “통사론적 개념으로서의 주어에 대한 논의는 형태론적이거나 의미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주어의 정립에 대한 기준은 통사론적인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명사구의 형태(form)에만 의존하여 주어라는 문법범주(grammatical category)를 정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18) 정인상(1980)에서는 재귀화, 주어존대화, 수량사후치(quantifier floating)와 관련된 통사 현상을 중심으로 주어를 정립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연재훈(Yeon, Jaehoon 2003)에서는 주어존대 일치현상, 재귀사 호응현상, 접속문에서의 동일 주어 생략 현상 등을 주어 정립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어에서는 모든 목적어가 피동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또 관계화 절차도 주어, 목적어, 간접목적어자리에서 모두 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목적어와 사격 보어를 분명히 가려낼 만한 통사적 기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격 주어 구문에 나타나는 주격 표지된 두 번째 P 명사구는 비록 형태론적 표지는 주격이지만, 통사적 주어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여격 표지된 A 명사구가 통사적 주어의 속성을 가지는 논항이다.

먼저 A 명사구의 주어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사적 절차 중에서 존칭 접미사 ‘-(으)시’와의 일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잘 알려진 것처럼, 존칭 접미사 ‘-(으)시’는 존칭 주어와만 일치 현상을 보인다.<sup>19)</sup> 존칭 주어 존대법 현상을 염두에 두고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 (18) 가. 나-에게/는 할아버지-가 제일 무섭-(\*)으시)-다.  
       나. 할아버지-에게/가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사-다.  
       다. 나-에게/가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필요하-(\*)시)-다.

여격 주어 구문 (18)에서 주어 높임의 접미사 ‘-(으)시’와의 일치 현상을 통제하는 것은 여격 표지된 첫 번째 명사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19) 국어 경어법 체계를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주어 존대화는 존칭체언이 화자와의 관계에서만 존대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자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서 <+존대>의 자질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존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존대화 절차가 ‘문장 내부의 NP’, ‘화자’, ‘청자’ 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이익섭 1974), 국어 존대화 절차는 다분히 화용론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어디까지나 존칭체언이 서술어에 대하여 주어로서의 문법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국한되고 그 외의 문법관계로 사용된 존칭체언에 대하여는 주어존대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국어의 주어존대화를 일종의 주어-술어 일치 현상으로서의 통사적 절차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0) ‘-(으)시’ 일치 현상에 대해 조금 다른 해석도 있다. 박석준(2002)은 여격어를 존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 문장은 복문 구조를 가진 것으로, ‘-사’가 존대하는 대상은 상위문의 주어인데, 상위문의 주어와 여격어가 공지시되어 상위문의 주어가 공범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표면상 ‘-사’가 여격어를 존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와 유사한 견해는 유동석(1995)에도 나타나는데, 그는 여격 명사구가 기저 생성된 주제이고 주어 위치에는

두번째 증거는 재귀사 호응 현상이다.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는 재귀사가 항상 선행하는 주어 명사구와 호응한다.

- (19) 가. 영수-에게(는) 순이-가 자기\*j 딸보다 더 좋(은 것 같)았다.  
나. 영수-에게(는) 순이-가 자기\*j(-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19)에서 재귀사 ‘자기’는 여격 표지된 첫 번째 명사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sup>21)</sup>. 즉 두 번째 명사구는 재귀화를 유발하는 힘이 없으며, 이것은 곧 두 번째 명사구가 주어로서의 문법관계를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인상(1980:46)의 다음 예문에 대한 설명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20) 영화는 철수가 자기\*<sub>i</sub> 아버지보다도 더 좋았다.  
(그리웠다, 무서웠다, ....)

여기서 NP1과 NP2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 대등한 NP이고 재귀대명사 ‘자기’는 제3의 NP에 얹혀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의 ‘자기’는 NP1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지시하고 NP2에 해당하는 ‘철수’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일본어의 예문 (20')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 (20') Yamada ni wa Taroo ga zibun no ootoo yori yoku waku  
Dat Top Nom self of brother than well understand  
“(Lit) Yamadai unni wa Tarooderstands Taroj better than self's/\*self's brother.”

이로써 우리는 첫 번째 오는 여격 표지 명사구가 주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

공범주 명사구가 생성된다고 하였다.

- 21) 문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유현경(1998:65)은 주체 존대의 ‘-사’와 호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심리형용사와 소유형용사의 ‘NP에게’가 주어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와의 결속 관계를 보면 심리형용사의 ‘NP에게’는 ‘자기’를 결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예: 그에게 자기 돈이 많다, \*그에게 자기 동생이 두려웠다 보다). 그러나 정인상(1980)에서는 ‘NP에게’가 아닌 ‘NP는’으로 나타나는 심리형용사의 경험주는 재귀사 ‘자기’를 결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예: ㄱ. 철수는 자기 가 자란 고향이 그리웠다. ㄴ. 철수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이 좋았다).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격 표지 명사구는 접속문 구성에서 동일 명사구 삭제 현상에 의해 생략될 수 있는데, 이러한 통사 절차에 의해 생략되는 성분은 문장의 주어인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21) [<sub>t<sub>i</sub></sub> 돈이 많아서] 영수-에게 친구가 많다.

대격 언어에서는 접속문을 구성할 때 문장의 축(pivot) 역할을 하는 것이 주어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는 성분이 주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문장 (21)에서 생략 흔적에 호응하는 명사구 ‘영수’가 주어라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히 소개한 여격 명사구의 통사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몇몇 선행 연구들(Chun & Zubin 1990, Cho 1988, Gerdts & Youn 1988)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다음에 인용하는 게르츠와 윤(Gerdts and Youn 1988: 157)의 예문도 여격 명사구의 통사적 주어 속성을 효과적으로 예시해주는 예문이라고 할 수 있다.

(22) PRO(<sub>i</sub>, \*<sub>j</sub>) 미국 시민이면서도, 아버지-에게 통역관이 자신(<sub>i</sub>, \*<sub>j</sub>)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사다.

(22)에서 여격 명사구 ‘아버지’는 존칭 접미사 ‘-시’와 일치하고, 채귀사 ‘자신’과 호응하고, ‘-면서도’ 접속문의 PRO 주어와 공지시 관계에 있는 통사적 주어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사적 기준은 관계절 형성 양상이다. 콤리(Comrie 1981, 1989)는 키난과 콤리(Keenan & Comrie 1977)의 명사구 위계를 발전시켜 관계절 형성 절차에 있어서 문법관계 위계를 설정하였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어떤 언어에 관계절 형성 절차가 존재하면, 예외 없이 주어는 관계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직접목적어가 관계화 될 수 있으면, 주어도 관계화 될 수 있다. 또한 간접목적어가 관계화 될 수 있으면, 직접목적어와 주어도 관계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소에 입각하면, 한국어에서 어떤 명사구가 주어라면, 자연스럽게 관계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23) 가. 개가 무서운 나  
       가' ?내가 무서운 개  
       나. 고향이 그리운 나  
       나' ?내가 그리운 고향

(23 가, 나)가 자연스러운 반면, (23 가', 나')는 부자연스럽다는 사실은, 첫 번째 명사구인 '나'가 전체 문장의 주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자 한다.<sup>22)</sup> 이상과 같은 몇 가지 통사 절차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여격 표지 명사구가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형론적으로도 뒷받침을 얻을 수 있는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여러 나라 말의 여격 주어 구문을 논의함에 있어서, 여격 표지 명사구의 문법관계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앤드류(Andrew 1985:101, 107-8)는 위와 비슷한 통사적 절차에 토대를 두고 여격 표지 명사구가 문장의 주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어 판별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접속문 구성에서의 동일 명사구 생략 현상인데, 팔머(Palmer 1994: 43)에서 따온 아이슬랜드 말의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24) Þeim        líkar        maturinn    og        borða        mikið  
       they+Dat   like+3SG   the food    and    eat+3PL   much  
       “They like the food and eat a lot.”

예문 (24)의 후행절에서는 ‘eat’의 주어 ‘they’가 생략되어 있는데, 선행절에서의 동일 지시 명사구는 여격 표지된 명사구이다. 따라서 여격 표지된 명

22) 두 번째 명사구 ‘개’나 ‘고향’이 잘 관계화 되지 않는 사실은, 한국어에서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성분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관계화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어 볼 때, 이 명사구들이 목적어도 아닌 제3의 사격 보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하나의 통사론적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사구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sup>23)</sup>

또 드라비디아 제어(Dravidian languages)를 비롯한 남아시아 언어에는 소위 여격 주어가 소유 구문이나 심리 술어 구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문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Sridhar(1976)는 드라비디아어의 하나인 칸나다(Kannada)어의 ‘여격-주격 구성’에 나타나는 여격 명사구를, 우리와 비슷한 통사적 기준에 토대를 두고 문장의 주어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심리 술어 구문에서 여격 표지 명사구가 비록 형태론적으로는 여격 표지를 갖고 있지만 통사적으로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전형적인 주어는 보통 주격 표지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여격 주어는 하나의 비전형적 격표지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격표지와 문법관계 사이의 불일치 현상은 원인격 언어에서도 관찰된다. 많은 학자들은 원인격 언어에서 S와 P가 절대격이라는 동일한 격표지를 취하기 때문에 이 둘을 문장의 주어라고 주장해 왔다. 그렇지만, 원인격 언어의 통사적 행태를 고찰해 보면, 지르발(Dyirbal)과 같이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Comrie 1989: Ch 5), 대부분의 원인격 언어에서 S와 P가 동일한 격표지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통사적인 행태는 서로 같지 않아서 이 둘을 주어로

---

23) 우리가 아이슬랜드 말에서 여격 표지 명사구를 주어라고 주장하는 데는 또 다른 증거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언어에서 어순이 문법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슬랜드 말에서는 주어가 문장의 첫 번째 위치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격 표지 명사구가 주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Van Valin 1991:147). 또 다른 증거는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주어-동사의 수의 일치 현상이 여격 표지 명사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사실이다.

- (1) Mer        líkar        Þeir  
       I+Dat    like+Sg    they(Masc+Pl+Nom)  
       “I like them.”

위의 예문을 관찰해 보면, 동사의 수범주는 단수인데, 주격 표지된 명사구의 수범주는 복수, 그리고 여격 표지된 명사구의 수범주는 단수이다. 그러므로 동사의 수 범주와 일치하는 주어 명사구는 여격 표지 명사구라는 주장이다(Palmer 1994: 41).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S와 A가 비록 격표지는 서로 다르지만 통사적 행태에는 동일한 주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격과 주격이 항상 문장의 주어를 표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장의 통사적 주어는 언어에 따라 여러 가지 격표지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격표지와 문법관계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격이나 절대격이 아닌 격표지를 갖는 주어도 있을 수 있고, 주어가 아닌 문장 성분이 주격이나 절대격으로 표시될 수 있다.

#### 4. 심리 술어 구문에 나타나는 여격 주어의 의미적 특성

이제 심리 술어가 포함된 여격 주어 구문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심리 형용사를 포함한 여격 주어 구문과 심리 동사를 포함한 타동문의 의미 관계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우선 위에서 예를 들어 보인 심리 술어 구문에 나타나는 여격 주어의 예들을 다음에 다시 들어 보이겠다.

- (25) 가. 나에게는 뱀이 무섭다.  
나. 나에게는 고향이 그림다.

(25)에 사용된 심리 형용사들은 전형적인 타동사 구문의 형태인 주격-대격 구조로는 쓰이지 못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6) 가. \*내가 뱀을 무섭다.  
나. \*내가 고향을 그림다.

(26)에서처럼 심리 형용사 구문이 주격-대격 명사구를 가지면 문법적으로 비문이 된다. 그러나 심리 형용사에 조동사 ‘-어 하다’가 결합되어 심리 타동사가 되면 전형적 타동문 구성에서 볼 수 있는 주격-대격 명사구 구성을 갖

게 된다. 우리는 이 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내적(주관적) 심리의 외재화’(externalization of internal feeling)라고 보는데, 비슷한 의미 분석을 김세중(1994)에서도 볼 수 있다.

- (27) 가. 내가 뱀을 무서워한다.  
나. 내가 고향을 그리워한다.

또 이익섭(1978:68-69)에서는 다음 예문 (27')에서 보듯, “‘에게’ 앞의 NP가 1인칭일 때 형용사문에는 회상법의 선어말어미 ‘더’가 쓰이나 타동문에는 못 쓰인다”고 하고

- (27') 가. 나는(나에게는) 호랑이가 더 무섭더라.  
나. \*나는 호랑이를 더 무서워하더라.  
다. \*철수는(철수에게는) 호랑이가 더 무섭더라.  
라. 철수는 호랑이를 더 무서워하더라.

그 이유는 “‘무섭더라’는 내적인 경험이어서 그것이 내 것일 때에만 관찰(경험)되는 반면, ‘무서워하다’는 외적인 것이어서 남의 것이어야 관찰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심리 타동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주어는 심리 형용사 구문에 나오는 주어에 비해 ‘의도성’(volitionality)이 더 높다는 의미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밑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주관적 감정을 가리키는 심리 형용사에 ‘주관적 심리의 외재화’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결합되면 심리 타동사가 만들어지는데 다음 목록은 그 몇가지 대표적 예이다.<sup>24)</sup>

---

24) 심리 형용사 및 심리 타동사의 목록은 김세중(1994)을, 국어 심리 동사 구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홍수(1989)를 참고할 수 있다.

(28) 심리 형용사	심리 타동사
부럽다	부러워하다
좋다	좋아하다
싫다	싫어하다
밉다	미워하다

이제 심리 형용사 구문과 심리 타동사 구문 사이의 의미차이에 대해서 살펴 보자. 간단히 말하자면, 심리 형용사 구문은 사건을 주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는 비의도적인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심리 타동사 구문은 심리 형용사 구문에 비해 주어의 의도성이 개입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우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첫째, ‘일부러/의도적으로’와 같은 의도성 부사들은 의도성이 없는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는 사용될 수 없고, 의도성이 개입된 심리 타동사 구문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29) 가. 나에게 \*일부러/\*의도적으로 뱀이 무섭다.

나. 내가 일부러/의도적으로 뱀을 무서워한다.

(30) 가. 나에게 \*일부러/\*의도적으로 고향이 그리다.

나. 내가 일부러/의도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한다.

(29가)와 (30가)에 있는 심리 형용사 구문은 의도성을 가진 주어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자연적인 심리 상태나 비의도적 사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성 부사와 함께 사용될 수 없고, (나)에 있는 심리 타동사 구문은 의도성을 가진 주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의도성 부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심리 타동사 구문의 주어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고의적으로 표현하거나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격-주격 구성에 나타나는 여격 주어와 주격-대격 구성에 나타나는 주격 주어의 차이를 비의도성 대 의도성이라는 의미적 대립으로 구별하고자 한다.

여격 주어가 전형적 주격 주어에 비해 의도성의 정도가 약한 것은 범언어

적으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위에서 언급했던 칸나다어(Kannada)에서도 주격 주어는 의도적 행위를 표시하는 데 반해, 여격 주어는 의도성이 결여된 상태를 표시한다. 다음 예문이 이러한 대조를 보여준다(Givón 1984:145).

- (31) a. avanu          jvara          barisikonda(Nom subject)  
           he-Nom      fever          cause-come-Past  
           “He got the fever”(intentionally, by doing something)
- b. avani-ge        jvara          bantu(Dat subject)  
           he-Dat      fever          came  
           “He got a fever”(unintentionally, got hit by it)
- c. avanu          i            suddi      tilidukondanu(Nom subject)  
           he-Nom      this      news      learned  
           “He learned this news”(actively, intentionally)
- d. avani-ge        i            suddi      tiliyitu(Dat subject)  
           he-Dat      this      news      became-known  
           “He came to know this news.”(unintentionally, it came to him)

예문 (31 a, c)에서 보는 것처럼 주격 주어는 의도적/고의적 행위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31 b, d)에서 보는 것처럼 여격 주어는 주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난 사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 형용사 구문과 심리 타동사 구문 사이의 의도성의 차이는 위에서 말한 의도성 부사와의 공기 제약 현상 이외에도 몇 가지 통사행태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다음 예문 (32)에서 보는 것처럼, 미래 의도성 어미 ‘-(으)ㄹ 거야’는 심리 타동사 구문에서는 사용이 자연스러운 반면,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사용되면 어색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두 구문 사이의 의도성의 정도 차이를 표시해 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32) 가. 그러면, 내가 엄마를 싫어할거야.

나. \*그러면, 나에게 엄마가 싫을거야.

(32나)가 어색한 이유도 심리 형용사 구문은 비의도적, 자연발생적 과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의도성 어미가 이 경우에는 함께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이러한 구문들이 명령형이나 청유형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된다. 심리 형용사 구문은 명령문의 형태로 쓰일 수 없는 반면에, 심리 타동사 구문은 명령문으로 쓰일 수 있다.

(33) 가. \*뱀이 무서워라.

가. 뱀을 무서워해라.

나. \*고향이 그리워라.

나. 고향을 그리워해라.

명령이란 것은 그 본질상, 듣는 이(또는 명령을 받는 이)가 의도적으로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언어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일반적으로 무정물이 아닌 사람이나 지능이 높은 동물에게만 행해지는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명령은 듣는 이의 의도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심리 형용사 구문에 사용된 술어가 명령문에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은 심리 형용사 구문이 의미론적으로 비의도성 사건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원인격 언어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즉 원인격 언어에서도 비의도성 능동재(A)를 표시하는 데 비원인격 표지인 여격이나 처격이 사용된다. 다음 예문들을 참고하라(Shibatani 1983:46).



- (34) Ladakhi: kho-e thug-gu-nis yot  
 he-Dat child-two(Abs) to be  
 “He has two children.”
- Tibetan: na-la khanpa yod  
 I-Loc house(Abs) be  
 “I have a house.”
- Avar: di-ye j-as j-ol'ula.  
 I-Dat f-girl(Abs) f-love(Gen)(Pres)  
 “I love the girl.”
- Georgian: sven sami svili gvqvs  
 we-Dat three children(Nom) be  
 “We have three children.”

예문 (34)는 원인격 언어에서 소유/존재 구문이나 심리 술어 구문의 주어  
 가 전형적 주어의 격표지인 원인격을 갖지 않고, 예외적으로 여격이나 처격을  
 가진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대격 언어와 원인격 언어에서 공통된 현  
 상으로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원인격 언어이든 대격 언어이든 의도성이 결여  
 된 비전형적 주어는 여격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는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의 주어 공기 제약을 살펴보자. 이들 문  
 장들은 직설법 현재 서술형에서 주어로 1인칭 ‘나’만을 요구하여, 2인칭이나  
 3인칭 등이 사용될 수 없고, 의문형 또는 과거형에서만 2인칭이나 3인칭 주  
 어가 사용될 수 있다.<sup>25)</sup>

25) (35)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지전  
 능한 서술자 관점의 소설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보통 입말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고 본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인상(1980:42)도 이 서술어들이 주어의 감정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단정을 나타내는 직설법 현재형에서, 화자를 가리키는 1인칭 이외의 명사가 주  
 어의 위치에 나타날 수 없다고 하여 우리의 판단과 일치한다.

(35) 가. ?\*영수에게/는 뱀이 무섭다.

나. ?\*영수에게/는 고향이 그림다.

이러한 제약은 기능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화자는 자기 자신의 내적/주관적 감정을 단언하거나, 상대방(2인칭)의 내적/주관적 감정에 대하여 물어 볼 수는 있지만, 제3자의 내적/주관적 감정을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35)와 같은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 증거나 적합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적당한 환경에서 제3자의 내적/주관적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거나, 화자가 제3자의 감정을 추측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면, 3인칭 주어는 심리 술어 구문에 사용될 수도 있다. 그 첫 번째 예로, 과거형에서는 경험자 주어가 화자 자신이 아닌 경우에도 이미 그 경험자 주어의 감정적 판단 내용은 과거 사실로서, 문장이 발화되는 시점에서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인칭 이외의 주어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의문형에서는 주어의 판정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로 하여금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인칭의 주어가 사용될 수 있다(정인상 1980:43).

(36) 가. 영수에게/는 뱀이 무서웠다(과거형).

나. 너에게/는 고향이 그림니(의문형)?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술어 ‘같다’에 심리 형용사 구문이 내포되면, 3인칭 주어가 쓰일 수 있다.

(37) 영수에게/가 고향이 그리운 것 같다.

‘-것 같다’는 내포된 전체 명제가 화자의 추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추측 표지(evidential marker)이다.

3인칭 주어가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조동사 ‘-어 하다’가 결합된 심리 타동사 구문이다. 제3자의 내적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지만, 제3자가 자기의 내적 감정을 밖으로 명시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화자에게 인지된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구문은 타동문의 전형적인 구성인 주격-대격 구조를 취하면서 3인칭을 주어로 내세우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가 앞에서 ‘내적/주관적 감정의 외재화’라는 의미 기능을 부여한 조동사 ‘-어 하다’가 이러한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8) 가. 영수가 뱀을 무서워한다.  
나. 영수가 고향을 그리워한다.

내적/주관적 감정의 외재화라는 기능은 타동성의 정도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 같다. 내적/주관적 감정을 표시하는 심리 형용사 구문은 호퍼와 톰슨(Hopper & Thompson 1980) 식의 타동성 기준으로 볼 때, 타동성이 낮은 구문임에 반하여, 내적/주관적 감정의 외재화 조동사 ‘-어 하다’가 결합된 심리 타동사 구문은 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문이다. 그리하여 타동성이 낮은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비대격 표지를 갖고 나타나던 목적어 ‘뱀’과 ‘고향’이 타동성이 높은 심리 타동사 구문에서는 전형적인 대격 표지를 갖는 목적어로 나타나고 있다.

타동성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격 주어가 나타나는 심리 형용사 구문은 타동성이 낮고, 심리 타동사 구문인 (38)은 타동성이 높다. 전형적인 타동문 구성에서는 목적어가 대격을 취하지만 타동성이 낮은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대격이 아닌 격표지로 나타날 수도 있다<sup>26)</sup>. 우리는 타동성이 낮은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주격으로 표지된 대상 명사구(theme)가 목적어이지만 타동성이 낮은 비전형적 목적어이기 때문에 대격이 아닌 주격으로 예외적으로 표시되었다고 가정하고자 한다<sup>27)</sup>. 심리 형용사 구문의 비전형적 주격 표지 목

26) 이러한 예는 러시아말이나 핀란드말에서 목적어가 타동성이 낮을 때, 생격(Genitive)이나, 부분격(Partitive)으로 표시되는 등의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다.

27) 정인상(1980:50-51, 62)도 ‘이들 감정형용사문(우리의 심리 형용사 구문)의 경우에는 주어가 여격어미 ‘-에게’를 연결하고, 목적어는 주격어미 ‘-이’를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우리와 같이 예외적인 주격목적어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정인상(1980:51)은 또 ‘이들 감정형용사들이 ‘-어 하다’ 형태의 동사를 파생시켜서 일반적인 격형태를 연결하는 방

적어는 타동성이 높은 심리 타동사 구문으로 교체되면서 전형적 대격 표지 목적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sup>28)</sup>. 물론 이러한 가정에는 무리한 점이 있고, 목적어라는 문법관계를 검증하는 통사적 절차인 ‘피동화’ 여부가 이 경우에는 적용될 수도 없어서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 줄 통사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문법 기술에서 전형(prototype)과 비전형이라는 개념, 그리고 정도성(degre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가정을 견지하기로 한다.

## 5. 비전형적 격표지 현상에 대한 유형론적 해석

우리는 지금까지 대격 언어와 원인격 언어의 격표지 유형과 전형적/ 비전형적 타동문 구성의 격표지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격표지 양상이 한 언어에서조차도 완전히 일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원인격 언어에 잘 알려진 비일관적/비전형적 격표지 현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격

---

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이들 감정 형용사들이 실현시키는 이질적인 격형태의 유형이 국어 일반적인 유형에 열세로 몰려서 전체적인 경향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해된다’고 하였다.

28) 목적어가 문장의 타동성의 정도에 따라 대격과 주격으로 교체되는 현상은 일본어에서도 발견되는 것 같다. 일본어에도 목적어가 주격 ‘-ga’로 표지되는 경우와 대격 ‘o’로 표지되는 다음과 같은 교체가 있다(Sugamoto 1982: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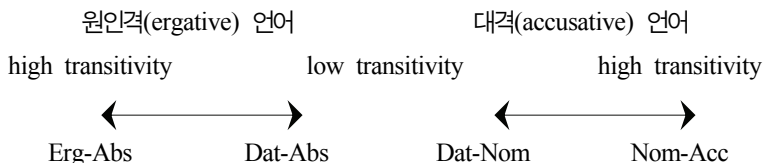
- (1) a. Watashi wa anata no kimochi ga waku.  
           I Top you of feeling Nom understand  
           “I understand your feeling.”  
       b. Watashi wa anata no kimochi o wakar-oo sita.  
           I Top you of feeling Acc understand-intent  
           “I tried to understand your feeling.”

(1a)에서 waku ‘understand’라는 동사는 주격 표지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데, (1b)에서 이 동사에 의도를 나타내는 조동사 ‘-(y)oo’가 첨가되면, 목적어 명사구는 대격 표지를 갖게 된다. 이러한 목적어의 격표지 교체 현상은 우리가 앞에서 가정한 대로 문장의 타동성, 그리고 주어 명사구의 의도성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에도 비록 제한적인 환경이나 조건에서이긴 하지만, 비일관적/비전형적 격표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떤 학자들은 대격 언어에서 목적어(P) 성분이 주격으로 표시되기도 하는 현상을 대격 언어의 원인격 언어적 특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Moravcsik 1978). 이러한 해석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P 성분과 S 성분을 주격이라는 표지로 동일하게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위 여격 주어 구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격표지 현상은 실제로 여러 나라 말에서 발견되는 양상인데, 우리는 이러한 비일관적 격표지 현상이 호퍼와 톰슨(Hopper & Thompson 1980) 식의 타동성 조건에서 볼 때, 통사-의미적으로 타동성이 낮은 구문의 경우에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대격 언어의 여격-주격 구성이나 원인격 언어의 여격(처격)-절대격 구성은 전형적 타동 구성보다는 덜 타동적인 중간자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문법 기술에 있어서, 전형성이라는 개념과 연속체로서의 정도성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간주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대격 언어와 원인격 언어에 나타나는 여격 주어 구문은 전형적 타동 구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동문 구성도 아닌 비전형적 타동문 구성으로서 타동성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낮은 타동성을 보여주는 구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주관적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술어나 필요, 소유/존재 등을 표시하는 술어가 사용되는 구문은 타동성이 낮기 때문에, 유형론적으로 전형적인 주격-대격, 원인격-절대격의 구성 대신에 여격 주어를 포함하는 비전형적 구성이 사용된다. 문장의 타동성이 증가하면 전형적인 대격 구성이나 원인격 구성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해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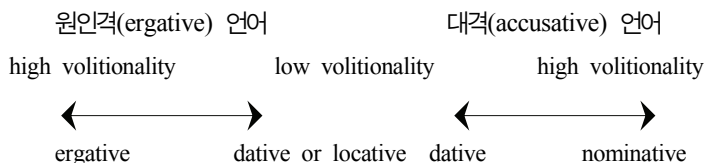
### 〈타동성의 정도〉



‘죽이다’, ‘때리다’, ‘부수다’ 등의 전형적 타동사가(특히 완료 시제로) 사용된 문장들은, 타동성이 가장 높은 구성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주격-대격이나 원인격-절대격의 전형적 타동문 구성의 양상을 보여 준다.

대격 언어에서도 비일관적 격표지 양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위에서 논의했는데, 국어 심리 형용사 구문이나 필요구문, 소유/존재구문 등에 나타나는 여격-주격 명사구 구성을 우리는 대격 언어에서의 비전형적 타동문 구성에 나타나는 예외적 격표지 양상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의 통사행태 및 의미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리는 첫 번째 나오는 여격 표지된 명사구를 몇 가지 통사적 시험을 토대로 해서, 문장의 통사적 주어라고 분석하였다. 심리 형용사 구문과 심리 타동사 구문의 주어 사이의 의미차이를 ‘의도성’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그리하여 심리 형용사 구문의 여격 표지된 주어는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심리 타동사 구문의 주격 표지된 주어는 의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원인격 언어에서도 의도성이 높은 (주어) 명사구는 원인격으로 표지되는 반면, 의도성이 낮은 (주어) 명사구는 여격(혹은 처격)으로 표지된다는 사실이 유형론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주어의 의도성 정도〉



원인격 언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같은 대격 언어에서도 의도성이 높은 주어는 주격으로, 의도성이 낮은 주어는 여격으로 표지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여격 주어가 주격과 교체되어 이중 주격 구성이 나타나는 심리 형용사 구문을 형성할 경우, 의도성이 낮은 주어가 여전히 주격으로 표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가설이 필요충분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격 언어에서 어떤 주어가 여격으로 표지되었다면, 그것은 의도성이 낮은 주어일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게 해 준다.

가능피동구문

중립동사 구문

상호 구문

주격중출 구문

심리동사구문

수어동사 구문

소유 구문

신체부위명사구문

처소교체구문

관계절

사동문

피동문

격표지 유형론

여격주어구문

소유주 상응 대격 중출 구문



## 4장

---

### 사동문의 유형론

#### 1. 머리말: 사동의 정의<sup>1)</sup>

사동(causative)이란 사역주(causer)가 피사역주(causee)로 하여금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하게 만드는 태(voice)의 일종이다. 따라서 사역주가 도입되는 사동 표현은 대응하는 비사동 표현보다 1개의 명사구 논항을 더 가지고 있다. 사동으로 표현되는 상황은 두 상황이 하나 되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동 상황(causative situation)은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개의 소상황(micro-situation)을 하나의 복합상황(macro-situation)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콤톨리(Comrie 1981:158)의 다음 설명을 음미해 보자.

“사동 상황은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개의 소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버스가 연착해서 내가 회의에 늦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 이 경우 버스가 늦은 것은 원인으로, 그래서 내가 회의에 늦은 것은 결과로 작용한 것이다. 이 두 개의 소상황이

---

1) 4장의 초고 일부는 연재훈(2007)에 발표된 바 있다. 4장의 내용은 연재훈(2007)을 수정·증보한 것이다.

결합하여 사동 상황이라는 하나의 복합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동 상황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방법을 사동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정의는 전형적인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사동법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 정의의 문제는 ‘사동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어외적 개념(extra-linguistic concept)이라는 데에 있다. 실제로 인간 언어에서 사동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동의 개념이 형태-통사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예를 들면, 동사에 형태적으로 표시되거나 사동 조동사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사동문의 특성을 살필 것이다.

## 2. 사동문의 유형

### 2.1. 형태-통사적 특성에 따라

사동문은 그 형태-통사적 특성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Comrie (1989), 권재일(1992) 등 참고).

- 가. 어휘적 사동법
- 나. 형태적 사동법
- 다. 통사적 사동법

어휘적 사동법은 형태적으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동사가 사동 표현을 수행하는 경우이고, 형태적 사동법은 파생적으로 사동 표현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통사적 사동법은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동사가 분리되어 실현되는 경우이다.

### 2.1.1. 어휘적 사동법

어휘적 사동은 사동의 의미가 동사의 의미 속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영어에서 동사 die에 대하여 kill로써 사동 표현이 실현되고, 러시아어에서 umeret'(die)에 대하여 ubit'(kill)로써 사동 표현이 실현되는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어휘적 사동법이라고 분류되기도 하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Sohn 1999:374).

(1) 가. 영수가 갔다.

나. 순이가 영수를 보냈다.

(2) 가. 영수가 일을 한다.

나. 순이가 영수에게 일을 시킨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비사동 표현 (가)를 사동화하여 (나)와 같은 사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어휘적 사동은 그 본질상 비생산적이다. 비사동동사와 사동동사 사이의 형태론적 관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문법규칙으로 환원될 수 없다.<sup>2)</sup> 오히려 사동의 의미는 동사에 내재되어 있는 어휘적 의미라고 간주하여 어휘부에서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 2.1.2. 형태적 사동법

전형적인 형태적 사동법은 범언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사동사는 비사동사와 형태론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론적 파생의 기제는 접사화이다.

---

2) 역사적으로 어휘적 사동은 형태적 사동에 소급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영어의 'kill'은 역사적으로 cwellan에서 왔는데, 이것은 cwelan 'die'와 형태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Kulikov 1998). 또 fell-fall, lay-lie 등도 현재는 어휘적 사동의 범주에 들지만 형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6) 가. 순이가 영수를 몰라였다.

나. 순이가 영수에게 책을 읽-하-었다.

한국어도 터어키어나 일본어처럼 생산적인 형태적 사동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터어키어나 일본어의 형태적 사동법은 아주 생산적인데 반해,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법은 생산적이지 않다. 사동접미사에 의한 사동법은 한국어에서 그 분포가 아주 제한적이다. 또 어떤 종류의 동사(형용사) 어간이 사동 접미사를 취할 수 있는지는 음운론적으로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동사들에는 사동 접미사가 첨가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도 음운, 통사, 의미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되지 않는다.<sup>3)</sup> 사동사의 파생 분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법은 어휘적 사동법과 형태적 사동법의 중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이 터어키어나 일본어의 형태적 사동과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사동사가 파생동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동사로서의 의미 이외에 특수한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는 일이 있다는 점이다. ‘먹이다’는 ‘먹다’에서 파생된 사동사이지만, ‘먹다’에 대한 사동의 뜻이 아니라 ‘사육하다’의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파생 사동사는 단순히 보통 타동사와 같은 통사적 행태를 보인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가. 영수가 생각을 돌렸다.

나. 순이가 이름을 속였다.

---

3) 사동 접미사가 첨가되지 못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자라다’ ‘나무라다’처럼 2음절 이상 되는 동사들이 많다. 또 ‘주다’, ‘가르치다’처럼 3항 술어는 사동 접미사를 첨가하여 파생 사동사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처럼 통사적 사동법을 통해 사동 표현을 실현시킨다.

(1) 가. 순이가 영수에게 철수를 나무라게 하였다.

나. 순이가 영수에게 철수를 수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돌리다’라는 동사는 자동사 ‘돌다’에 사동 접미사 ‘-라’가 첨가되어 만들어진 사동사이지만, (7가)와 같은 문장에서는 ‘--이 돌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고 ‘생각을 바꾸다’와 같은 타동사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나)의 ‘속이다’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많은 언어에서 사동사가 타동사의 행태를 보이거나 타동사가 사동사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흔하다. 또 사동 접미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대신 타동 접미사가 사동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Estonia)어에서는 -Ta가 타동 접미사인데 이것이 다음과 같이 사동의 뜻으로 해석된다(Wachowicz 1976:68).

- |     |                            |                            |
|-----|----------------------------|----------------------------|
| (8) | so-(eat):                  | soTa(feed),                |
|     | opi-(learn):               | opeTa-(teach),             |
|     | kustu-(extinguish, intr.): | kustuTa-(extinguish, tr.), |

### 2.1.3. 통사적 사동법

통사적 사동법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가 분리되어 나타난다. 영어에서는 통사적 사동법을 실현하는 (조)동사로 ‘make, cause, have’와 같은 동사를 사용한다.

- (9) a. I made him write a letter.  
 b. I caused him to write a letter.  
 c. I had the letter written by him.

불어에서는 ‘faire’ 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 (10) J'ai                      fait                      courir                      Paul.  
 I've                      made                      run                      Paul  
 “I've made Paul run.”

- (11) Je                ferai                lire                le livre                a Nicole.  
 I                will-make                read                the book                IO  
 “I will make Nicole read the book.”

불어의 사동 조동사 ‘faire’는 독립된 하나의 동사이지만 어떤 면에서 내포문의 동사와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어의 사동문 구성을 ‘유사-형태적’(quasi-morphological) 사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불어의 faire 사동은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중간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타이말에서는 사동 조동사 ‘tham’에 의해서 사동법이 실현된다 (Moreno 1985:171).

- (12) Saakhaa                tham                kracok                taeaeak  
                                  Caus                mirror                break  
 “Saka caused the mirror to break.”

한국어에서는 내포 어미 ‘-게’에 의한 내포문이 상위문 동사 ‘하다’에 내포된 구성으로 통사적 사동법이 실현된다.<sup>4)</sup>

- (13) 가. 영수가 갔다.  
       나. 순이가 영수를 가게 하였다.  
  
 (14) 가. 영수가 약을 먹었다.  
       나. 의사가 영수에게 약을 먹-게 하였다.

통사적 사동법은 형태적 사동법과는 달리 분포에 제약이 없다. 형태적 사동법으로 실현된 사동 표현은 거의 예외 없이 통사적 사동법으로 실현될 수

4) 한국어와 다른 언어들의 통사적 파생법은 동사의 융합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송재정(Song 1996)은 여러 유형의 사동태를 AND type, PURP(ose) type, COMPACT type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Song(1996:35-67) 참고. 이에 대한 논의는 Moore & Polinsky(1998:235ff) 참고.

있지만, 그 역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2.1.4. 중복사동

이제 중복 사동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일반적으로는 사동 접미사나 사동 형태소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소위 2차 사동 파생법은 흔하지 않은데 몇몇 언어에서 이러한 중복 사동형이 발견된다. 중복 사동을 허용하는 언어들도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Wachowicz 1976:69):

**I 유형: 똑같은 접사가 두 번 사용되는 경우:**

- (15) Quechua: huanu-(die), huanu-chi(kill), huanu-chi-chi(make make die, make kill).

또 다른 예는 카슈미르어(Kashmiri)인데, 여기서도 중복 사동을 만들기 위해 똑같은 접미사가 사용된다.

(16)	Non-Caus	Caus1	Caus2
	pakun	pakinavun	pakinavnavun
	‘walk(intr.)’	‘walk(tran.)’	‘make s.b. walk(tran.)’
	hechun	hechinavun	hechinavnavun
	‘learn(intr.)’	‘learn(tran.)’	‘make s.b. learn(tran.)’

**II 유형:** 중복 시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접미사가 사용되는 경우:

- |                               |                     |                          |                       |
|-------------------------------|---------------------|--------------------------|-----------------------|
| (17)                          | Turkish: ‘ol-’(die) | ‘ol-dur’(kill, make die) | ‘ol-dur-t’(make kill) |
| Mehmet                        | Hasan-i             | Ali-ye                   | ol-dur-t-tu.          |
|                               | Acc                 | Dat                      | die-Caus-Caus-Past    |
| “Mehmet made Ali kill Hasan.” |                     |                          |                       |



### III 유형: 중복 사동이 특수한 접미사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경우:

- (18) 부리아트-몽골어(Buriat-Mongolian)에서는 다음과 같은 파생은 허용한다.  
zogso-(stop intr.), zogs-oo(stop tr.), zogs-oo-lgo(make stop).

그러나, 사동 접미사 ‘-uul-’ 다음에는 다른 사동 접미사가 사용될 수 없다.  
bajarla-(to be happy), bajarl-uul(make happy), 따라서 ‘cause to make happy’라는 의미는 반드시 통사적 방법에 의해 실현된다.

한국어에서 중복 사동은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결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 형태적으로 파생된 사동시는 통사적 방법으로 한 번 더 사동화 될 수 있다. 그 역은 불가능하다.

- |           |        |           |
|-----------|--------|-----------|
| (19) 비사동사 | 파생 사동사 | 통사적 중복 사동 |
| 죽다        | 죽이다    | 죽이게 하다    |

터어키어의 중복 사동이 형태론적 중복 사동임에 비해서 한국어의 중복 사동은 통사적 방법에 의해 형성된 중복 사동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1.5.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차이

생성 의미론이 한창 유행하던 1960년대에, 맥콜리(McCawley 1968)와 같은 생성 의미론자들은 어휘적 사동 ‘kill’과 통사적 사동 ‘cause to die’의 기저구조가 아무 차이도 없고, 둘 다 ‘CAUSE to BECOME NOT ALIVE’의 공통된 기저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다.<sup>5)</sup> 그 중 재미있는 것은 부사 수식의 영역 문제에 관한 것이다.

다음 예문 (20)에서 보는 것처럼, ‘cause to die’는 시간 부사를 두 개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동사 ‘cause’를 수식하고 다른 하나는 동사 ‘die’를 수

---

5) 여기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체계적인 반론은 Wierzbicka(1975)를 참고할 수 있다.

식하고 있다.

(20) John caused Bill to die on Sunday by stabbing him on Saturday.

반면에 동사 ‘kill’은 하나의 시간 부사밖에 가질 수 없다. 따라서 (21a)는 영어에서 좋은 문장이지만 (21b)는 비문이다.

(21) a. John killed Bill on Saturday.

b. \*John killed Bill on Sunday by stabbing him on Saturday.

즉, 통사적 사동은, 어휘적 사동과는 달리, 두 사건이 한 장소에서 일어났다가거나(unity of place), 직접적/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생성 의미론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한국의 많은 언어학자들도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관계를 생성 의미론의 틀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의미적으로 동일하고 통사적으로도 동일한 기저구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일 기저설에 입각한 연구로 이정민(1973), 양인석(1974), 손호민(1978) 등이 있고, 서로 상이한 기저구조를 갖는다고 하는 견해는 송석중(1978) 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두 구조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가 되었다. 시바타니(Shibatani 1976:1-40)가 지적한 것처럼, ‘동일 기저 구조 가설’에는 여러 가지 반증들이 있기 때문에 기저 구조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2.2. 의미론적 차이에 따라: 직접 사동 대 간접 사동

사동 사건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사역주가 피사역주를 직접적으로 관여

---

6) 시바타니의 반증 논의들은 재귀화 현상, 주어 존대화 현상, 부사 수식의 영역 문제 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자세한 것은 Shibatani(1976) 참고

하느냐 간접적으로 관여하느냐에 따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나눌 수 있다.<sup>7)</sup>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간의 인지/인식적 거리 차이는 여러 언어의 형태 구조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고 있다. 직접 사동이란 사역주가 피사역주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므로 그 인식 상의 거리가 간접 사동에 비해 짧다고 할 수 있다. 간접 사동에서는 사역주가 피사역주의 행위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피사역주의 독립성이 직접 사동의 그것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이다. 즉 직접 사동은 인지적 거리가 짧고, 간접 사동은 인지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 언어에 짧은 사동형과 긴 사동형이 공존할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짧은 사동형은 직접 사동을, 그리고 긴 사동형은 간접 사동을 표현한다는 범언어적 보편소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Haiman 1983, H. Lee 1985, Knott 1988 등 참고). 2장 2절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편의상 다시 한 번 반복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어인 Cebuano에서는 어휘적(synthetic) 사동형은 직접 사동을 표시하고, 접두사 ‘-pa’와 함께 나타나는 분석적(analytic) 사동형은 간접 사동을 표시한다(Haiman 1983:785).

힌디어(Hindi)에서는 직접 사동을 표시하는 데 접미사 -aa를 사용하고, 간접 사동을 표시하는 데는 접미사 ‘-vaa’를 사용하여, 어근 ‘parh-’(study)에서 파생된 두 가지 사동형 ‘parh-aa’(teach)와 ‘parh-vaa’(have someone study)이 각각 직접 사동의 의미와 간접 사동의 의미를 표현한다(Saksena 1980). 다음 예문을 보자.

---

7) Direct causative와 indirect causative라는 술어 이외에 manipulative vs. directive causation, contact vs. distant, immediate vs. mediated causation 등의 술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 (22) a. mai-nee                      larkee-koo                      parh-aa-yaa.  
           I-Agt                      boy-Dat/Acc                      study-Dir.Caus-Past  
           “I taught the boy.”
- b. mai-nee                      larke-koo                      parh-vaa-yaa.  
           I-Agt                      boy-Dat/Acc                      study-Indir.Caus-Past  
           “I had the boy study.”

(22a)는 직접 사동을 나타내고 (22b)는 간접 사동을 나타낸다.

또 아무르강 상류와 사할린 지역에서 사용되는 Nivkh말에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동문이 관찰된다(Knott 1988).

- (23) a. If p'az-d'  
           he undress-Finite  
           “He undressed (intr.)”
- b. 직접 사동(-u- suffix plus consonant change in root)  
           emek                      p'o:la                      faz-u-d'  
           mother                      her child                      undress-Caus-Finite  
           “The mother undressed her child.”
- c. 간접 사동(-gu- suffix)  
           emek                      p'o:la-ax                      p'az-gu-d'  
           mother                      her child-Cause                      undress-Caus-Finite  
           “The mother made her child undress.”

Knott(1988)에 따르면, (23b)와 (23c)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직접 사동형 접미사는 생산적이지 못한 반면, 간접 사동형 접미사는 생산적인데, 이것은 우리말의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에 각각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두 유형은 통사적 행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바, 직접 사동형의 피사역주(causee)는 일반적 타동 구문의 직접목적어와 같이 아무런 형태적 표지도 갖지 않는 반면, 간접 사동형의 피사역주는 유정명사일 경우 예문 (23c)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한 격표지를 받는다. 셋째, 직접 사동 동사

는 일반 타동사와 별 차이가 없고 논항의 의미 기능도 사역주가 전형적 타동사의 행동주 역할과 같다는 점에서 타동사와 큰 차이가 없다.

네팔에서 사용되고 있는 티베토-버마어인 Newari에서도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규칙적으로 구별하고 있다(DeLancey 1984). 이 언어에서 직접 사동은 사동 접미사 ‘-k<sup>h</sup>al’의 첨가로 표시하고, 간접 사동은 접미사 ‘-k<sup>h</sup>e’<sup>8)</sup>에 조동사 ‘yat-’(do)를 결합시킨 일종의 분석적 형태로 표시한다.

- (24) a. māca           cahil-o  
          child           walk-Perf  
          “The child walked.”
- b. misa-no           wo māca-yato   cahi-k<sup>h</sup>al-o  
          woman-Erg   the child-Dat   walk-Caus-Perf  
          “A/the woman walked the child.”
- c. misa-no           wo māca-yato   cahi-k<sup>h</sup>e yat-o  
          woman-Erg   the child-Dat   walk-Caus do-Perf  
          “A/the woman made the child walk.”

(24b)와 (24c)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걷는 행위에 있어서 아이의 의도(volition)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들란시(DeLancey, 1984:194)에 의하면, (24b)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길로 잡아끌어 걸리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고, (24c)에서는 여자가 아이에게 걸으라고 명령/권유해서 아이가 그 말에 따라 행동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의미상의 함축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22)-(24)에 제시한 예들에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차이는 사역주와 피사역주의 행위 사이의 인지적 거리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 거리상의 차이가 언어상으로는 짧은 사동형과 긴 사동형이라는 형태 길이상의 차이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8) 이 접미사도 사동 접미사 ‘-k<sup>h</sup>al’과 기원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한다.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구별해 주는 사동 접미사가 따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언어에서는 피사역주에 첨가되는 격표지의 차이가 종종 이러한 의미차이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대격이나 여격이 직접 사동을, 사격이 간접 사동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문들이 이것을 보여 준다.

- (25) Bolivian Quechua:
- |    |                               |           |          |                 |
|----|-------------------------------|-----------|----------|-----------------|
| a. | nuqa                          | Fan-ta    | rumi-ta  | apa-ci-ni.      |
|    | I                             | Juan-Acc  | rock-Acc | carry-Caus-1sg. |
|    | “I made Juan carry the rock.” |           |          |                 |
| b. | nuqa                          | Fan-wan   | rumi-ta  | apa-ci-ni.      |
|    | I                             | Juan-Inst | rock-Acc | carry-Caus-1sg. |
|    | “I had Juan carry the rock.”  |           |          |                 |

- (26) Kannada<sup>9)</sup>:
- |    |                                  |          |             |               |
|----|----------------------------------|----------|-------------|---------------|
| a. | Avanu                            | nanage   | bisketannu  | tinnisidanu.  |
|    | he-Nom                           | me-Dat   | biscuit-Acc | eat-Caus-Past |
|    | “He made me eat a biscuit.”      |          |             |               |
| b. | Avanu                            | nanninda | bisketannu  | tinnisidanu.  |
|    | he-Nom                           | me-Inst  | biscuit-Acc | eat-Caus-Past |
|    | “He caused me to eat a biscuit.” |          |             |               |

- (27) Hungarian:
- |    |   |               |
|----|---|---------------|
| a. | Kühgüttettem                                    | a gyerek-et.  |
|    | I-caused-to cough                               | the boy-Acc   |
|    | “I made the boy cough.”                         |               |
| b. | Kühgüttettem                                    | a gyerek-kel. |
|    | I-caused-to cough                               | the boy-Inst  |
|    | “I had the boy cough.” (by asking him to do so) |               |

우리말에서도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사이의 의미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직접 사동은 어휘적/형태적 사동형으로, 간접 사동은 분석적/통사적 사동형으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sup>10)</sup> 다음 예문에서

9) Kannada는 인도 남부에서 사용되는 드라비다어(Dravidian)이다.

이러한 의미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28) 직접 사동: 가. 엄마가 아이에게/를 옷을 입혔다.

나. 의사가 환자를 침대에 눕혔다.

(29) 간접 사동: 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나. 의사가 환자를/에게 침대에 눕게 했다.

다른 나라 말에서와 같이 한국어에서도 간접 사동은 생산적이고, 직접 사동은 비생산적이다. (28)과 (29) 사이의 차이는 피사역주인 ‘아이’나 ‘환자’의 의도(volition)가 옷을 입는 행위나 침대에 눕는 행위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동문에서는 사역주(causer)나 피사역주가 의도성을 가질 수 있는 인물명사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sup>11)</sup> 피사역주가 무정물(inanimate)인 경우에는, 간접 사동의 사역주(causer)가 미술적인 힘이나 주술적인 능력

---

10)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발견되는데, 단형 사동이 간접행위를, 장형 사동이 직접행위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1) 주인은 돈이 떨어진 손님을 3일이나 공짜로 재우고 먹여줬다.

(2) 철수는 순이의 안대를 벗겨 창밖을 보게 하였다.

여기서 (1)은 단형 사동이지만 간접행위를, (2)는 장형 사동이지만 직접행위를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규철(2001), 이지수(2008)은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의 차이는 타동성의 차이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규철(2001)은 ‘문장에 있는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타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사동문의 타동성에는 화자가 판단한 사동자의 영향력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3) 히틀러가 유대인 200만 명을 죽였다.

(4) 히틀러가 유대인 200만 명을 죽게 하였다.

여기서 (3)이 선호되는 이유는 사동자인 히틀러의 영향력이 크다고 화자가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1) 김백련(1964: 157-9) 같은 학자는 피사역주가 유정물인 경우만 사역동사로 보고, 피사역주가 무생물인 경우는 일반 타동사로 보는 <조선어 문법>(1949: 267)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타동사도 피사역주의 성격에 따라 타동사도 되고, 사역동사도 된다는 것인데, ‘어머니가 아이 옷을 벗긴다’의 경우는 아이가 옷을 벗을 수 있으므로 사역동사이고, ‘사과 껍질을 벗겨 먹어라’의 경우는 사과가 자체로 껍질을 벗지 못하므로 타동사라는 것이다.

을 가진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간접 사동의 피사역주가 무정물인 다음 예문을 보자.

(30) 가. 영수가 나무를 살게 했다(cf. 영수가 나무를 살렸다).

나. 영수가 의자를 돌게 했다(cf. 영수가 의자를 돌렸다).

위 문장들이 이러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간접 사동이라는 것이 사역주와 피사역주 간에 물리적 접촉을 함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적 접촉이 없고 행위를 일으킬만한 능력을 가진 인물명사가 중간자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는 마치 미술적 힘에 의해서 그 행위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 함축이 영어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Haiman(1983:784)은 기술하고 있다. 다음 예문이 그 예이다.

(31) a. I caused the tree to fall.

b. the chicken to die.

c. the cup to rise to my lips.

특히 (31c)의 경우에는 사역주의 미술적 힘이 강력하게 함축되는 듯하다. 그러나 (30)-(31)에서 관찰되는 미술적 힘이라는 함축이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문 (32)나 영어의 어휘적 사동문 (33)에서는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가. 영수가 나무를 살렸다.

나. 영수가 의자를 돌렸다.

(33) a. I fell the tree.

b. I killed the chicken.

c. I raised the cup to my lips.

피사역주가 유정명사이거나 특히 인물명사일 경우에는 사역주에게 미술적 힘을 부여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간접 사동이라고 하더라도 사역주의 명령에 의해 사동 행위를 피사역주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간접 사동이 일반적으로 유정명사를 피사역주로 요구한다는 언



어 사실을 기능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 3. 피사역주의 격표지 유형

#### 3.1. 피사역주의 격표지에 대한 콤리의 통사적 설명

사동문에서 피사역주(causee)가 형태론적으로 어떤 표지를 취하며, 어떤 통사-의미적 특징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여러 문법 이론의 틀 속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다 (Shibatani 1976, Song 1996). 능동문에 새로운 주어인 사역주를 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사동문이라고 본다면, 원래의 주어인 피사역주는 원래 문장의 통사구조에 따라 그 격표지가 정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콤리(Comrie 1981, 1989)는 자기가 제시한 문법관계위계(hierarchy of grammatical relations)에 따라 피사역주의 다양한 형태-통사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문법관계 위계란 다음과 같다.

(34) Subject > Direct Object > Indirect Object > Oblique Object

그의 주장의 요점은 사동문의 피사역주는 이 위계상에서 충족되지 않은 가장 왼쪽의 문법관계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문이 사동화되어 새로 도입된 사역주가 주어자리를 차지하면 피사역주는 직접목적어자리에 오고, 직접목적어자리가 채워진 타동문이 사동화 되면 피사역주는 간접목적어자리에 오고,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자리가 모두 채워진 3항 술어 - 예를 들어, 수여동사 - 구문 등이 사동화 되면, 피사역주가 사격 보어 자리에 온다는 일반화를 주장하였다. 콤리는 이러한 위계를 가장 잘 지키는 ‘모범적인 경우’(paradigm case)로 터어키어를 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들은 콤리가 말하는 ‘모범적인 경우’에 들어맞지 않는다(Song 1996:160). 일견 이러한 위계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불어도 예외적인 경우를 보여준다. 다음 예를 보자.

(35) 가. Je ferai manger les gateaux a Jean(IO).

‘I shall make Jean eat the cakes.’

나. Je ferai manger les gateaux par Jean(Oblique).

‘I shall make Jean eat the cakes.’

(35가)는 문법관계 위계에 따르는 모범적인 예이지만, (35나)와 같이 모범에서 벗어나는 예들도 불어에서 허용된다. (35나)에서는 피사역주 Jean이 간접목적어가 되어야 할 텐데, 피동문의 행위자를 표시하는 전치사 ‘par’를 취해 사격 보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문법관계 위계에 따르면, 직접목적어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으므로 피사역주는 간접목적어로 나타나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36) Sanskrit(Song 1991)

bhupyam/bhupyena	katam	karayati
servant (DO/Inst)	mat (DO)	prepare-Caus

“He makes the servant prepare the mat.”

(37) Hindi(Saksena 1980:813)

mai-nee	raam-see/*koo	peer	kat-aa-yaa.
I-Agt	Ram-Inst/*Dat	tree	cut-Caus-Past

“I made Ram cut the tree.”

피사역주가, 산스크리트어(36)에서는 간접목적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도구격을 가질 수도 있고, 힌디어(37)에서는 간접목적어로는 나타날 수 없고 도구격으로만 나타나야 한다.

사동문에서 피사역주의 격표지를 문법관계 위계를 가지고 예측하는 설명은

적지 않은 예외와 함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Song 1996, Yeon 1998). 이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코진스키와 폴린스키(Kozinsky & Polinsky 1993)는 피사역주의 격표지가 직접목적어와 같은 표지를 가짐으로써 격표지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 그것을 문법관계의 중복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들은 특히 한국어와 화란어(Dutch) 자료를 토대로 비록 격표지의 중첩이 일어나지만 문법관계의 중복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콤리의 문법관계 위계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코진스키와 폴린스키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콤리의 위계 설명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한 후에, 격표지 차이에 대해서는 의미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 3.2. 격표지 중첩의 문제: 문법관계의 중첩인가?

한국어에서 타동문이 사동화 될 때 피사역주는 보통 여격 표지를 갖는다. 즉 원동사가 타동사일 경우 피사역주는 (38)처럼 여격 표지를 갖는 간접목적어자리에 나타난다.

- (38) 가. 아이가 약을 먹었다.  
나.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39)처럼 비사동문에서도 이중 목적어를 허용하는 구문이 있고, (40)처럼 사동문에서도 피사역주가 대격 표지를 가짐으로써 직접 목적어자리에 중복을 허용하는 구문이 가능하다.

- (39) 가. 영수가 순이를 손을 잡았다.  
나. 개가 토끼를 다리를 물었다.

- (40)       엄마가 아이를 약을 먹였다.

이 경우 피사역주는 원래의 목적어와 똑같은 대격 표지를 가짐으로써 소위

‘격표지 중첩’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여기서 과연 피사역주의 문법관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 (i) 대격 표지를 받은 두 개의 명사구가 모두 직접목적어일 가능성,
- (ii) 피사역주가 직접목적어이고 대격 표지된 원래의 목적어는 직접목적어가 아닐 가능성,
- (iii) 원래의 목적어가 직접목적어이고 대격 표지된 피사역주는 직접 목적어가 아닐 가능성.

(i)의 경우에는 문법관계 중복(통사적 중복)의 경우로 이것은 콤리의 문법 관계 위계에 어긋나는 예외가 되지만 (ii)나 (iii)의 경우에는 비록 표면적인 격표지는 중첩이 일어나지만 문법관계 상으로는 중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므로 콤리의 가설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진스키와 폴린스키(Kozinsky & Polinsky 1993)은 한국어의 이중 대격 구문과 사동문에서 피사역주의 문법관계를 논하면서 피사역주가 문장의 직접목적어이고 원래의 목적어는 사격 목적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피사역주와 원래의 목적어의 문법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39) 코진스키와 폴린스키의 예문 (33)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의미기능:	causer	causee	patient
문법관계:	TS	DO	non-term
	(Transitive subject)		

그런데 코진스키와 폴린스키(이하 코와 폴)가 논의의 전제로 삼고 있는 통사적 테스트들이 믿을만한 것이 못되고 그들의 논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sup>12)</sup> 코와 폴은 한국어에서 직접목적어의 문법관계를 확인하는 통사적 절차

12) Kozinsky & Polinsky(1993)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재훈(2002)에서 논의된 바 있다.

로 다음과 같은 테스트들을 제시하고 있다(코와 폴 185-7).

- (i) Control of the resumptive element across the twui-clause
- (ii) Control of the null copy and resumptive pronoun across the se-clause
- (iii) Passivization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뒤’-절에 이어지는 주절에서 지시대명사(resumptive element)는 직접목적어나 제3의 인물과 공지시 관계에 있다. 또 ‘-어서’-절 뒤에 이어지는 주절에서 생략된 주어(null copy)<sup>13)</sup>나 지시대명사(resumptive element)는 직접목적어와 공지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수동화 절차는 이미 직접목적어를 관별하는 통사적 테스트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겠다. 코와 폴은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예문들을 우선 살펴보자. 먼저 (i)과 관련된 예문이다.

(42) (코와 폴의 예문 11)

그 학생이 이웃을 때린 뒤, 그가/그 남자가/이 떠났다.

‘뒤’-절에 이어지는 주절에서 대명사적 요소는 직접목적어나 제3의 인물을 가리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의 직관으로는 (42)에서 ‘그 남자’가 이웃을 가리킨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공지시관계는 통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다음 예문을 보자.

(42') 철수가 영수를 때린 뒤 그가 떠났다.

철수가 영수를 만난 뒤 그가 떠났다.

위와 같은 문장에서도 주절의 ‘그’는 영수를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철수’를 가리키는 것 같다. 사실 이 지시관계는 다분히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것

---

13) 이것은 PRO와 같은 것이다.

같다. 즉 앞 뒤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는 선행절의 철수나 영수를 선택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테스트는 선행절의 직접목적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다.

다음으로는 (ii)와 관련된 예문이다.

(43) 가. 그 사람이<sub>i</sub> 이웃을 때려서  $\emptyset_j/*i$  떠났다.

나. 그 사람이<sub>i</sub> 이웃을 때려서 그가<sub>j</sub>/\*i 떠났다.

(43가)에서 주절의 생략된 주어는 선행절의 직접목적어를 가리키고, (43나)에서 주절의 지시대명사는 선행절의 직접목적어를 가리킨다는 주장이다. 다만 (43가)는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이 그 해석에 동의했고 (43나)는 주절의 지시대명사가 제3의 인물을 가리킨다는 해석을 선호하는 화자들이 많았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코와 폴 186쪽).

우선 필자의 직관으로는 코와 폴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고, 설사 (43)의 경우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경우의 해석은 다분히 화용론적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목적어를 판별하는 통사적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43)에서 주절의 동사와 선행절의 동사를 대체한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생략된 주어나 지시대명사가 선행절의 주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sup>14)</sup>

(44) 가. 그 사람이 이웃을 때려서 감옥에 갔다.

나. 그 사람이 이웃을 때려서 그가 감옥에 갔다.

---

14) 송재정(1995:216-7)에서도 코와 폴의 통사적 테스트들이 순수히 통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화용론적 내지는 통사외적인 지식(the knowledge of the world)에 좌우되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 든 예문도 상황에 따라 누구를 지칭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생략된 주어가 선행절의 주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다.

(1)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서 ( )i/\*j 그 일을 자진해서 했다.

- (45) 가. 그 사람이 이웃을 죽여서 떠났다.  
 나. 그 사람이 이웃을 죽여서 그가 떠났다.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이다.

- (46) 가. 철수가 영희를 때려서 벌을 받았다.  
 나. 철수가 영희를 사랑해서 떠났다.

(46)에서도 주절의 생략된 주어는 선행절의 주어를 동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튼, 코와 폴은 이와 같은 통사적 테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사동문에서 피사역주와 피동작주(patient)의 문법관계를 판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선택한 예문은 피사역주가 ‘아버지’, 피동작주가 ‘아저씨’인 다음과 같은 예문이다.

- (47) (코와 폴의 예문 33)  
 가.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나.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코와 폴도 (47가)가 (47나)보다 훨씬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47나)에는 물음표를 사용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피사역주와 피동작주가 모두 대격 표지를 갖고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에 관심이 있으므로 일단 (47나)를 수용 가능한 예문으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우선 코와 폴은 (47가)의 각 논항이 지닌 문법관계를 판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통사적 테스트를 하고 있다.

- (48) (코와 폴의 예문 34)  
 가.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저씨k를 때리게 한 뒤  $\phi_i$  떠났다.  
 나.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저씨k를 때리게 한 뒤 그k/\*j는 떠났다.  
 다.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저씨k를 때리게 한 뒤 아버지가 떠났다.

(48가)에서 주절의 생략된 주어(null copy)는 선행절의 주어와 공지시 된다. (48나)에서 지시대명사(resumptive element)와 공지시 되는 것은 선행절

의 피동작주인 ‘아저씨’라는 주장이다. (48다)에서 주절의 주어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생략이나 지시대명사로써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명사가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뒤’-절에 이어지는 주절에서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요소가 선행절의 직접목적어인데, (48나)에서 보듯이 직접목적어는 이 경우 ‘아저씨’라는 주장이다.

또 ‘-어서’-절에 이어지는 주절에서 생략된 주어와 공지시되는 요소가 직접 목적어라는 논의를 앞에서 폈는데, 다음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저씨’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sup>15)</sup>.

(49) (코와 폴의 예문 35)

그 사람이 아버지<sub>j</sub>에게 아저씨<sub>k</sub>를 때리게 해서 ϕ<sub>k</sub> 떠났다.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코와 폴은 (47가) 문장의 문법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47가) 그 사람이 아버지<sub>j</sub>에게 아저씨<sub>k</sub>를 때리게 했다.

causer	causee	patient
TS	non-term	DO

반면에, 피사역주가 대격 표지된 (47나)의 문장에 똑같은 통사적 테스트를 적용하면 피사역주가 직접목적어의 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보자.

(50) (코와 폴의 예문 38)

그 사람이<sub>i</sub> 아버지<sub>j</sub>를 아저씨<sub>k</sub>를 때리게 해서 ϕ<sub>j</sub>/\*<sub>k</sub> 떠나섰다.

---

15) 이 밖에도 코와 폴은 직접목적어를 구별해 내는 테스트로 재귀대명사의 해석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것도 직접목적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1) (코와 폴의 예문 36):

그 사람이<sub>i</sub> 아버지<sub>j</sub>에게 아저씨<sub>k</sub>를 자기<sub>i</sub>(의)<sub>i</sub>/k/\*<sub>j</sub> 방에서 때리게 했다.

이 경우에도, 코와 폴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재귀대명사 ‘자기’와 동지시 되는 것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다(물론 주어인 ‘그 사람’이 동지시 될 가능성은 가장 크다).



‘-어서’-절 뒤의 생략된 주어와 동지시 되는 명사구가 직접목적어인데, 이 경우에는 피사역주인 ‘아버지’가 직접목적어의 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코와 폴은 (47나) 문장의 문법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47나)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causer	causee	patient
TS	DO	non-term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코와 폴이 사용한 통사적 준거들이 직접목적어를 판별해 주는 증거가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절의 생략된 주어와 동지시되는 선행절의 명사구는 다분히 화용론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것을 토대로 한국어의 피사역주와 피동작주의 문법관계를 각각 직접목적어와 사격 보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코와 폴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격표지의 중첩이 문법관계의 중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문맥에 따라 피사역주와 피동작주가 직접목적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 문법관계의 중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콕리(Comrie 1976: 276-7) 자신은 이러한 중복 현상이 문법위계 설명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단서들을 달고 있다. 즉 언어에 따라서는 문법관계 위계상에 중복(doubling on grammatical relations)이 일어나는 일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피사역주가 문법관계 위계에 따라 격표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사구 논항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문법관계와 동일한 격표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콕리에 의하면, 편집어와 붙어(Comrie 1975)는 간접목적어 위치에서 중복이 가능하고, 랩어(Southern Lappish), 예벤키어, 아랍어(Comrie 1976: 285-6), 몽고어(Comrie 1976: 275) 등<sup>16)</sup>은 직접목적어 위치에서 중복이 가능한 언어라고 하였다<sup>17)</sup>.

그러나 중복현상이 왜 허용되며 이것이 사동문에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일반적인 비사동문에도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사역주의 격표지 변화를 문법관계 위계로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예외가 있는데, 한국어의 다음과 같은 예는 피사역주가 중복된 격표지만을 허용함으로써 콤리의 설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예가 된다.

- (51) 가. 아이가 옷을 벗었다.  
       나. 어머니가 아이를 옷을 벗겼다.  
       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벗겼다<sup>8)</sup>.

콤리를 따르자면, (51가)가 사동화 되면, 피사역주는 대응하는 사동문에서 직접목적어자리는 벌써 다른 명사구에 의해 채워졌으므로 여격 표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51나)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경우에 피사역주는 반드시 대격 표지를 받고, 여격 표지 피사역주가 나타나는 (51다)는 비문이 된다.<sup>19)</sup>

16) 직접목적어자리에서 중복을 보여 주는 특수한 예로, 캘리포니아 북부 유키아(Yukian)어군의 하나인 와포(Wappo)의 예를 더 들 수 있다(Li and Thompson 1977). 이 언어의 형태적 사동에서는, 사동사가 몇 개의 명사구 논항을 갖든지, 무슨 격표지가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피사역주는 항상 대격 표지를 갖고 표현된다. 와포어에서 대격은 표면상 무표지로 나타난다. 이것은 확실히 콤리의 문법관계 위계에 위배되는 예가 될 것이다(지면 관계 상 예문은 생략한다. 실제 예문은 Li and Thompson(1977)이나 Yeon(1998: 220-1)을 참고할 것).

17) 이 밖에 산스크리트어(Aissen 1979; Comrie 1976: 294, 312), 헝가리어(Hetzron 1976: 395) 등에서 직접목적어 위치에 중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8) ‘벗기다’는 어떤 위치로부터 대상을 이탈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의미상 여격(향격) 조사 ‘에게’ 논항과 공존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에게’ 대신, 탈격의 ‘에게서’ 논항과는 물론 자연스럽게 공존한다(예: 어머니가 아이에게서 옷을 벗겼다). 김기혁(2009)는 ‘벗기다, 씻기다, 깎이다’가 쓰인 문장이 이중 대격 구문으로 나타나는 것을 속격 구성의 변형으로 설명한다.

19) 독일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Nedjalkov & Silnitsky 1973).

Er liess seinen Sohn/\*von seinem Sohn die Jacke ausziehen.  
 he let/had his son/\*by his son the jacket take off  
 콤리의 설명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직접목적어자리는 이미 다른 명사구가 차지하고

콤리(Comrie, 1981: 171)는 중복 현상과 관련하여, 사격 보어 위치에서는 중복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간접목적어 위치에서는 제약이 조금 있고, 그리고 직접목적어 위치에서는 제약이 꽤 많지만 중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동문의 주어 위치에서는 어떤 언어에서도 중복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은 단문에서 두 개의 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향에 토대를 둔 관찰인 것 같다.<sup>20)</sup> 한국어는 직접목적어자리에 중복이 가능한 언어에 속하고, 일본어는 직접목적어자리에서의 중복이 불가능한 언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콤리의 위계 설명은 피사역주가 경우에 따라 격표지가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의미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힌디어에서 일부 동사들은 사동문에서 피사역주가 여격 표지 ‘-koo’나 도구격 표지 ‘-see’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Saksena 1980).

- (52) mai-nee raam-see/koo kitaab parh-vaa-ii  
I-Agt Ram-Inst/Dat book read-Caus-Past  
“I had Ram read the book.”

- (53) mai-nee raam-koo/see masaalaa cakh-vaa-yaa.  
I-Agt Ram-Dat/Inst spice taste-Caus-Past  
“I had Ram taste the seasoning.”

이 경우 격표지의 차이는 의미차이를 수반한다. Saksena(1980: 816)에

---

있으므로, 피사역주는 간접목적어나 사격 보어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독일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피사역주가 반드시 직접목적어(대격)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벗다’라는 동사의 이휘의미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 20) 그런데 다음의 한국어 사동문 구성에서는 사역주와 피사역주가 모두 주격 표지를 갖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형론적으로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 가. 영수가 갔다.

나. 순이가 영수가 가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포문을 포함하는 복합문 구성에 의해 형성된 사동문이기 때문에 콤리의 가설에 반증이 되지는 못한다.

따르면, (52)에서 피사역주가 ‘koo’로 표시되면, 사역주의 사동 행위의 목적은 피사역주가 독서하게끔 하는 것이고, 피사역주가 ‘-see’로 표시되면, 사역주의 목적은 책이 읽히게끔 하는 것이어서 피사역주는 그 목적을 위한 단순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 (53)에서도, 피사역주가 ‘-koo’로 표시되면 맛보는 것이 피사역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see’로 표시되면, 맛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콤프리의 위계 설명은 순전히 통사적 관점에 선 설명이기 때문에 격표지의 의미 기능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지만 격표지의 차이는 많은 경우에 의미차이를 수반한다. 다음에서 격표지의 차이에 대한 의미적 설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로 하자.

### 3.3. 피사역주의 격표지 기능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

콤프리의 문법관계 위계에 대한 예외를 설명하려는 대안으로 피사역주의 격표지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이 있는데, 이것은 Cole(1983)에 의해 대표되며, Saksena(1980) 등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사동문의 피사역주가 그 행위에 관여하는 통제성/의도성의 정도에 따라 어떤 문법행태상의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점은 콤프리의 문법관계 위계와 같은 순수한 통사적 접근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의미론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다. 피사역주의 경우 사역주의 사동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피사역주가 행위에 대한 통제성을 가지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 차이도 언어 구조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sup>21)</sup>

---

21) ‘의도성’이나 ‘통제성’이라고 하는 의미자질이 문법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과 그러한 인지 차이가 문법에서 달리 표현되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행태상의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점은 흥미로운 연구거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의도성이 있는 주어의 행위와 의도성이 없는 주어의 행위는 인지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형태론적으로 문법에 반영되는 언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Comrie(1989), DeLancey(1984), 연재훈(1995) 등을 참고할 것.

실제로 많은 언어에서 피사역주의 형태론적 표지와 의미 기능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일본어에도 피사역주의 두 가지 형태 표지에 따라 의미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Comrie 1981: 54).

(54) 가. Taroo-ga Zi-roo-o ik-aset-a.  
 Nom Acc go-Caus  
 “Taroo made (forced) Zi-roo go.”

나. Taroo-ga Zi-roo-ni ik-aset-a.  
 Nom Dat/Inst go-Caus  
 “Taroo got (persuaded) Zi-roo to go.”

(54가)는 피사역주인 Zi-roo에게 최소의 통제력만을 부여하고 있고, (54나)는 상대적으로 피사역주가 높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2.2.에서 언급했던 Bolivian Quechua((25)), Kannada((26)), Hungarian((27)) 같은 언어들에서도 발견된다(Saksena 1980:820). 그 예문들에서 (가)는 피사역주의 통제력이 거의 없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피사역주가 통제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사역주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충고나 설득에 의해서 피사역주로 하여금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간접 사동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콜(Cole 1983)은 유형론적으로 통제력이 있는 피사역주와 통제력이 없는 피사역주를 형태론적으로 구별 표지함에 있어 어떤 보편적 형태론적 기제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간단히 말하면,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피사역주는 보통 도구격으로 표시되고, 통제력이 없는 피사역주는 보통 피동작주를 표시하는 격과 동일한 대격이나 여격으로 표시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격은 전형적인 피동작주를 표시하는 격표지로서 아주 낮은 통제력을 가진 논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고, 도구격<sup>22)</sup>은 높은 통제력을 가진 논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경험주(experiencer)나 수혜자(recipient)를 표시하는 여

격은 보통 통제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중간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명사구 논항의 통제력이라는 의미 자질의 관점에서 형태론적 격표지 위계를 ‘도구격>여격>대격’과 같이 설정할 수 있겠다.

한국어의 경우, 형태적 사동 구문에서는 이 위계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문의 피사역주는 통제력이 거의 없는 것 같기 때문인데, 이것은 한국어의 형태론적 사동사가 일반 타동사처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형태적 사동의 경우에도, 피사역주가 대격과 여격의 교체를 보이는 경우, 격표지의 차이는 피사역주의 통제력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sup>23)</sup>

(55) 가.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나. 어머니가 아이를 옷을 입혔다.

위 예문에서 대격 표지 된 피사역주는 여격 표지 된 피사역주에 비해 사건을 통제하는 힘이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sup>24)</sup>

한편, 분석적(통사적) 사동에서는 다른 언어에서와 같이, 피사역주를 표시하는 대격과 여격 사이에 상당한 의미차이를 수반하는 것 같다. 이효상(Lee 1985)에서 이미 지적된 것처럼, 다음 예문에서 피사역주의 격표지는 통제력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56) 가. 아버지가 아이를 마당에서 놀게 했다.

나. 아버지가 아이에게 마당에서 놀게 했다.

다. 아버지가 아이가 마당에서 놀게 했다.

22) 혹은 피동문에서 사격 보어로 나타나는 행위주를 표시해 주는 격도 이 부류에 들어간다.

23) 한편 유승섭(2007)은 피사역주가 대격으로 나타나는 경우, 본래 기저구조에서는 여격이었으나 주제화를 겪어서 표면에 도출될 때 대격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4) 김기혁(2009)은 (55)와 같은 사동문의 격교체 현상을 처소 교체 구문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대격의 논항은 대상으로서의 영향 받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56)에서 보는 것처럼, 피사역주에 표시된 대격은 사역주의 강력한 강요를 함축하고, 여격은 그보다는 약한 명령이나 권유, 그리고 주격은 단순한 허락이나 분위기 조성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이효상(Lee 1985)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사동 구문에서 피사역주가 행사하는 통제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주격>여격>대격의 순으로 통제력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주로 사동문의 피사역주가 행사하는 통제성의 정도가 형태적으로 상이하게 표시되는 예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은 피사역주의 격표지 차이를 의미론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콤리의 가설은 기본적으로 형태적 사동을 염두에 두고, 단문 구조 내에서 문법관계 위계를 가설로 제시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형태적 사동의 경우에 반드시 중복을 요구하는 예문 (51)과 같은 경우가 콤리의 가설에 치명적인 반례가 될 것이다. 통사적 사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복문 구조를 상정하면 격표지 중첩에 따르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57) 가.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PRO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나. 그 사람이 아버지를 [PRO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다. 그 사람이 PRO [아버지가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이와 같이 보면 그것이 격표지의 중첩이든 문법관계의 중첩이든 단문 내에서의 중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사동문의 유형을 유형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사동문 피사역주의 문법관계와 관련하여 격표지 유형의 행태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한다.

사동문은 외부의 행위주를 사역주로 문 구조에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사역주가 사건 구조에 새로이 도입되면, 그것이 사건 발생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 행위주로 해석되면서 주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사건 발생에 책임을 덜 갖는 원래의 주어 즉 피사역주는 직접목적어나 간접목적어의 위치로 하강한다.

사동문은 두 가지 변수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형식적 또는 형태-통사적 변수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적 변수이다. 의미적 분류의 예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구분이 한국어에서 형태적으로 반영되는 예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은 일반적으로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각각 표현된다.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중요한 차이는 피사역주가 행사하는 통제성의 정도 차이에 있다. 간접 사동에서의 피사역주는 행위에 대한 통제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직접 사동에서의 피사역주는 행위에 대한 통제성이 전혀 없이 전형적인 피동주처럼 기능한다. 달리 말하면, 직접 사동의 사역주는 사역주가 직접 행위를 유발하고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타동 구문의 행위주와 같이 기능한다.

피사역주의 형태론적 표지와 관련하여, 한국어 사동 구문에서 피사역주가 행사하는 통제성의 정도라는 자질은 대격> 여격> 주격의 순서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피사역주의 형태론적 표지와 관련하여, 콤리(Comrie 1981, 1989)의 문법관계 위계 가설이 한국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 가설에 들어맞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중복 현상을 보이는 언어가 많다는 것을 보였다. 한국어도 직접목적어 위치에서 중복 현상을 허용함으로써 콤리의 가설에 문제점을 시사한다. 격표지의 중첩을 문법관계의 중첩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코진스키와 폴린스키의 한국어 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콤리의 가설은 왜 어떤 경우에 피사역주에 나타나는 격표지가 의미차이를 갖고 쓰이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사역주가 대격 표지를 가질 때와 여격 표지를 가질 때는 의미차이를 보여 주는데, 콤리의 설명은 기본적으로 격표지의 의미 기능은 무시한 채 순전히 통사적 관점에 기초한 가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가능피동구문

중립동사 구문

상호 구문

주격중출 구문

심리동사구문

수어동사 구문

소유 구문

신체부위명사구문

처소교체구문

관계절

사동문

피동문

격표지 유형론

여격주어구문

소유주 상응 대격 중출 구문

## 5장

---

### 피동문의 유형론

#### 1. 머리말<sup>1)</sup>

언어 유형론적으로 여러 언어에서 참으로 다양한 구문들이 ‘피동’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넓게는 ‘주어’라는 문법관계가 ‘동작주’라는 의미역할을 표상하지 않는 구문이면 모두 넓은 의미의 피동 구문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는 주어가 아닌 문법관계 - 전형적으로는 목적어 - 를 주어자리로 상승시키고 원래의 주어는 주어자리를 이탈하여 사격 보어의 자리로 하강하거나 삭제되는 문법관계 교체 구문을 ‘피동문’이라고 기술해 왔다. 그리하여 피동문의 두 가지 기본적 기능은 ‘수동자’(undergoer)의 문법관계 상승과 ‘능동자’(actor)의 문법관계 하강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능동자’와 ‘수동자’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의 의미역할로서, 능동자는 전형적인 ‘동작주’(agent)뿐만 아니라 주어자리에 올 수 있는 다양한 의미역할을 포괄하고, 수동자는 전형적인 ‘피동주’(patient) 뿐만 아니라 목적어자리에 올 수 있는 다양한 의미역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

1) 5장의 일부는 연재훈(2005)에 발표된 바 있다.

하기로 한다.<sup>2)</sup>

## 2. 피동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초기의 변형 문법이나 관계문법에서는 피동문을 대응하는 능동문에서 상승 절차나 하강 절차를 통해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언어학자는 상승(promotion)을 피동문의 일차적 중요 속성으로 본 반면, 어떤 학자는 하강(demotion)을 더 중요한 속성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비인칭 피동문(impersonal passive)과 같은 구문을 설명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Siewierska 1984). 다른 변수들을 제쳐 놓고 상승이나 하강이나는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피동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하강 쪽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것이 적어도 비인칭 피동문<sup>3)</sup>을 설명함에 있어서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비인칭 피동문의 존재 이외에도 피동문의 하강 분석을 지지해 주는 예가 있다. 어떤 언어에서는 피동문에서도 능동문의 목적어가 그대로 대격 표지를 갖고 남아 있는 예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목적어의 상승 교체라는 설명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예들이다. 예를 들면, 폴리와 반발린(Foley & Van Valin, 1984)의 “배경 피동”(backgrounding passives)<sup>4)</sup>이라는 것이 그러한 예인

---

2) 능동자(actor)와 수동자(undergoer)라는 개념은 폴리와 반발린(Foley & Van Valin 1984)의 술어인데, 자세한 것은 Foley & Van Valin(1984)을 참고할 것.

3) 아래 예문 (3)의 문장들이 비인칭 피동문의 예들이다.

4) Foley & Van Valin(1984)에 의하면, 피동문은 그 기능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Backgrounding passives are those which remove the actor from the core argument of the structure, either presenting it as an oblique NP or suppressing it entirely. Foregrounding passives are those which present non-actor arguments as pivots.” 문장의 축(pivots)이라는 개념과 ‘foregrounding passives’, ‘backgrounding passives’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Foley & Van Valin(1984:108-186)을 참고할 것.

데, 이러한 구문들은 수동지를 상승시키지 않고 능동자만을 하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문들이다. 능동지는 보통 사격 명사구로 나타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예로 만주-통구스어의 일종인 울차(Ulcha)를 들 수 있는데, 피동 형태소가 나타나는 피동문에서는 능동자가 문장에서 제거되는 것이 능동문과 다를 뿐,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Foley & Van valin 1984: 155).

- (1) Ti        du:se-we    ho:n-da    ta-wuri.  
       Dem   tiger-Acc   how-Q        do-Pass  
       “What's to be done about that tiger?”

(1)에서 보는 것처럼 피동문에 행위자는 나타나지 않지만, 피행위자는 대격 표지를 유지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비슷한 경우를 또 다른 만주-통구스어의 하나인 나나이어(Nanai)(Foley & Van Valin 1984)와 핀란드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Comrie 1977).

- (2) a. Nanai: Ej        daNsa-wa    tej        erincie    xola-o-xan        bicin.  
           Dem   book-Acc   Dem   time        read-Pass-Past    Aux (past)  
           “The book had already been read by that time.”  
       b. Finnish: Hèn-et        jètettiin    kotiin.  
                       3sg-Acc        was            left at home  
                       “He was left at home.”

(2)에서도 피동문에 능동지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동지는 능동문에서와 같은 대격 표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통사적 상승이나 하강이라는 개념은 너무 제한적이라서 여러 언어에서 ‘피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구문들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피동문을 능동문 목적어의 상승이나 대응하는 능동문으로부터의 파생으로 보는 접근은 자동문의 피동 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약점을 갖는다. 또한, 이 접근방법은 제한적이라서 피동문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구문들을 설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 보자. 먼저 자동문의 파동이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는데, 이것은 목적어의 상승이나 능동문에서의 파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sup>5)</sup>.

- (3) a. Latin: Pugnabatur  
 “It was fought; There was some fighting.”
- b. German: Hier wurde den ganzen Abend getanzt.  
 here was the whole evening danced  
 “There was dancing here throughout the evening.”
- c. Welsh: Dannswyd gan y plant.  
 was danced by the children  
 “There was dancing by the children.”
- d. Dutch: Er worden daar huizen gebouwd  
 it became+3pl there houses built  
 “There were houses built there.”

(3)과 같이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는 자동문의 파동은 목적어의 상승이나 능동문에서의 파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구문도 파동문이라고 분석되었다.

- (4) Der Tisch ist gedeckt.  
 the table is covered  
 “The table is laid/covered.”

독일어 문장 (4)는 행위가 아닌 상태를 기술하는 표현으로서, 다음 문장 (5)는 (4)에 대응하는 능동문의 짝이 될 수 없다.

---

5) 예문 (3)의 (a, b, c)는 Shibatani(1985:834)에서 인용한 것이고, 예문 (d)는 Foley & Van Valin(1984:325)에서 인용한 것이다.

- (5) Maria deckte den Tisch.  
 cover:Past the table  
 “Maria laid the table.”

일본어의 소위 간접 피동문<sup>6)</sup>도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좋은 예가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Siewierska 1984:157):

- (6) Taroo ga niwaka-ame ni hur-are-te komatte ita node  
 Nom sudden-rain Dat fall-Pass trouble  
 “As it rained suddenly and Taro was in trouble...”

피동문 (6)이 능동문 (7a)나 (7b)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 다 비문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이다.

- (7) a. \*Niwaka-ame ga Taroo ni/o hut-ta.  
 sudden-rain Nom Dat/Acc fall-Past  
 “A sudden shower fell to Taro.”  
 b. .\*Taroo no niwaka-ame ga hut-ta.  
 Gen sudden-rain Nom fall-Past  
 “Taro's sudden shower fell.”

사실은 문장 (6)과 관련을 맺고 있는 능동문은 (7c)이다.

- (7) c. Niwaka-ame ga hut-ta.  
 sudden rain Nom fall-Past  
 “A sudden shower fell.”

간접 피동 (6)은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능동문 (7c)에 비해 명사구 논항의 숫자가 하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일반적 피동과는 대조적이다. 일반적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논항의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6) 일본어의 간접 피동문 및 한국어 피동문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송남선(Song 2002)를 참고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문들은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예가 된다(K. Lee 1993, 이익섭, 임홍빈 1983).

- (8) a. 날씨가 풀리었다.
- b. \*(하늘이) 날씨를 풀었다.
  
- (9) a. 요즘 일이 꼬인다.
- b. \*요즘 (귀신이) 일을 끈다.

위 (a)의 문장들은 형태적으로 피동 접사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쓰였지만 그에 대응하는 능동 구문을 상정할 수 없다. (b)와 같은 가상적인 능동문을 설정하더라도 주어자리에 올 만한 마땅한 주체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동 구문에 쓰인 동사의 의미가 능동문의 동사와 의미상 진릿값을 같이 하지 않는다. “풀리다”와 “꼬이다”는 대응하는 “풀다”나 “꼬다”에 비해 더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7)</sup>

피동문을 대응하는 능동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지 않고 한 문장의 의미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할 수도 있다. 보통 능동문이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가 행위자를 표시하기 위한 기제인 데 비해서 피동문은 행위자가 문장의 주어로 표시되지 않는 구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통사 층위와 의미 층위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리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sup>8)</sup> 두 층위의 위계(hierarchy)가 일치하는 구문 - 즉 행위자는 문장의

---

7) 박철우(2007)는 피동을 비롯한 태 기능에 대한 논의는 사건의 동일성을 전제한 문장들에 대해 가능해진다고 지적하였다. 기존의 논의 가운데는 표현의 자연스러움에 따라 또는 의미의 분화에 따라 능동과 피동 중 한쪽 표현만이 가능한 경우를 관찰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예들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대라는 문법범주와는 구분되는, 언어화나 관용어화 등 일종의 역사적 변화를 동반한 현상으로 별도의 취급이 필요한 특수한 예들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박철우(2007)의 관점대로라면 예문 (8), (9)에 제시된 동사 ‘풀리다, 꼬이다’ 등은 피동사가 아니라 어휘화된 자동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이러한 정의는 피동의 일반적인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피동의 정의는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매우 다양하다. 국어학의 논의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인혜(1997)는 피동문은 능동문에서 변형이 이뤄진 것으로서 초점의 차이나 어감의 차이 또는 문체적인



주어와 피행위자는 문장의 목적어와, 그리고 수혜자는 간접목적어와 일치하는 등등 - 이 정의상 기본적(무표적)인 능동문이다. 반면에 피동문은 두 위계가 일치하지 않는, 좀더 자세히 말해서, 행동주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구문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는 피동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동사의 형태론이나 피동 조동사의 존재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 정의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10) a. Il vend la maison.

“He is selling the house.”

b. On vend la maison.

“One is selling the house.” More idiomatically: “The house is being sold.”

두 구문이 모두 동일한 동사형 ‘vend’를 갖고 있지만, 크라코프스키(Khrakovsky 1973)는 (10b)의 주어 ‘On’을 ‘의미론적으로 공허한 요소’(semantically empty dummy element)라고 보고 이 구문을 피동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10b)는 비인칭 구문이나 비한정 구문으로 분류되는 능동 구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구문들을 피동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동문을 정의할 때, 동사의 형태에 중점

---

변이 등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기저적인 지적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임흥빈(1977)에서는 직접 피동만을 피동의 범주에 넣고 있고, 남기삼·고영근(1993)에서는 직접 피동과 간접 피동을 피동의 범주에 넣고 있다. 또 김원경(2007)에서는 순수하게 의미적 측면을 강조하여 직접 피동, 간접 피동, 어휘 피동을 모두 피동의 범주에 넣었다. 김원경(2007)에서 피동은 문법범주가 아니라 의미 범주이다. 한편 피동을 문법범주의 측면을 강조할 때는 ‘피동법’, 의미적인 측면을 강조할 경우에는 ‘피동 표현’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의 피동을 상 관점에서 설명한 최근의 논의는 오충연(2008)이다. 오충연(2008)은 피동사에 대응하는 능동사의 상적 특성이 피동사의 상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피동문이 정태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관점시역’이 이행적 사건의 뒤쪽에 놓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것이 피동사의 상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래 동사가 종결성을 갖는다면 파생된 피동사 역시 종결성을 갖는다는 것을 밝히었다.

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sup>9)</sup>

통사적 관점이나 의미적 관점에서 피동 구문을 분석해 옴으로써 우리는 피동 구문의 형태론적 중요성을 간파해 온 듯한 느낌이 있다. 우리는 아무런 형태론적 표시도 없는데, 어떤 구문을 피동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를 우선 지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피동 구문이라 하는 것은 피동 형태소나 동사구 내의 피동 표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동사의 형태를 중요하게 따지지 않으면 주제화 구문도 피동 구문과 구별해 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일로 사하라 언어(Nilo-Saharan language)인 랑고(Lango)라는 언어에서 인용한 것이다(Foley & Van Valin 1984:160-1).

- (11) a.   Dako       o-jwat-o                loc.  
          woman   3sgAgt-hit-3sgPat   man  
          “The woman hit the man.”
- b.   Loca       dako                    o-jwat-o.  
          man        woman                3sgAgt-hit-3sgPat  
          “The man was hit by the woman.”

위 예문은 Foley & Van Valin(1984)에는 피동문의 한 예로 제시된 것이지만, 수동자 논항이 능동자 논항 앞에 놓임으로써 자리 바꿈을 한 것 이외에는 피동이라고 분석할 만한 동사의 형태론적 차이나 격표지의 교체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수동자가 주제화 된 구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피동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통사/의미적 고려 이외에 형태론적 고려를 포함시키

9) 형태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입장은 하스펠마스(Haspelmith 1990)와 동일하다. 그는 “passive constructions without passive morphology do not exist. On closer inspection it turns out that the alleged cases of such passives should be analyzed differently(p27)”라고 하면서 피동형태소가 없는 구문은 진정한 의미의 피동문이 아니라고 하였다. 더 자세한 예는 Haspelmith(1990:27ff)를 참고할 것.

10) 이와는 대조적으로 형태를 중요시하지 않고 의미사건구조를 한국어 피동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한 스테판 크노프(Stefan Knoob 2002)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려움에 부딪치게 됨을 알 수 있다.

### 3. 원형이론적(전형적) 접근

여러 언어에서 “피동문”이라고 간주되어 온 다양한 구문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것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만한 일정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움에 알게 된다.<sup>11)</sup> 물론 형태적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중국어에서와 같이 동사 자체는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피동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 형태적 기준이라는 것도 다양한 구문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sup>12)</sup> 따라서 우리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다양한 피동 구문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으로 시바타니(Shibatani 1985)에 의해 제안된 다음과 같은 전형적 접근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 (12) Characterization of the passive prototype:

- a. Primary pragmatic function: defocusing of agent
- b. Semantic properties:
  - (i) Semantic valence: Predicate (agent, patient)
  - (ii) The subject is affected

---

11) 참고로 남수경(2007)은 국어의 전형적 피동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국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 ㄱ. 대응되는 능동 대당문이 존재한다.
- ㄴ. 능동문의 주어, 즉 행위자는 피동문에서는 사격어로 나타나거나 혹은 나타나지 않는다.
- ㄷ. 능동문의 목적어, 즉 피동자는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난다.
- ㄹ. 동사가 특별한 문법적 표지를 지닌다.

12) 동사의 형태론만 보자면 중국어 동사 체계에는 피동사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도 피동을 나타내는 형태소(bei)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면 중국어에도 피동을 나타내는 형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c. Syntactic properties:

- (i) Syntactic encoding:      agent → (not encoded) or Oblique  
   patient → subject
- (ii) Valence of P[redicate]:    Active = P/n  
   Passive = P/n-1

d. Morphological property:

- Active = P;  
Passive = P [+passive]

이 전형적 접근방법은 범언어적으로 ‘피동문’이라고 기술되어 온 매우 다양한 구문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고, 전형적 피동문과 피동의 성질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유사 피동문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유사 피동문들이 가지고 있는 피동적인 특성을 전형성과 정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형적 피동문의 중요한 화용론적 특성은 ‘행위자의 하강’인데, 자동사문의 피동은 전형적 피동문은 아니지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동문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hibatani 1985: 837).

많은 언어에서 피동을 표시하는 형태(소)들이 피동을 표시하는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귀구문(reflexive), 상호구문(reciprocal), 반사동구문(anticausative), 가능피동 구문(potential passive) 등을 표시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는 경우가 많다(cf. Langacker and Munro 1975, Shibatani 1985). 다른 동사 문법범주들이 상호 관련된 다양한 기능(예: 시제, 상, 양태 등)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피동 형태소도 전형적 피동의 기능 이외에 관련된 다른 기능을 표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많은 언어들에서 피동문이 재귀 구문(reflexives)이나 상호 구문(reciprocals)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피동문/재귀구문/상호구문 사이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은 예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hibatani 1985:826).

(13) Spanish:

- a. Se        curo        a        los brujos.  
REFL    cured-3sg.    Dat        the sorcerers  
“The sorcerers were cured.”
- b. Se        curaron        los brujos.  
REFL    cured-3pl        the sorcerers  
“The sorcerers cured themselves.”
- c. Juan    y Maria    se        vieron    en        la calle.  
J        and M    REFL    saw-3pl    in        the street  
“John and Mary saw each other in the street.”

(14) Russian:

- a. Okno        moetsja        rabochim  
window    wash.REFL    workman-Inst  
“The window is being washed by the workman.”
- b. Ivan        moetsja        mylom.  
Ivan        wash.REFL    soap-Inst  
“Ivan is washing himself with soap.”
- c. My        s        nim        bilis'  
we        with        him        hit-pl-REFL  
“He and I hit each other.”

위의 예문에서는 동일한 형태소가 파동, 재귀, 상호 의미를 각각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상의 전이는 문법적 주어가 모두 ‘영향을 받는 요소’(피영향자: affected entity)라는 의미적 공통성에 연유하고 있다. 파동문의 주어는 행위자에 의해 - 그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 재귀 구문의 주어는 주어 자신에 의해, 상호 구문의 주어는 그 상대방에 의해 각각 영향을 입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파동성은 또한 자발성이나 가능성과도 밀접한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spontaneous events or states)란 자동적으로 일

어나는 사건이나 행위주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얻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데, 이러한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구문은 행위주를 하강시킨다는 점에서 피동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피동문의 화용론적 특징으로 행위주의 하강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점에서 피동문은 자발적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언어에서 피동을 표시하는 형태가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데도 사용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Shibatani 1985:827).

(15) Spanish: a. Se abrio la puerta.

REFL open-3sg the door

“The door opened.”

b. Se ven las montanas.

REFL see-3pl the mountains

“The mountains are visible.”

(16) French: La porte s'est ouverte.

the door REFL-is opened

“The door opened.”

(17) Russian: Lekcija nachalas'

lecture began-REFL.

“The lecture began.”

(18) Japanese: mukasi-ga sinob-are-ru.

old time-Nom think about-Pass-Pres

“An old time comes (spontaneously) to mind.”

위 예문들에서 보면, 재귀 동사를 표시하는 형태가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형태들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또한 피동 구문을 표시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형태들인 것이다. 따라서 기

능적 관점에서 피동문은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구문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피동을 나타내는 형태가 의미적으로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구문과 관련성을 갖는 예를 다음에서 볼 수 있다.

(19) 가. 문이 (저절로) 열렸다.

나. 산이 보인다.

다. 유리가 깨졌다.

(19가)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고, (19나)는 산이 보여서 이제 산을 볼 수 있다는 가능의 의미(The mountain is visible)로, 그리고 (다)는 유리가 행위자의 개입 없이 저절로 깨졌다는 의미를 강하게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피동문과 자발성/가능성 사이의 기능적/의미적 연관성을 한국어의 예문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자발적 사건/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이 가능구문이다. 다음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언어에서 피동과 가능구문의 형태는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20) Hindi(Shibatani 1985:828):

larke se cal-aa nahii ga-yaa.

boy Inst walk-PPLE Neg Pass-Past

“The boy was not able to walk.”

(21) Turkish(Davison 1980:60):

Cevap yaz-mak icin kagit-la kalem kullan-il-ir.

answer write-Inf for paper-and pen use-Pass-Pres

“Paper and pencil may be used to write the answer.”

(22) Russian:

Detjam            ne       spitsja.  
children-Dat   Neg   sleep-REFL  
“The children cannot get to sleep.”

(23) Spanish(Shibatani 1985: 828):

?Se        va    por    aqui        a        la        estacion?  
REFL   go   via   here        to        the        station  
“Can one go to the station from here?”

(24) Japanese:

Boku-wa        nemur-are-nakat-ta.  
I Top            sleep-Pass-Neg-Past  
“I could not sleep.”

피동성과 가능성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한국어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sup>13)</sup> 가능성의 의미는 통사적 피동 구문의 경우에도 잘 발견된다. 이 경우, 피동 동사의 의미는 영어로 번역할 경우, 종종 피동사보다는 가능의 의미로 옮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25) a. 이것은 연해서 잘 씹힌다/씹어진다.  
      b. 이것이 저것보다 더 잘 닦인다/닦아진다.  
      c. 이 문이 (잘) 열리니/열어지니?  
      d. 이 책은 비교적 잘 읽힌다/읽어진다.

또 많은 언어에서 가능의 의미는 부정문의 경우에 더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어의 피동 구문이 부정형으로 쓰이면 종종 가능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3) 목정수/김영중(2006)은 피동동사와 심리형용사의 격들이 평행한 것을 지적하고, 피동문 구성의 의미 해석이 피동이라는 단순한 논리적인 의미보다는 양태의 측면에서 ‘가능(potential)’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26) a. 이것은 딱딱해서 잘 안 씹힌다.  
 b. 눈 앞의 사실인데도 잘 안 믿긴다.  
 c. 어릴 때 그 일이 지금도 안 잊힌다.  
 d. 이 문은 잘 안 닫힌다.  
 e. 네 말이 잘 안 들린다.

위 예문들은 기능의 의미를 보여주는데, (26)의 파생적 피동문들은 모두 (27)과 같이 통사적 피동문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기능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27) 가. 이것은 딱딱해서 잘 씹어지지 않는다.  
 나. 눈앞의 사실인데도 믿어지지 않는다.  
 다. 어릴 때 그 일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다.  
 라. 이 문은 잘 안 닫아진다.

부정형과 함께 쓰인 통사적 피동문 (27)은 파생적 피동문보다도 기능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 주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파생적 피동문의 일부가 자발적 사건의 의미를, 그리고 통사적 피동문의 일부가 기능의 의미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다음 4절에서는 피동문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5절에서는 유정성의 정도가 능동과 피동의 선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4. 피동문의 유형

피동문의 유형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Siewierska 1984).

- 가. 형태-통사적 특성에 따라: 파생적(형태적) 피동과 분석적(통사적) 피동  
 나. 상태를 표시하느냐, 행위를 표시하느냐 하는 의미적 기준에 따라: 상태 피동과 과정 피동

다. 행위자 명사구가 피동문에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위자 있는 피동  
과 행위자 없는 피동

한국어에는 형태동사적 속성에 따라 파생적(형태적) 피동과 분석적(통사적)  
피동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파생적 피동문은 피동접사가 사용된 것인  
데, 한국어의 파생적 피동은 일본어나 터키어만큼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에  
반하여 통사적 피동은 아주 생산적인데, 이것은 동사 어간에 피동 조동사를  
첨가하여 만들어진다. 이 외에 어떤 학자들은 소위 어휘적 피동을 제3의 유  
형으로 첨가하기도 한다. 손호민(Sohn 1994: 304-6)도 그 중 하나인데, 그  
는 어휘적 피동도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피동에 포  
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어휘적 피동의 동사  
는 능동 동사와 형태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동사이다.

(28) 가. 순이가 영수를 때리/차었다.

나. 영수가 순이에게 맞았다.

(28나)에는 피동을 표시하는 형태가 아무것도 없다. 어휘적 피동의 또 다  
른 예들은 합성동사를 포함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동작성 명사-당하다/  
받다/되다’에 의해 피동이 실현된다. 다음 문장들이 그 예이다.

(29) 가. 영수가 순이를 협박한다.

나. 순이가 영수에게 협박당한다.

(30) 가. 순이가 선생님을 존경한다.

나. 선생님이 순이에게 존경받는다.

(31) 가. 피카소가 작품을 완성하였다.

나. 작품이 완성되었다.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 ‘하-’를 ‘당하-, 받-, 되-’로 대체함으로써  
피동의 의미를 얻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휘적 피동을 피동의 실현

으로 보지 않는다. 동사 ‘당하다, 받다, 되다’ 등은 독립된 개별 어휘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피동의 의미는 어휘 자체의 의미이고, 피동을 표시하는 아무 형태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구문들도 피동문으로 간주한다면 다음의 영어 예문들도 피동문으로 분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많은 문장들이 단순히 의미 때문에 피동문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 (32) a. We suffered huge losses.  
b. He receives insults.

(32)의 예문들이 실제로 주어가 영향을 입는다는 피동의 의미적 속성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동사 자체의 의미로서, 피동을 표현하는 형태에 일차적 중요성을 두는 우리는 이것을 피동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피동문은 형태통사적 특성 이외에도 의미적 기준이나 행위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는데, 다음에서는 우선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에 대해 살펴본 후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피동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4.1. 파생적 피동

범언어적으로 파생적 피동은 피동을 표시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인데, 특히 인구어를 제외한 많은 언어들에서 이 파생적 피동법이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파생적 피동은 보통 접미사에 의해서 실현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스펠마쓰(Haspelmath 1990)가 조사한 언어 목록 중에서, 파생법으로 피동을 실현시키는 언어가 21개인데, 이 중, 14개가 접미사에 의해, 6개가 접두사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한 언어(Kanuri)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사용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외에도 타갈로그(Tagalog)말의 피동은 접요사(infix)에 의해서, 그리고 히브리말은 내적 모음

교체(internal vowel change)에 의해 피동법이 실현되는데, 이것은 셈족 언어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Keenan 1985:251 이하 참고).

한국어의 파생적 피동법은 피동 접미사를 동사어근에 첨가하여 만들어지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적이지 못하다.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지금보다 파생적 피동형이 생산적이었던 것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현대로 오면서 파생적 피동이 통사적 피동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권재일 1998 참고). 현대 한국어에서 피동접미사는 ‘-이, -히, -리, -기’의 넷인데, 이들 접미사의 음운론적 분포 환경은 아직은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이들 접미사의 분포가 음운론적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Yeon 2003: 6장 참고).

#### 4.2. 분석적(통사적) 피동과 피동조동사 ‘-지다’

범언어적으로 통사적 피동형은 조동사와 타동사의 분사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유형은 특히 인구어에서 아주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슬라브 언어에서는 ‘be’동사와 동사의 과거분사형의 조합으로 영어의 피동과 같은 분석적피동을 형성한다(Siewierska 1988:245).

- (33) a. Russian:   Konservacia                   byla   zakoncena                   rabotnikami  
                  conservation: Nom   was   finish: Past. Participle   workmen:Inst.  
                  “The conservation (works) have been finished by the workmen.”
- b. Bulgarian:   L'v't                   bese   zatvoren                   ot   horatta  
                  Lion: Nom   was   lock up: Ppt   by   people  
                  “The lion was locked up by the people.”

일반적으로 피동문에 사용되는 조동사는 자연부류(natural class)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논의와 예는 Keenan(1985:257ff) 참고). 예를 들면,

가. 피동 조동사가 ‘being’이나 ‘becoming’의 의미를 갖는 언어: 독일어, 페르시아어

나. 피동 조동사가 ‘get’이나 ‘receive’의 의미를 갖는 언어: 웨일즈어, 싱할리즈(Sinhalese)

다. 피동 조동사가 ‘go’나 ‘come’의 의미를 갖는 언어: 힌디어, 페르시아어

라. 피동 조동사가 ‘suffer’나 ‘touch’의 의미를 갖는 언어: 태국어, 베트남어

한국어의 피동 조동사로 쓰이는 ‘-지다’는 역사적으로 동사 ‘디다’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원래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였다는 주장이 있었다(배희임 1988: 112). 반면에 ‘떨어지다’의 의미였던 ‘디다’가 현대국어의 보조동사 ‘지다’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두 동사 간에 의미적 관련성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함희진 2008). 오히려, 보조동사 ‘지다’는 ‘기름지다, 네모지다’ 등의 접사 ‘지다’와 의미적으로 더욱 관련이 있고, 이때의 ‘지다’는 ‘생기다(生)’의 의미를 갖는 중세의 ‘지다’의 후대형이라는 것이다. 함희진(2008)은 현대국어의 ‘-어지다’형 구성이 중세의 ‘디다(落)’에서 기원한 것과 ‘지다(生)’에서 기원한 것 두 가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피동 보조동사 ‘지다’는 후자에서 비롯된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동 조동사 ‘-지다’의 중심적 의미는 상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sup>14)</sup>

조동사 ‘-지다’가 타동사에 첨가되면, 동사의 논항수(자리수)에 변화가 온다. 타동사의 목적어는 ‘-지다’ 합성 동사의 주어가 된다. 한국어의 거의 모든 타동사는 피동 조동사 ‘-지다’를 첨가함으로써 피동화 한다. 파생적 피동이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피동의 공백을 통사적 피동이 보충해 주는 것이다.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살펴볼 것과 같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조동사로서 ‘-지다’는 상태동사(형용사)나 자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데, 우선 형용사에 조동사 ‘-지다’가 결합된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상태동사

---

14) 이가동(Lee 1993:109-10)에서도 “피동 조동사 ‘-지다’는 본동사 ‘지다’와 원래는 같은 동사였을 터인데, 본동사 ‘지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이 여러 가지 쓰임에 공통된 의미는 상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 형용사에 조동사 ‘-지다’가 결합하면 아래 예문에서처럼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고 이 경우 술어의 논항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34) 가. 그 물이 많다.

나. 그 물이 많아진다.

(35) 가. 그 방이 따뜻하다.

나. 그 방이 따뜻해진다.

(36) 가. 날씨가 흐리다.

나. 날씨가 흐려진다.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상태동사에 ‘-지다’가 첨가되면, 시작의 의미(기동상)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조동사 ‘-지다’가 자동사와 결합하면, ‘가능’의 양태를 표시한다.<sup>15)</sup>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두 예문을 비교해 보자.

(37) 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서 잤다.

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서 자졌다.

(37나)는 많은 사람들이 방에서 잤다는 (37가)의 의미 이외에 화자가 생각하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그 방이 좁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화자는 그 방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비좁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수 있었다는 ‘가능’의 양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넓은’과 ‘좁은’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해 보면, 위에서 말한 함축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다음 문장을 보자.

---

15) 이와 관련하여 박제연(2007)은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자’가 ‘능력’과 ‘무의도’의 양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박제연(2007)은 Yeon(1994)에서 ‘-어자’가 가능성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자’의 양태적 성격을 고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37') 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방에서 자졌다.

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방에서 자졌다.

기능의 양태와 관련하여 (37'나)가 (37'가)보다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나)에서는 방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조동사 ‘-자다’가 함축하는 기능의 의미와 잘 맞아 들어간다. 그 반면 (가)에서는 방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는 데 어떤 어려움이나 기능의 양태 같은 것이 함축되지 않는다. (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능동 구문이 훨씬 자연스럽다.

(37'')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방에서 잤다.

다음과 같은 ‘-자다’ 구문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38) 가. 트럭이 빙판 위로 지나가졌다.

나. 함께 미니까 차가 움직여졌다.

(38가)는 빙판이 얇거나 약해서 트럭을 지탱하지 못하거나 트럭이 빙판 위에서 바퀴가 헛돌아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화자의 예측을 함축하는데, 사실은 그 사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나)에서도 차를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화자의 예측이 담겨 있으나 실제로 그 사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럼 이제 자동사의 통사적 피동형이 전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피동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로 하자.<sup>16)</sup> 다음 예문을 보자.

(39) 가. 요즘 바빠서, 극장에 잘 안 가진다.

나. 힘을 빼면, 몸이 물에 떠진다.

이런 유형의 구문들은 예문 (25-27)과 같이 ‘가능태’의 의미를 가진다. (39가)에서 주어는 문장 속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동사가 표

---

16) 삼재기(1982)는 이러한 ‘-어자다’의 기능을 의사피동화라고 보았다.

시하는 행위나 사태를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없는 비의도적 주어로 이해된다. 여기서 주어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가 마치 사태 구조의 피동주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자다’ 구문은 의도가 없는 상황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39나)의 구문도 사태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은 가능태를 표현하고 있다. 가능태라는 개념은 자연발생적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사에 ‘-자다’가 첨가되면, 사태가 자연발생적이거나 가능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동작주의 의미역할이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동작주가 사태에 대해서 갖는 의도성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다’ 구문은 피동태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따라서 문장 (39)는 주어가 의도성을 갖지 못하고 사태에 영향을 입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관점에서 피동태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피동문의 원형이론적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이 구문은 동작주가 탈초점화(defocused)했고, 피동문에서와 같은 형태론적 표지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동문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조동사 ‘-자다’가 타동사에 첨가되어 전형적인 통사적 피동문을 형성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 타동사의 목적어는 ‘-자다’ 합성동사의 주어가 된다. 즉 분석적 피동문의 문법관계 교체 행태는 파생적 피동의 그것과 같다.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차이는 4.3.에서 좀더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 (40) a. 영수가 나무로 집을 만들었다.  
b. 집이 나무로 만들어졌다.<sup>18)</sup>

17) 한편 유혜원(2000)은 [동작성]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어자다’의 기능과 피동화의 기능이 우연히 의미상으로 비슷한 영역에 있음으로 인하여 ‘-아/어자다’가 피동과도 관련을 맺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동사의 상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41) a. 영수가 쓰레기를 길에 버렸다.

b. 쓰레기가 길에 버려졌다.

타동사 ‘만들다’와 ‘버리다’는 파생피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석적 피동형이 사용된다. 행위자 명사구는 분석적 피동에서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위 예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파생적피동에서는 행위자 명사구가 ‘-에게’나 ‘-에 의해’로 표시되는데, 분석적 피동에서는 ‘-에 의해’로 표시된다. 이제 분석적 피동 구문이 함축하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 예문을 보자.

(42) a. 사람들이 강물을 막았다.

b. 강물이 막아졌다.

능동문 (42a)는 단순히 사람들이 강물을 막았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42b)는 강물을 막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의도된 행위였다는 화자의 가정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상의 함축이 조동사 ‘-지다’가 가지고 있는 가능태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는 파생적 피동과 분석적 피동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 더 확연하게 관찰할 수 있다. (42a)에서 타동사 ‘막다’는 ‘막히다’라는 파생피동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4.3.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동사 ‘-지다’는 모든 유형의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동사 및 타동사에 결합하는 ‘-지다’의 의미로 가능태라는 의미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지다’가 상태동사 즉 형용사와 결합하면 기동상(inchoative)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

18) 이 문장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집 자체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능동문 (a)에 대응하는 피동문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음 예는 전형적인 피동문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는 경우이다.

a. 영수가 숲에 집을 만들었다. ↔ b. 숲에 집이 만들어졌다.

경우에도 피동문과 의미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타동사와 결합된 분석적 피동형은 아주 생산적이고, 파생 피동형과 똑같은 문법관계 교체 현상을 보인다. 이제 파생적 피동과 분석적 피동의 차이에 대해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 4.3.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차이

전통적으로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은 의미가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둘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sup>19)</sup>. 다음에서 우리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의미차이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먼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가)는 파생적 피동이고 (나)는 통사적 피동의 예이다.

(43) 가. 하수구가 막혔다.

나. 하수구가 (드디어) 막아졌다.

(44) 가. 그 못이 뽑혔다.

나. 그 못이 (결국은) 뽑아졌다.

(43-44)에서와 같이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을 한 자리에서 대조시켜 보면 우리는 그 의미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즉 (가)에 있는 파생적 피동은 사태가 자발적 또는 우연히 일어난 경우를 표시한다. 그 사태는 계획되었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며, 행동주가 암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절로’ 같은 부사는 파생적 피동문과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지만, 통사적 피동문에 사용되면 어색해진다.

---

19)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이기동(Lee K 1987, 1993)을 참고할 것. 우리의 논의도 Lee(1993)을 많이 참고하였다.

- (43') a. 하수구가 저절로 막혔다.  
 b. ?하수구가 저절로 막아졌다.
- (44') a. 그 못이 저절로 뽑혔다.  
 b. ?그 못이 저절로 뽑아졌다.

통사적 피동문은 자발적이 아닌 사태를 표시하므로 ‘저절로’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이면 이상해지는 것이다<sup>20)</sup>. 통사적 피동은 숨어 있는 행동주에 의해서 계획되었거나 의도된 사태를 표시하며 그 사태가 발생하는 데는 파생적 피동에 비해 일정량의 어려움이 존재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43나)는 예를 들면, 숨어 있는 행위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수구가 막아졌고, 이 행위가 의도된 행위였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4나)도 마찬가지로 못을 뽑는 행위가 쉽지 않다는 암시와 결국 그것이 계획된 혹은 의도된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날씨의 변화와 같은 자연 현상, 우연한 지리적 환경이나, 인간 행위자가 관여하지 않은 자발적 사건 같은 것은 다음 예문에서처럼 파생적 피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45) a. 날씨가 풀렸다.  
 b. \*날씨가 풀어졌다.<sup>21)</sup>
- (46) a. 서울이 산으로 둘러 쌓였다.  
 b. \*서울이 산으로 둘러 쌓여졌다.

---

20)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성광수(1987)에서는 ‘-아/어지다’의 피동형을 접사 피동과 비교했을 때 직접 피동과는 구별되는 간접 피동으로 보고, ‘저절로’와의 공기관계가 ‘아/어지다’ 구문에서는 가능하지만 접사 피동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1) \*옷이 저절로 벗겼다.

(2) 옷이 저절로 벗어졌다.

이 경우는 좀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직관상 (2)는 여전히 ‘옷이 저절로 벗겨졌다’에 비하면 어색하고, (1)이 어색한 이유는 동사 ‘벗겼다’의 어휘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듯하다.

또한 지각현상(perception)과 같은 인지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에도 파생적 피동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지각현상은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고 의도가 있든 없든 보이고 들리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 (47) a. 큰 집이 보였다.  
b. ?큰 집이 보이졌다.

- (48) a. 피리 소리가 들렸다.  
b. ?피리 소리가 들어졌다.

위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듣는 지각행위는 파생적 피동으로 쓰이면 자연스럽지만, 통사적 피동은 이상하게 들린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사들도 의식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9) a. 내가 그 책을 두 시간 동안 보았다.  
b. 내가 그 소리를 열심히 들었다.

위 예문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동사가 의도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데 쓰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0)처럼 통사적 피동문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 (50) a. 그 책이 두 시간 동안 다 보이졌다.  
b. 그 음악은 짧아서 십 분 동안에 다 들어졌다.<sup>22)</sup>

이러한 통제할 수 있는 행위나 사태는 통사적 피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날씨가 자연현상, 지각행위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사태나 행위들이 파생적 피동으로 표현되었던 것과 대조되는 사실이다. (50)과 같은 통사적 피동의 경우에는 숨어 있는 행위자에 의해 그 사태가 의도되었고 그

---

21) 다만, ‘풀어지다’의 경우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풀이말로 그 용례를 확인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날씨가 풀어지다’, ‘날씨가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새순이 나기 시작했다’ 등. 그러나 필자에게는 ‘날씨가 풀렸다’에 비해서 ‘날씨가 풀어졌다’는 어색하게 들린다. 이런 해석상의 차이에 다른 요인에 관여하는지는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22) 물론 글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문장이지만 입말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결과를 성취하는 데 일정량의 어려움이 내재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통사적 피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태나 행위가 숨어 있는 행위자에게 바람직하거나 이로운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파생적 피동과는 대조되는 의미적 특성인데, 파생적 피동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이거나 우연히 발생한 사태를 표시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적 대조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자연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51) 가. 가시가 목에 걸렸다.

나. ?가시가 목에 걸어졌다.

(51가)의 파생적 피동은 자연스럽지만, (51나)의 통사적 피동은 부자연스럽다. 통사적 피동은 그 사태가 숨어 있는 행위자가 의도했거나 행위자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51나)와 같이 의도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묘사하기에는 부자연스럽다. 다시 말해, 아무도 가시가 목에 걸리기를 바라거나 의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통사적 피동을 사용한 (51나)가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52) 밧줄이 높은 나무에 걸어졌다.

통사적 피동 (52)는 밧줄을 높은 나무에 거는 것이 숨어 있는 행위자에 의해 여러 번 시도되었고 그것이 행위자가 원하는 행위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행위자에게 바람직한 행위일 것도 아울러 암시되고 있다. 다음 예문 (53)의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차이도 사태의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53) 가. 산사태가 나서 강물이 막혔다.

나. 일 년 동안의 공사로 강물이 드디어 막아졌다.

(53가)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강물이 막혔는데, 그것이 불리한(혹은 적어도 중립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데 반해, (53나)는 강물

을 막은 것이 의도되고 계획된 오랫동안의 공사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이루어진 사태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의미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파생적 피동은 행위자가 보통 암시되지 않으면서<sup>23)</sup> 자발적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통사적 피동은 행위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도 숨어 있는 행위자가 암시되며, 비자발적 사태, 즉 행위자에게 바람직한 사태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일어난 경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 4.4. 결과피동

피동문은 그것이 상태를 표시하는가 행위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상태(결과) 피동(state passives or resultatives)과 과정피동(process passives)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의미적 기준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결과태와 피동태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결과의 의미와 피동의 의미를 포함하는 결과과동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결과태’ 혹은 ‘결과상’이라는 말은 그 이전의 사태까지를 암시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따라서 ‘상태’와 ‘결과’라는 말의 차이는 네잘코프와 야혼토프(Nedjalkov and Jaxontov 1988: 6)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상태란 어떤 사건의 이전 상태를 암시하지 않고 현재 상태만을 표현하는 것임에 비하여 결과는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초래한 이전 행위까지를 표현하는 것이다.”<sup>24)</sup>

23) 우리는 이 장에서 주로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켰다. 물론 파생적피동에서도 행위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자발적 자연적 의미 해석이 사라지고 과정피동의 의미가 생긴다.

24) The stative expresses a state of a thing without any implication of its origin,

결과태는 원칙적으로 피동태와 다르다. 어떤 언어에서는 결과태와 피동태가 서로 다른 동사 형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동사의 결과태는 전형적으로 그 타동사의 피동작주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 피동작주는 결과태 구문의 주어로 나타나고, 동작주는 삭제된다는 점에서 피동태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범언어적으로 결과태는 독자적인 동사형태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범주와 같은 동사형태를 공유하기도 한다. 결과태가 다른 범주와 형태를 공유하는 예로 피동태와 결과태가 같은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네잘코프와 야혼토프(Nedjalkov and Jaxontov 1988: 47)에 따르면, 러시아어, 아랍어, 영어, 불어, 리투아니아어, 에벤키어 등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다음 영어와 독일어의 예문을 비교해 보자. 독일어에서는 피동태와 결과태의 형태가 다른 반면에, 영어에서는 똑같은 동사형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4) a. When I came at five, the door was shut, but I do not know when it was shut.

b. Als ich um fuenf kam, war die Tuer geschlossen (resultative), aber ich weiss nicht, wann sie geschlossen wurde (past passive).

한국어에서도 결과태와 피동태는 다른 동사형태를 사용한다. 한국어에서 결과태는 조동사 ‘-어 있다’에 의해 실현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55) 가. 영수가 앉아 있다.

나. 영수가 누워 있다.

결과 조동사 ‘있다’는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동사가 제약되어 있다. (56-57)을 보면, 어떤 자동사는 결과 조동사와 같이 쓰일 수 있는 반면, 어떤 자동사

---

while the resultative expresses both a state and the preceding action it has resulted from.

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6) 가. 영수가 깨어 있다.

나. \*영수가 자 있다.

(57) 가. 해가 떠 있다.

나. \*해가 움직여 있다.

위 예문에 쓰인 동사들은 모두 행위 과정을 표시한다. 그러나 과정의 끝점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하위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끝점을 가진 과정을 표시하는 동사를 ‘완성(accomplishment) 동사’라 하고 끝점이 없는 과정을 표시하는 동사를 ‘행위(activity) 동사’라 한다(cf. Lee 1993, Levin 1993). 동사 ‘깨다’와 ‘자다’를 비교해 보면 동사 ‘깨다’는 결과태에 나타날 수 있지만 동사 ‘자다’는 나타날 수 없다. ‘깨다’라는 동사가 결과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 동사가 ‘잠’으로부터 ‘깨’으로 변화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깨는 순간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 이 시점에서 새로운 상태가 시작하는 것이다. ‘자다’라는 동사는 결과태에 나타날 수 없는데 이것은 이 동사가 어떤 변화나 끝점이 없는 지속적인 과정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아래에 자동사의 두 가지 부류를 분류해 보았다. (58가)는 끝점이 있는 자동사로 결과태에 사용될 수 있고 (58나)는 끝점이 없는 자동사로 결과태에 사용될 수 없다.

(58) 가. 끝점이 있는 동사

1) 위치의 변화: 앓다, 서다, 눕다, 일어나다, 구부리다 등.

2) 상태의 변화: 펴다, 낮다, 크다, 지치다, 부풀다 등.

나. 끝점이 없는 동사

웃다, 울다, 졸다, 놀다, 쉬다, 일하다, 떠들다 등.

보통 피동태와 결과태의 공통점은 피동 주어가 비행동적이고 피동작주가 주어자리에 온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행위성 타동사는 결과태에 사용



될 수 없는 반면 타동사의 피동형은 결과태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태라는 범주가 화자의 관점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능동문에서는 능동자가 화자의 관점이고 피동문에서는 수동자가 화자의 관점이다.

(59) 가. \*영수가 문을 닫아 있다.

나. 문이 닫혀 있다.

(59나)와 같이 피동과 결과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피동 결과태라고 부를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피동 결과태와 과정피동 사이의 의미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60) 가. 문이 열려 있다.

나. 문이 열린다.

다. 순이가 문을 연다.

(60가)는 결과피동이고 (60나)는 과정피동 (60다)는 능동문이다. (60가)는 누군가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그리고 (60나)는 문이 열리고 있는 과정을 표현한다. 즉 결과피동은 피행위자의 관점에서 그것의 결과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고, 피동문은 숨어 있는 행위자에 의해 야기된 사건의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결과피동에서는 행위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결과피동에서는 행위자 명사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5)</sup>. 다음 예문이 이것을 보여준다.

---

25) 본래 ‘행위주에게’는 과정 피동문과도 일반적으로 공기하지 못하며, ‘행위주에 의해’는 과정 피동문에서는 가능하지만, 결과피동문에서는 어색하다. 그러나 다음 (ㄷ), (ㄹ)의 예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

ㄱ. \*영수에게 문이 열린다.

ㄴ. 영수에 의해 문이 열린다.

ㄷ. ?\*영수에 의해 문이 열려 있다.

ㄹ. 앞서 나간 사람들에게 의해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ㅁ. 아이가 엄마에게 안겨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홍규(2010)에서는 아래 (ㄱ)과 (ㄴ)의 문법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

(61) \*?영수에게/에 의해 문이 열려 있다.

영어를 포함한 많은 언어에서 ‘by’로 표시되는 행위자 명사구는 결과피동 구문에서는 쓰이지 못한다. 그 반면에 ‘thanks to’, ‘due to’, 나 ‘on account of’ 와 같은 전치사구를 이용해서 행위자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Croft 1991:248). 이것도 결과피동에서는 행위자 명사구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이다.

결과피동뿐만 아니라, 과정피동문에서도 범언어적으로 행위자 명사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명시적으로 행위자를 표시해 줄 수도 있지만, 행위자 명사구 없는 피동문이 통계적으로 훨씬 많다. 기본(Givón 1979: 58)은 문장 사용 빈도에 있어 피동문이 능동문에 비해 훨씬 적게 사용되고(4-18%), 피동문 중에서도 행위자 명사구 없는 피동문이 피동문 전체의 70-9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시바타니(Shibatani 1985: 831)도 영어에서 약 80%의 피동문이 행위자 명사구 없는 피동문이고, 일본어 신문 잡지에서는 70-80%가, 일본 소설에서는 60-70%가 행위자 없는 피동문이라고 하였다.

한국어에서도 행위자 명사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위자 명사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다. 더욱이 행위자 명사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62) 가. 영수가 실을 감았다.

나. 실이 (\*영수에게) 감겼다.

(62나)에서는 피동문에 행위자가 나타날 수 없다. 만일 ‘-에게’ 명사구가 피동문에 나타나면 이것은 행위자가 아니라 처소 명사구로 해석된다(Lee

---

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ㄴ)의 경우는 논항구조에서 행동주 논항이 억제되는 것이지만, (ㄱ)의 경우에는 사건 구조에서 행위 부분이 절단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ㄱ. 줄이 풀려 있다.

ㄴ. \*줄이 철수에 의해 풀려 있다.

1993).

(62) 다. 실이 영수에게 감겼다.

어떤 양태 부사들은 의도성이 있는 행위자 주어가 있는 능동문에서는 사용 되는 반면, 대응하는 피동문에서는 사용되지 못한다. 이것은 주어가 의도성이 나 행위성이 없는 피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63) 가. 영수가 실을 부지런히 감았다.

나. ?실이 부지런히 감기었다.

(64) 가. 영수가 열심히 못을 박았다.

나. ?못이 열심히 박혔다.

위 예문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등은 의도성 행위성 주어와 함께 쓰일 수 있는 의도성 부사이다. 이것은 보통 주어의 의도나 행위를 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문 (나)에서 주어는 의도성이나 행위성이 없는 수동자 주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동문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한국어의 피동문도 보통 행위자 명사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인물명사가 아닌 행위자 명사구(예를 들면, 자연현상이나, 천체, 또는 기계 등)는 피동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행위자 명사구가 인물명사가 아닌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자 (N-K. Kim 1991: 40-41).

(65) 가. 바람에 (의해) 문이 열렸다.

나. \*바람이 문을 열었다.

(66) 가. \*영수에 의해 문이 열렸다.

나. 영수가 문을 열었다.

(65가)와 (66가)는 비인물 행위자 명사구만이 피동문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능동문인 (65나)와 (66나)에서는 인물명사 행위자만이 자

연스럽다. 이것은 한국어의 주어자리에 오는 명사구가 유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우리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sup>26)</sup>

#### 4.5. 한국어 피동문의 탈행동적 의미 특성

한국어의 피동문은 보통 탈행동적인 의미 특성을 보인다. 하스펠마쓰(Haspelmath 1990: 26)도 피동문의 기본적 의미 특성이 동사가 표현하는 사태를 탈행동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동이 탈행동성, 비행동성 혹은 상황의존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이익섭, 임홍빈 1983: 202).

- (67) 가. 철수는 못이 옷에 걸렸다.  
나. 영수는 손에 못이 박혔다.  
다. 날씨가 풀렸다.

(67가)는 ‘철수가 옷을 걸었다’는 표현과는 그 의미의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67가)는 흔히 ‘철수’가 조심성이 없어서 옷이 못에 걸리게 되었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태의 책임이 철수의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67나)도 ‘못’이 ‘굳은 살’을 뜻하는 경우 ‘영수가 손에 못을 박았다’를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어의 피동은 상황 의존성이나 비행동성의 표현을 그 주된 의미특성으로 가진다고 할 것이다. 피동화의 핵심은 능동 주어의 주어자리 이탈과 능동사의 피동사화이다. 능동문의 주어가 그 행동주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주어의 자리를 떠남으로써 피동에는 행동성보다는 비행동성이 강해지는 것이다.

26) 사건 구조에 참여하는 두 논항이 모두 무정명사일 경우에는 물론 능동과 피동에서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구가 비교적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다 (5절: 주어 선택 제약과 유정성의 관계 참고)

ㄱ.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ㄴ.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 5. 능동, 피동의 선택: 주어 선택 제약과 유정성의 관계<sup>27)</sup>

한국어에서는 유정성의 정도가 피동문의 주어화 절차의 제약조건으로 사용 되는 예가 있는데, 유정성의 정도 차이라는 의미 자질이 유형론적으로 여러 언어에서 중요한 형태-통사 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sup>28)</sup>

한국어 문형 구조에서도 유정성의 정도는 어떤 명사구 논항이 주어 위치에 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즉 국어 문장에서 두 개의 명사구 논항이 명시적으로 표시될 경우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보통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sup>29)</sup> 다음 예문을 보자.

(68) 가. \*칼이 민호를 찔렀다.

나. 민호가 칼에 찔렸다.

(69) 가. \*돌이 나를 찼다.

나. 내가 돌에 차였다.

(70) 가. \*시간이 나를 쫓는다.

나. 내가 시간에 쫓긴다.

문장 내에 두 개의 명사구 논항이 존재할 경우, 위 예문에서처럼 그 중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가)의 문장도 은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70나)가 (가)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런

---

27) 이 부분의 논의는 Klaiman(1984, 1988)의 논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28) 유정성의 정도에 따라 문장 성분들이 각기 다른 격표지를 취하거나 상이한 문법행태를 보이는 경우들의 예를 Comrie(1981, 1989: Ch. 9)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예시하고 있다. 또 잘 알려진 것처럼 후기 중세국어에서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소유격이 형태론적으로 서로 다르게 표시되었다는 것도 유정성 자질이 문법 형태 구조에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9) Klaiman(1988)은 한국어에서 기본적으로 유정성(Animacy)의 정도가 주어의 선택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능동문과 피동문의 선택이 주어 명사구의 유정성 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점에서 본다면, 피동태는 영향을 입는 명사구 혹은 수동자 명사구가 주어 명사구보다 유정성의 정도가 높을 때 사용되는 태의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예문에서처럼, 두 명사구의 유정성 정도가 같거나 비슷할 때에는 능동, 피동의 두 구문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71) 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나.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72) 가. 저 사람이 그 아이를 쫓는다.

나. 그 아이가 저 사람에게 쫓긴다.

한국어에서 능동문과 피동문의 선택은 두 명사구 논항 중에서 어느 것이 사태를 통제하는 힘을 가졌는가에 좌우되는 것 같다(cf. Klaiman(1984, 1988)). 즉 통제성을 많이 가진 명사구가 주어자리에 오고 통제성이 적은 명사구가 목적어자리에 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68)-(70)에서처럼, 수동자가 유정성이 더 높아서 잠재적인 통제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경우 피동태가 선택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또 (71)-(72)처럼 수동자의 통제력이 능동자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슷하거나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경우 능동문뿐만 아니라 피동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통제성이라는 개념은 유정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므로 결국 한국어의 태의 선택은 유정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다음 예문에서는 행위자 명사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피동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피동문의 주어자리에 온 명사구가 유정성 혹은 통제성의 측면에서 명시적으로 표시된 행위자 명사구보다 더 약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73) 가. 영수가 가방을 잡었다.

나. \*가방이 영수에게 잡혔다.

(74) 가. 남자가 공을 쫓는다.

나. \*공이 남자에게 쫓긴다.

(가)처럼, 유정성이 더 높은 ‘영수’나 ‘남자’가 주어자리에 온 능동문 구성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사태 통제력이 더 강한 것으로 인식된다. 똑같이 유정성이 낮은 두 개의 비인물명사구가 사용된 예문 (75)에서는 능동이나 피동이 똑같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75) 가. 그 택시가 저 차를 쫓고 있다.

나. 저 차가 그 택시에 쫓기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유정성이 낮은 비인물 기계 명사 ‘차’가 인물명사 ‘사람’보다 유정성은 낮지만 통제력이란 측면에서 높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능동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76) 가. 그 차가 사람을 받았다.

나. 사람이 그 차에 받혔다.

예문 (76가)에서 목적어 명사구는 주어 명사구보다 유정성이 높다. 이것은 우리의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태 통제력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은 움직이는 ‘차’에 비해서 통제력이 낮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둘 다 유정명사이면서 유정성의 정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두 개의 명사구가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클라이만(Klaiman, 1988)은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유정명사일 경우에는 둘 중 더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주어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다음 예문 (77 가, 나)가 모두 문법적이지만, 유정성이 조금 더 높은 ‘아기’가 주어자리에 온 피동문 (나)가 더 선호된다고 주장한다.

(77) 가. 개가 아기를 물었다.

나. 아기가 개에게 물렸다.

그러나 ‘개’와 ‘아기’처럼 유정성의 정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위의 경우에는 두 문장 사이에 선호도가 그리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좀더 유정성의 정도가 큰 경우라야 이러한 차이가 관찰되는 것 같다.

(78) 가. 모기가 영수를 물었다.

나. 영수가 모기한테 물렸다.

위의 경우에는 (가)보다는 (나)가 선호되는 느낌을 좀더 뚜렷하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명사구 사이에 뚜렷하게 인지할 만한 유정성의 정도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부정명사는 피동 구문의 주어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행위자 명사구가 명시적으로 문장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부정명사도 (79)처럼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정명사는 행위자 없는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나올 수 있다. 다음 예문의 (나)와 (다)를 비교해 보라.

(79) 가. 그 남자가 그 판을 굽었다.

나. \*그 판이 그 남자에게 굽혔다.

다. 그 판이 (많이) 굽혔다.

(나)처럼 행위자 ‘그 남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부정명사가 주어로 쓰인 피동문은 어색하다. 그렇지만, (다)처럼 행위자 명사구가 명시되지 않아 문장 안에 부정명사 주어보다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정명사도 피동문에서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능동자나 수동자 논항이 사태 구조 속에서 얼마만한 통제력을 갖느냐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통제 가능한 사건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80) 가. (갑자기) 민호가 큰 짐승을 보았다.

나. (갑자기) 민호에게 큰 짐승이 보였다.

(81) 가. 밤마다 순이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나. 밤마다 순이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위에서 능동자 명사구가 유정명사이거나 혹은 유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동자 명사구가 무정명사이거나 유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피동문보다 능동문이 선택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능동자와 수동자가 명시적으로 표시될 경우, 피동문에서 무정명사 주어가 오는 것은 어색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예문 (80-81)은 우리의 가정에 어긋나는 예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예문에 나온 ‘보다’나 ‘듣다’와 같은 지각동사는 누가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사태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각행위는 통제 불가능한 행위로서 두 명사구 논항 사이의 통제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예들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능동이나 피동의 태의 선택을 논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 (가), (나)의 예문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유정성이나 상대적 통제력의 개념이 능동, 피동이라는 태의 선택이나 주어의 자질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았다. 능동자와 수동자 모두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문장에서는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고, 능동자가 수동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태에 대한 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면 능동태가, 그리고 수동자가 상대적으로 통제력이 더 강한 것으로 인식되면 피동태가 선택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유정 행위 명사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피동문에서 무정명사 주어가 나타나는 것은 어색하지만, 행위자 명사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피동문에서는 무정명사도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어의 태와 주어의 선택 제약으로 유정성과 상대적인 통제력이라고 하는 인지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6. 유형론적 일반화: 인지 개념과 문법행태

다른 나라 말에서도 어떤 명사구가 주어자리에 오는가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데, 구노(Kuno 1973: 30)는 일본어에서도 타동사는 일반적으로 유정명사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은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는 용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고 하였다.

(82) a. \*taihuu                      ga      mado      o      kawasita.  
          typhoon                      Nom   window   Acc   broke  
          “The typhoon broke the window.”

      b. \*zidoosya-ziko              ga      teenager      o      korosita.  
          Nomtraffic accident      Nom   teenager      Acc   killed  
          “A traffic accident killed the teenager.”

따라서 한국어에서나 일본어에서는 능동문이나 피동문의 선택이 대체로 주어, 목적어 명사구 논항의 상대적 유정성 정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정성 위계라는 것이 제안되었는데(Silverstein 1976), 이것은 능동, 피동 구성 뿐 아니라 문장 구성의 선택이 유정성 위계상,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주어 위치를 차지하는 문장 구성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덕슨(Dixon 1979:85)도 이와 비슷한 개념의 행위주 가능성(potentiality of agency)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st person pronoun > 2nd person pronoun > Demonstrative > 3rd person pronoun > Proper nouns > Human common nouns > Animate common nouns > Inanimate common nouns

결국 실버스타인(Silverstein, 1976)이나 딕슨(Dixon, 1979)의 위계는 거의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유정성의 차이가 유정 대 무정의 단순한 정도 차이가 아니라 인칭과 같은 정밀한 차이도 문법행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Quiche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Palmer 1994:30-1).

- (83) \*s-kun-as            le yawap            w-umal  
 Past-cure-Pass    the sick one       1Sg+Poss-by  
 “The sick one was cured by me.”

(83)은 3인칭이 주어자리에 온 피동문인데, 이것이 비문이 되는 이유는 1인칭 대명사가 유정성 위계상으로 더 상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자리에 와야 한다는 제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인칭의 차이가 문법행태상의 차이로 반영되는 또 다른 예를 Southern Tiwa<sup>30)</sup> (Comrie 1981: 185-6)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언어에서는 3인칭과 비3인칭(1/2인칭)이 대립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타동문 구성에서 주어자리 논항이 1인칭이나 2인칭으로 목적어 자리 논항보다 유정성이 높거나 같으면, 반드시 능동문 구성이 선택되고 인칭 일치 접두사가 동사구에 표시된다.

- (84) Bey            -mu-ban  
 2Sg-1Sg    see Past  
 “You saw me.”

그러나 목적어자리 논항이 1인칭이나 2인칭이고 주어자리 논항이 3인칭으로, 목적어자리 논항이 주어자리 논항보다 유정성이 높으면, 반드시 피동문

30) Southern Tiwa는 멕시코의 아리조나와 그 인근 지역에서 사용되는 Tanoan어이다.

구성이 선택되어 유정성이 높은 목적어자리 논항을 주어자리로 보낸다.

- (85) Seuanide-ba te -mu-che-ban  
man-Inst 1Sg see-Pass-Past

“The man saw me; literally: I was seen by the man.”

주어자리 논항과 목적어자리 논항이 모두 3인칭인 경우에는 능동문이나  
피동문이 모두 자연스럽게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다(Comrie 1981:186). 지  
금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유정성의 정도라는 자질은, 언어에 따라  
‘인물명사 대 비인물명사’의 대립에서부터 실버스타인이나 디슨(Dixon) 류의  
정밀한 인칭 및 유/무정 대립, 그리고 Tiwa말에서처럼 ‘3인칭 대 비3인칭’의  
대립 등 다양한 대립의 양상이 문법구조에 반영되는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정성의 정도라는 자질은 문법행태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법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정성이라는  
개념이 관계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에서는 유정물 목적  
어만이 전치사 ‘a’를 취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간접목적어 명사를 가리킨  
다 (Palmer 1994: 36).

- (86) a. Ha presentado su amigo a su madre  
have+3Sg introduced his friend to his mother  
“He has introduced his friend to his mother.”

- b. Ha comprado un nuevo libro.  
have+3Sg bought a new book  
“He has bought a new book.”

- c. Ha comprado a un nuevo caballo.  
have+3Sg bought to a new horse  
“He has bought a new horse.”

(86a)에서는 목적보어가 둘 다 유정명사인데 간접목적어 성분에 전치사

‘a’가 선행하고 있고, (86b)와 (86c)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직접목적어인데 유정명사일 경우에만 전치사 ‘a’가 선행하고 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유정성의 정도가 문법행태의 차이에 관여하는 또 다른 예도 있다. 여격 표지 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갖는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직접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지 못하고, 여격 표지 목적어만이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거의 예외없이 여격 표지 목적어는 인물명사이고 직접목적어는 무정명사이기 때문이다.

기능-유형 문법에서는 전형성(prototype)이라는 개념과 정도(degree)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피동 구문이라고 하더라도 전형적 피동 구문이 있을 수 있고 덜 전형적이지만 피동 구문의 특성을 가지는 구문 등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문법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있고 없음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체(continuum)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자질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정도 차이라는 개념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 개념이 관여하는 또 다른 영역이, 위에서 논의한 유정성이나 통제성의 개념이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문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모습이다.

자연언어에서 ‘통제’라는 인식론적 개념을 문법화 해 주는 기제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제’라는 개념이 문법현상에 반영되는 예로서, 한편으로는 주어의 통제성 여부에 따라 또 한편으로는 피사역주

---

31) 물론 상황이 이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비록 유정명사라 하더라도, 비지시적 유정물(non-specific animates)인 경우에는 다음 예처럼 전치사가 선행하지 않는다.

Busco una criada.  
look for+1Sg a maid  
“I am looking for a maid.”

그러나 특정 인물을 찾고 있을 경우에는 전치사를 동반하여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Busco a una criada

(causee)의 통제성 여부에 따라 주어나 피사역주가 문법적으로 달리 표현되는 예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연재훈 2002, Comrie 1981/1989 참고). 넓게 보면, 능동이나 피동이라는 태의 선택도 ‘통제성’이라는 변수가 문법에 반영되는 또 다른 예라고 생각할 수 있다.

## 7. 마무리

우리는 지금까지 유형론적 관점에서 피동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한국어 피동문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피동문을 대응하는 능동문에서도 출되는 것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비인칭 피동문을 비롯한 예외적 피동문을 설명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언어 유형론적으로 다양한 피동 구문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으로 원형이론적(전형적)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피동 구문이라고 하더라도 전형적 피동 구문이 있을 수 있고 덜 전형적이지만 피동 구문의 특성을 가지는 구문 등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문법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있고 없음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체(continuum)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자질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정도 차이라는 개념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전형적 접근방법은 범언어적으로 ‘피동문’이라고 기술되어 온 매우 다양한 구문들을 피동문의 범주에 포괄할 수 있게 해 주고, 전형적 피동문과 유사피동문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피동문이 재귀구문이나 상호구문, 자발 구문, 가능구문 등과 공유하는 상관성을 의미적 공통성이나 행위주의 하강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한국어 파생적 피동문의 일부가 자발적 사건의 의미를, 그리고 통사적 피동문의 일부가 가능의 의미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피동문의 유형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파생적 피동과 분석적 피동의 차이와 그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피동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조동사 ‘-지다’는 모든 유형의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자동사 및 타동사에 결합하는 ‘-지다’의 의미로 가능의 의미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다’가 상태동사 즉 형용사와 결합하면 기동상(inchoative)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피동문과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타동사와 결합된 분석적 피동형은 아주 생산적이고, 파생 피동형과 똑같은 문법관계 교체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능피동구문

중립동사 구문

주격중출 구문

상호 구문

심리동사구문

수어동사 구문

소유 구문

신체부위명사구문

처소교체구문

관계절

사동문

피동문

격표지 유형론

여격주어구문

소유주 상응 대격 중출 구문



## 6장

---

### 피동·사동의 상관성과 목적어 있는 피동문

#### 1. 머리말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법과 피동법은 동일한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해 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들은 사동적인 해석과 피동적인 해석 사이에 중의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의성이 발생하는 피동사의 목록은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장석진(Chang 1996: 111)에서는 피사동의 형태가 동일한 동사들을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Janus-faced) 동사’라고 불렀고, 양동휘(Yang 1979)에서는 피사동 형태가 동일한 동사의 숫자가 약 34개 정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실제로 피사동 구문 사이의 중의성을 야기하는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동사의 예는 열 손가락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피사동 중의성에 대한 문법성 판단도 화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의성은 일차적으로는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의 신체부위명사나 소유물일 경우에 국한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피동문 해석은 보통 주어가 불리한 영향을 입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문을 ‘피해피동문’(adversative passiv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hibatani 1988). 우선 다음 예문을 보자.

(1) 할머니가 손자에게 허리를 밟히었다.<sup>1)</sup>

가. Grandmother made her grandson walk on her back(to relieve the back pain).

나. Grandmother got her back stepped on by her grandson(accidentally, when she was playing with him on the floor).

이 구문은 주어가 유리하게 영향을 입는 것으로 해석되느냐 불리하게 영향을 입는 것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사동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피동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할머니가 허리의 통증을 낮게 하려고 손자로 하여금 허리를 밟도록 한 경우라면 (가)와 같은 사동문 해석이 될 것이고, 할머니가 손자와 같이 마루에서 놀다가 실수로 혹은 손자가 버릇이 없는 녀석이라서 일부러 할머니의 허리를 밟은 경우라면 (나)와 같은 피동문 해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중의적 해석은 의미-화용상의 문제이고 형태적 구조는 (1')에서 보는 것처럼 사동과 피동의 해석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1') [X-Nom Y-Dat X'-Acc Vtr-i- ]

그리고 당연히 해석상의 중의성은 문맥 상황에 의해 해결된다. 이제 좀더 예문들을 관찰해 보기로 하고 먼저 다음 예문을 보자.

(2) 영수가 교련 선생에게 머리를 깎였다.

위 예문도 동사 형태만 보면 사동과 피동 사이의 중의적 해석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영수가 학생으로서, 선생으로 하여금 자기 머리를 깎도록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언어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한국어 화자는 '교련 선생'이라는 위치가 종종 학생 지도를 하면서 학생의 두발을 강제로 단속했던 유쾌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

1) 이 문장이 현대 한국어에서 사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도 화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민중국어사전'은 '밟히다'의 사동사적 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밟히다'를 사동사가 아닌 피동사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장이 피사동 사이의 중의성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에 있다.

예문 (2)는 피동문으로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는 ‘피해피동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피해피동문의 논항 의미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X-Nom	Y-Dat	X'-Acc	Vtr-i- ],
	where X:	Y:	X':	
	affected entity	agent,	Possession or body-part of X. <sup>2)</sup>	

이제 이 구문을 사동의 의미만을 갖는 다음 구문과 비교해 보자.

(4) 선생님이 영수에게 책을 읽혔다.

사동 구문은 다음과 같은 논항 의미구조를 갖는다.

(5)	[X-Nom	Y-Dat	Z-Acc	Vtr-i- ]
	where X: causer	Y: causee	Z: affected entity	

형태론적으로는 피해피동의 구조는 사동문의 구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의미론적으로 피해피동은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사동문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밑에서도 논의되겠지만 피해피동 구문의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는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에서 나타나는 ‘인지적근접성’(cognitive contiguity)이라는 제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피동 구문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입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의미에서 ‘피해피동 구문’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 반면 사동 구문은 사역주가 피사역주에게 행위를 시키는 사건 구조이므로 그러한 의미상의 제약이 없다. 따라서 사동문과 피해피동 구문 사이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의미론적인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2) X'의 의미 제약은 잠정적으로 소유물이나 신체부위명사로 표시해 둔다.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이 제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 2. 피사동 상관성에 대한 유형론적 보편성

범언어적으로 꽤 많은 언어에서 사동과 피동 구문이 동일한 형태론적 방법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언어 유형론 연구에서도 사동과 피동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다<sup>3)</sup>.

네잘코프와 실니스키(Nedyalkov and Silnitsky, 1973:21), 하스펠마스(Haspelmath, 1990:48) 등에 따르면, 만주어에서 접미사 ‘-bu-’는 사동과 피동 형태소로 사용되는데, 형태소 ‘-bu-’는 기원적으로 ‘give’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에 소급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6) Manchu (data from Nedyalkov and Silnitsky(1973: 21))

a. Bi gele-xe.

I frightened-Past

“I was/became frightened.”

b. Bi inde gele-bu-xe.

I him-Dat frightened-Caus/Pass-Past

“I was frightened by him.” or “I allowed him to frighten(me).”

c. Bi imbe gele-bu-xe.

I him-Acc frightened-Caus/Pass-Past

“I made him be frightened.”

사동문의 피동적 의미는 사동문에 직접목적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동의 행위가 주어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Nedyalkov and Silnitsky (1973: 20)는 가정하고 있다.

---

3) Nedyalkov and Silnitsky(1973:20-23), Shibatani(1985:840), Keenan(1985:262ff), Haspelmath(1990:46ff), Andersen(1991:76ff), Shimamori(1991), Knott(1985) 등의 연구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Yeon(2005)을 참고할 것.

또 어윙키어에서 피동 접미사는 -w-/-p-/-b-/-mu-인데, 이 접미사는 사동 접미사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어윙키어와 함께 북통구스 제어에 속하는 에벤어(Even)에서도 동일한 접미사가 피동과 사동에 모두 사용된다(Knott 1988). 중국어와 언어 접촉이 많았던 만주-통구스 어족의 여러 언어들에서는 피동과 사동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 표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cf. Hashimoto 1988:345).

	Passive	Causative
<b>Written Manchu</b>	-bu-/-mbu-	-bu-/-mbu-
<b>Fuyu Manchu</b>	-bu-	-bu-
<b>Sibe</b>	-ve-	-ve-
<b>Monguor</b>	-lGa-	-lGa-
<b>Dongxiang</b>	-Va-	-Va-
<b>Evenki</b>	-w-/-p-/-b-/-mu-	w-/-p-/-b-/-mu-

중국어의 피동은 ‘bei’로 표시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동 표지인 ‘jiao’(to cause, to let), ‘rang’(to allow, to let), ‘gei’(to give)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피동을 표시하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한다(Hashimoto 1988:348).

(7) Chinese (data from Haspelmath(1990:48))

Lisi    gei    Zhangsan    kanjian-le.

Lisi    give    Zhangsan    see-Perf.

“Lisi was seen by Zhangsan.”(Lit. “Lisi gave Zhangsan see him).”

또 그린랜드 원주민 이누이트어(Inuit)에서는 사동 접사가 3인칭 표지와 함께 사용되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Haspelmath 1990:48). 다음 예문이 그것을 보여준다.

(8) Greenlandic Inuit:

Qimmi-mut

dog-Allative

kii-sip-puq.

bite-Caus-3Sg.Indic.

“He got bitten by a dog.”

구자라티어(Gujarati)의 피동 접사는 ‘-aa’인데, 이것은 힌다-우르두어(Hindi-Urdu)에서는 사동 접사로 사용된다(Masica 1976: 65). 그 밖에 헝가리어(Dezso 1988: 306, 316ff), 핀란드어(Andersen 1991) 등에서도 피사동 형태의 연관성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키난(Keenan, 1985: 263)은 영어에서도 피동과 사동이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get’ 피동문이 피동의 의미를 갖는 것은 사동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9) a. John got Bill fired(Causative).
- b. John got himself fired(Causative-reflexive).
- c. John got fired(Passive).
- d. The window got broken(Passive).

(a)는 주어가 사동주이고 목적어가 피사역주인 사동문임에 반하여, (b)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따라서 (b)의 주어는 사동주인 동시에 영향을 입는 대상(affected entity)이다. 의미적으로 (b)는 주어 자신이 동사의 행위에 영향을 입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피동적인 의미를 갖는다. (c)에서는 재귀대명사 목적어가 생략됨으로써 주어가 사동주가 아니라 주어 자신이 피동작주로서의 의미 해석을 받게 된다. (d)는 무생물 피동 주어가 사용된 전형적인 피동문이다. 하스펠마쓰(Haspelmath 1990)도 다음과 같은 영어 예문을 통해 사동에서 피동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사동 형태가 재귀-사동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어떻게 피동의 의미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 (10) a. I have the barber shave me(causative).
- b. I have myself shaved by the barber(reflexive-causative).
- c. I am shaved by the barber(passive).

하스펠마쓰에 따르면, 사동 형태가 재귀-사동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피동의 의미와 관련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c)가 재귀-사동인 (b)와 다른 점은 재귀대명사 목적어가 생략되었다는 점인데, 이 과정을 거쳐서 (c)의 주어는 피영향자(affected entity)가 되어 피동의 주어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앤더슨 (Andersen 1991)은 하스펠마쓰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영어의 사동과 피동의 형태는 ‘have ... shave, have ... shaved, am shaved’에서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구별이 되므로 영어 예문을 가지고 사동과 피동의 관련성을 예증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동의 형태론이 재귀-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것을 주장하려면 동일한 사동형태가 사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재귀-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의 동사형태가 정확한 사동-피동의 연관성을 보여 주기에 부적절한 예문이라는 앤더슨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난이나 하스펠마쓰 같은 학자들이 보여 주고자 했던 점은 의미 유형론적으로 사동문에서 재귀-사동의 단계를 거쳐 피동문으로의 변화 발전이 충분히 보편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범언어적 자료들은 사동에서 피동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동사 형태론에서 정확한 일치를 보여주는 한국어의 예로 이 점을 예증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1) a. 순이가 영수에게 아기를 안겼다.  
       b. 순이가 영수에게 자기 몸을 안겼다.  
       c. 순이가 영수에게 안겼다.

이 한국어 예문은 사동형태가 어떻게 피동형태와 관련을 맺는지 보여주는 예문이다. (a)의 주어는 사동주로서 사동행위에 의해 영향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b)의 주어는 사동주인 동시에 사동 사건에 의해 영향을 입는 피영향자(affected entity)이다. 직접목적어가 사동주 자신의 몸이기 때문이다. (c)에서는 재귀 목적어를 생략함으로써 주어가 사동주가 아닌 피동작주로 해석되

는 피동 구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재귀-사동에서 주어는 사건을 통제하는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b)에 의도부사를 첨가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재귀-사동에 의도부사를 첨가해 보면 의도부사가 주어의 의도와 호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2) 순이가 영수에게 (자기 몸을) 일부러 안기었다.

그러나 의도부사 ‘일부러’가 일반적인 피동 구문에 첨가되면 비문이 된다.

(13) 책이 (\*일부러) 심하게 찢기었다.

보통의 피동문에서 주어는 동작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부사와 공가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피동문이 재귀-사동문과 다른 점은 피동문의 주어는 사건의 통제력이 없는 피동작주인 데 비해서, 재귀-사동문의 주어는 사건의 통제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동주인 동시에 피영향자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사동문과 피동문의 차이는 엄밀히 말해서 통사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의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사동문과 피동문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은, (1) 사동과 피동을 표현하는 형태소가 같다는 점, (2) 두 구문 모두에 행위주가 - 외적으로 명시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 전제된다는 점, (3) 사동문의 피사역주를 표시하는 형태소가 피동문의 행위주를 표시하는 형태소와 동일하다는 점이다<sup>4)</sup>. 한국어에서 한 문장이 사동문과 피동문의 해석 사이의 중의성을 갖는 경우는 소위 ‘피해피동’의 해석을 받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피해피동은 일반적 피

4) 이 점은 일본어와 독일어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음 예문을 참고하라(Keenan 1985:262).

- a. John ga Bill ni aruk-ase-ta.  
       Subj           AG walk-Caus-Past  
       “John had Bill walk.”
- b. Seine erste Frau liess sich von ihm scheiden  
    his first wife let self by him divorced  
       “His first wife let herself be divorced by him.”



동문과 달리 목적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있는 피동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제 다음에서 목적어 있는 피동문의 특성과 그 성립 조건 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3. 목적어 있는 피동문

한국어 사동문과 피동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상억(1970, 1972)에서 언급된 이후, 상대적으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 후 S. C. Lee(1986), Park(1986, 1987), Song(1987), Whitman & Hahn(1988), Yeon(1991)에서 논의된 바 있고, 고창수 시정곤(1991) 이후, 최근에 활발한 주목을 받고 있다.<sup>5)</sup> 목적어 있는 피동문 논의의 주요 쟁점은 피동문 대격 명사구의 정체에 관한 것이다. 임흥빈(1972)는 피동문의 ‘-를’을 목적격 조사గా 아닌 주제화의 조사로 보았다. 유혜원(1999) 역시 대격의 논항이 목적어가 아닌 초점에 의해 허가된 부가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능동문의 대상 목적어 중 하나가 잔류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이익섭·임흥빈(1983)에 나타난다. 또한 피동사가 타동사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이정택(2003)은 피동문에 목적어가 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성광수(1976)은 목적어 있는 피동문은 이중 대격구문을 상정할 수 있는 대당 능동문으로부터 형성된다고 보고, 이중 대격구문의 성립을 위해서는 의미상 두 대격어가 비분리적

---

5) 피동과 사동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는 박양규(1978), 배희임(1988) 등에서 나타난다. 이에 반해, 김윤신(2006)은 사동과 피동이라는 개념이 인과 사건과 재귀적 관계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송홍규(2008)은 피사동의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피동으로만 해석되는 구성의 특성을 밝히었다. 송(2008)에 따르면 “철수가 영화에게 팔을 꼬집히었다”라는 문장은 피동으로만 해석되는데, ‘꼬집히’의 ‘꼬집-’와 같은 동사는 신체부위 목적어의 소유자가 주어가 아닌 제3자를 가리키며 또한 신체부위 목적어와 그 소유자가 전체-부분 관계를 표현하는 유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논의에서는 목적어 있는 피동문의 성립 조건으로는, 비분리적 소유관계 외에 ‘빼앗기다’류<sup>6)</sup> 같은 재귀성 동사의 경우, 피동문 주어의 유정성, 영향 입음(affected) 등의 조건이 논의되었다(김홍수 1998 참고).

한국어에서는 피동작주인 직접목적어(the affected direct object)만이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sup>7)</sup> 영어에서는 간접목적어도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형태적 피동이든 통사적 피동이든 간접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자리에 올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I was given a book by the professor’와 같은 문장은 가능하지 않고, 대신에 ‘A book was given to me by the professor’와 같은 문장은 가능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4) a. 교수가 나에게 책을 주었다.  
 b. 통사적 피동 (DO → SUB): 책이 교수에 의해 나에게 주어졌다.  
 c. \*통사적 피동 (IO → SUB): \*내가 교수에 의해 책을 주어졌다.

위 예문은 한국어에서 직접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지만, 간접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어에서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직접목적어뿐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다음 예문들을 보면 소유주 명사구들이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 (15) a. 민호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b. 순이가 민호에게 손을 잡혔다.

---

6) ‘빼앗기다, 털리다’류의 동사는 목적어 있는 피동문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순이는 영수에게 지갑을 빼앗겼다/털렸다), 소유주 상충 대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지는 못하는 듯하다(?영수는 순이를 지갑을 빼앗겼다/털었다). 논자에 따라 이들 동사도 대격 중출 구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색하다. 이러한 ‘탈취동사’ 동사들의 통사의 미상의 행태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관계문법의 이론적 틀 내에서는 직접목적어만이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언어에서 직접목적어뿐만 아니라, 수혜자(recipient, benefactive), 도구, 장소명사구 등이 모두 피동문의 주어자리로 상승할 수 있다.

- (16) a. 민호가 순이의 발을 밟았다.  
b. 순이가 민호에게 발을 밟혔다.

그러나 우리는 능동문의 소유주 명사구가 직접 피동문의 주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직접목적어의 위치로 상승한 다음 피동문의 주어가 되었다고 가정한다.<sup>8)</sup> (15a)와 (16a)에서 소유주 명사구가 직접목적어로 상승하면 각각 (17a)와 (17b)처럼 된다.

- (17) a. 민호가 순이를 손을 잡았다.  
b. 민호가 순이를 발을 밟았다.

위 예문 (17)처럼 소유주 명사구가 동사의 행위에 의해 전적으로 영향을 입는 경우에 이 명사구들은 대격 표지를 취하면서 직접목적어의 위치로 상승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우리는 대격 중출구문을 얻게 된다. 우리는 대격 중출구문의 성립 요건이 목적어의 영향입음(aftectedness)이라는 의미적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고 가정한다.<sup>9)</sup> (17)에서 소유주 명사구의 대격화가 가능한 것은 동사가 지칭하는 사태에 의해 이 명사구들이 필수적으로 영향을 입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sup>10)</sup>

8) 소유주 명사구가 직접목적어 위치로 상승한 것이나, 주제화 된 것이나 하는 등의 이론적인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한다.

9) 소유주 명사구와 소유물 명사와의 의미적 관계에 대해서는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구문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10) 그리고 아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중대격 구성에서 피동문의 주어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소유주 명사구이지, 소유물 명사구가 아니다.

(1) a. 순이가 민호에게 손을 잡혔다.      b \* 순이 민호에게 순이를 잡혔다.  
(2) a. 순이가 민호에게 발을 밟혔다.      b. \* 발이 민호에게 순이를 밟혔다.

피동문 형성 행태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이중대격 구성은 팔머(Palmer 1994)에서 지칭한 ‘일차적 목적어 + 이차적 목적어 구성’의 행태를 보여준다 (Palmer 1994: 37-39). 이러한 구성에서는, 소유주 명사구가 일차적 목적어로 상승하고, 원래의 일차적 목적어는 이차적 목적어로 하강하여,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승한 일차적 목적어가 된다. 본문 (17)에서 ‘순이’는 원래 소유주 명사구였던 것이 상승하여 일차적 목적어가 된 것이고, ‘손’이나 ‘발’은 원래 직접목적어(일차적 목적어)였던 것이 대격 표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그런데 목적어 있는 피동문 구성에서 피동문의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sup>11)</sup> 이제 대격 중출 과정에 관여하는 의미적 제약과 목적어 있는 피동문 구성에 존재하는 의미적 제약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8) a. 영수가 개한테 다리를 물리었다.  
b. 도둑이 순경에게 달미를 잡혀있다.

목적어 있는 피동문 (18)에서 (a)는 ‘다리’라는 목적어를 (b)는 ‘달미’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피동문은 대격 중출 능동문과 관련을 맺고 있다.<sup>12)</sup>

- (19) a. 개가 영수를 다리를 물었다.  
b. 순경이 도둑을 달미를 잡았다.

우리는 이러한 대격 중출 구문이 소유주 상승에 의해 만들어진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구문이라고 가정한다. 그런데, 소유주의 목적어로의 상승이 물론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유주 상승은 다음 예문들에서처럼 소유주가 동사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입는다고 인식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 (20) a. 개가 영수의 다리를 물었다.  
b. 개가 영수를 다리를 물었다(= (19a)).

---

차적 목적어의 지위로 하강한 것이다. 그 결과 (1)이나 (2)에서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승한 일차적 목적어 ‘순이’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 목적어 ‘손’이나 ‘자갑’은 대격 표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목적어 있는 피동문 구성을 형성하게 된다.

- 11) 우리는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에서 소유주와 소유물은 ‘인지적 접근성’(cognitive contiguity)이라는 의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12) 물론 모든 피동문이 대응하는 능동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에서 피동문의 유형론을 논할 때 지적되었다. 이것은 목적어 있는 피동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피동문은 대응하는 대격 중출 구문을 상정하기 어렵다.  
(1) ㄱ. 철수는 바늘에 손을 찔렸다.      ㄴ. \*바늘이 철수를 손을 찔렸다.  
여기에는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유정성의 정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하는 듯하다.

- (21) a. 순경이 도둑의 달미를 잡았다.  
 b. 순경이 도둑을 달미를 잡았다(= (19b)).

(20)에서 영수는 개가 다리를 문 행위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입었고 (21)에서 도둑은 경찰이 달미를 잡음으로써 역시 불리한 영향을 입은 경우이다. 이때, 직접목적어 위치로 상승한 소유주는 피동문의 주어 위치로 문법관계가 상승할 수 있지만 원래의 직접목적어인 신체부위명사는 주어가 될 수 없다.<sup>13)</sup>

- (22) a. 영수가 개한테 다리를 물리었다.  
 b. 도둑이 순경에게 달미를 잡혔다.

다른 많은 언어들에서도 목적어 있는 피동문들은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특수한 의미관계를 제약조건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앞에서 사동과 피동의 중의 성은 일차적으로는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의 신체부위명사나 소유물일 경우에 국한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그 의미관계가 반드시 “분리불가능한 소유관계”이거나 신체부위명사일 필요는 없다. 다음의 예들은 분리불가능한 소유관계라는 의미 제약 조건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sup>14)</sup>

13) Palmer(1994)에 따르면, 이디오피아말의 하나인 Tigrinya(Ethiopian Semitic)에도 비슷한 구문이 존재한다. 이 언어에도 두 개의 목적어가 한 문장에 나타나는데, 그 중의 하나만이 피동문의 주어자리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은 첫 번째 목적어는 유정명사이고 두 번째 목적어는 신체부위명사인데, 첫 번째 명사구인 유정명사만이 피동문의 주어자리로 상승할 수 있다(Palmer 1994:124).

- (1) a. Masgonna na-Mhraet gaes-a harimu-wa  
 Mesgenna Anim-Mehret face-3sg+Fem+Poss hit+3sg+Masc-3sg+Fem  
 “Mesgenna hit Mehret in the face.”  
 b. Mhraet ba-Masganna gaes-a ta-harima  
 Mehret by-Mesgenna face-3sg+Fem+Poss Pass-hit+3sg+Fem  
 “Mehret was hit in the face by Mesgenna.”

위 예문은 결과적으로 주어와 “분리불가능한 소유관계”에 있는 목적어를 갖는 특수한 피동문을 보여준다.

(23) 장군이 부하에게 말고삐를 잡히었다.

이 예문에서 목적어 ‘말고삐’는 분리가능한 소유물이지만 피동과 사동 사이의 중의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분리가능’이나 ‘분리불가능’이라는 의미 제약 조건이 피사동 중의성 형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Kim 1994).

(24) a. 영수가 순이한테 어제 주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가방을 찢기었다.

b. ?영수가 순이한테 동생의 머리를 깎기었다.

(피해피동의 의미로는 불가능하고 사동의 의미로만 가능)<sup>15)</sup>

(a)에서는 영수와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영수와 가방 사이에 (일시적이라도) 밀접한 소유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피동’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b)에서는 비록 영수와 동생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수와 동생의 머리 사이에는 소유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피동문의 해석이 되지 않고 오직 사동문 해석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어 피해피동문에서 ‘분리불가능 소유관계’는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의미 제약 관계로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필요충분조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

14) 다음 예문도 분리가능한 소유관계임에도 소유주 인상을 허용하는 예이다.

(1) a. 영수가 순이의 가방을 찼다.

b. 영수가 순이를 가방을 찼다.

c. 순이가 영수에게 가방을 차였다.

(1b)의 순이와 가방의 관계는 분리가능한 소유관계임에도 소유주 상승된 경우이고, 그 결과 (c)에서는 순이가 피동문의 주어 위치로 상승하여 피해피동 구문을 형성한 경우이다.

15) 한국어와는 달리 일본어에서는 이와 동일한 구조의 문장이 피해피동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문은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6) 언어에 따라서는 목적어 있는 피동문의 해석에 분리불가능 소유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문이 있을 수 있다. 중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피동 구문이 존재한다.

(1) a. NP(undergoer)-BEI-NP(agent)-VP

b. NP(undergoer)-BEI-NP(agent)-V-Le-N(body part)

그렇다면 목적어 있는 피동문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주어와 ‘잔류목적어’(retained object) 사이에 소유관계만 유지되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23)에서 장군이 말고삐에서 몇 발자국이라도 떨어져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위 문장의 피동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고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즉 (23)에서 피동의 의미는 장군이 말에 앉아서 말고삐와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드러나는 의미인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 (25) a. 영수가 순이에게 옷을 잡히었다.  
b. 영수가 순이에게 신발을 밟히었다.

(25a)는 영수가 옷을 실제로 입고 있는 상황에서만 피동의 의미가 드러나고, (25b)는 영수가 실제로 신발을 신고 있는 상황에서만 피동의 의미가 드러난다. 만일 영수의 옷이 옷장이나 벽에 걸려 있거나 영수의 신발이 신장에 놓여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피동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목적어 있는 피동문, 혹은 피해피동의 의미를 가능하게 요소는 주어와 잔류목적어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가능이나 불가능이라는 의미 관계나 신체부위명사와 같은 통사-의미 제약이 아니라, 그 둘이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하는 언어외적인 ‘인지적 접근성’(contiguity)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물리적/인지적 접근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우리의 설명 방식은 기존의 통사-의미 관계에 기초한 형식적 설명 방식을 무

---

Chappell(1986)에 따르면, (a)는 일반적 피동문이고, (b)는 목적어를 포함하는 복합사술어를 가진 피동문이다. 중국어에서 (b)와 같은 목적어 있는 피동문은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분리불가능한 소유관계, 즉 신체부위명사일 때만 성립한다.

17) 유혜원(1999)는 소위 목적어 있는 피동문의 피동사들은 의미상 ‘접촉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택(2003)은 목적어 있는 피동문의 피동 주어는 유정물이거나 유정물과 관련 깊은 무정물로 제한되며, 피동 주어와 목적어는 ‘전체와 부분’ 및 ‘소유주와 소유물’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속성은 목적어 있는 피동문이 변별적으로 갖는 ‘피해피동’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러한 피해피동의 의미는 이 구문의 목적어와 피동사가 어울린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목적이 있는 피동문이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과 대응 관계를 가진 구문이라고 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지적 접근성’이라는 제약 관계가 대격 중출 구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sup>18)</sup> 그것은 실제로도 사실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23') 부하가 장군을 말고삐를 잡았다.

- (25') a. 순이가 영수를 옷을 잡았다.  
b. 순이가 영수를 신발을 밟았다.

위 대격 중출 구문에서도 ‘인지적 접근성’이라는 제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반적 소유구문에서는 그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25'') a. 순이가 영수의 옷을 잡았다.  
b. 순이가 영수의 신발을 밟았다.

즉 이 경우에는 영수가 옷을 입고 있든, 옷이 옷장에 걸려 있든, 영수가 신발을 신고 있든, 신발이 신장에 있든 상관없이 성립가능한 문장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목적이 있는 피동문이나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에서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관계가 ‘근접한 소유관계’(contiguous possession)라는 제약 조건을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밀접/근접한 소유관계’라는 인지적 개념은 신체부위명사나 ‘부분-전체’로 기술되었던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밀접한 소유관계’라는 인지 개념은 ‘이름’이나 개인의 ‘사진’과 같은 ‘개인적 표상(personal representation)’(Chappell-McGregor 1996)의 영역까지도 포함되는 언어외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8) 이 문제는 8장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 (26) a. 순이가 반장에게 이름을 적혔다.  
b. 영수가 교통경찰에게 사진을 찍혔다.

위 문장은 피해피동의 의미가 드러나는 목적어 있는 피동문인데, ‘잔류목적어’로 사용된 ‘이름’이나 ‘사진’은 기존의 논의에서 사용되었던 ‘신체부위명사’나 ‘전체-부분’의 개념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부류의 명사들이다. ‘밀접한 소유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름이나 사진과 같은 비신체부위명사까지도 포괄하는 인지적 제약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목적어 있는 피동문이나 대격 중출 구문의 제약관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기존의 형식적 접근법이나 의미적 접근법에서는 이러한 특이한 문장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일본어에도 피해피동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피해피동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sup>19)</sup> 우리는 일본어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피동을 관찰할 수 있다.

- (27) a. John-ga Mary-ni te-o tukam-are-ta.  
Nom Dat hand-Acc catch-Pass-Past  
“John was caught by the hand by Mary.”

---

19) 한국어와 일본어 피해피동의 차이점을 언급하기 전에 일반적인 형태론적 피동의 차이점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는 사동과 피동의 형태소가 겹쳐서 사용될 수 없는 데 비해서 일본어에서는 형태적 사동과 피동이 겹쳐질 수 있다. 즉 사동 접미사 -sase를 피동 접미사 -rare에 중첩시켜서 다음과 같은 피동의 사동 구문을 만들 수 있다(K. Y. Park 1987).

- (1) Ziroo-ga Taroo-o/-ni Hanako-ni but-rare-sase-ta  
Nom Acc/Dat Dat hit-Pass-Caus-Past  
“Ziro made/let Taro be hit by Hanako.”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동의 피동 구문도 가능하다. 이러한 구문은 한국어에서는 역시 불가능하다.

- (2) Ziroo-ga Taroo-ni sakana-o tabe-sase-rare-ta.  
Nom Dat fish-Acc eat-Caus-Pass-Past  
“Ziro was made to eat fish by Taro.”

- b. John-ga Mary-ni yubi-o kir-are-ta.  
 Nom Dat finger-Acc cut-Pass-Past.

“John was affected by his finger being cut by Mary.”

(27)의 피해피동문은 한국어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예들만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를 감지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언어의 피해피동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Washio 1992:47-51). 첫째, 한국어와는 달리 일본어에는 자동사의 피해피동문이 존재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8) a. gakusei-ga kodomo-ni nak-are-ta  
 student-Nom child-Dat cry-Pass-Past

“The student was affected by the child's crying.”

- b. Taroo-wa hahaoya-ni sin-are-ta  
 Top mother-Dat die-Pass-Past

“Taroo had his mother die(Taroo was affected by his mother's death)”

일본어에서 자동문의 피해피동 구문은 모두 피동 사건에 의해 주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를 표현한다. 한국어에는 자동문의 피해피동 구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두 번째 차이는 다음 예문의 비교에서 관찰할 수 있다.

- (29) a. 영수가 순이에게 머리를 깎아있다.

- b. Taroo-ga Hanako-ni kami-o kir-are-ta  
 Nom Dat hair-Acc cut-Pass-Past

“Taroo had his hair cut by Hanako.”

한국어에서 ‘머리’는 영수의 머리로만 해석되는 반면에 일본어에서는 ‘kami’가 하나코의 머리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본어에서도 ‘kami’는 다로의 ‘머리’로 해석되지만

다음과 같이 적당한 문맥이 형성되기만 하면 머리카락의 소유자가 하나코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0) Taroo-wa Hanako-no kami-ga sukidat-ta noni  
           Top          Poss hair-Nom like-Past though  
       Hanako-ni kami-o kir-are(te-simat)-ta  
           Dat hair-Acc cut-pass(it turns out)-Past  
       “Taro liked Hanako's hair but she cut her hair(against his wish).”

위 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어에서 피해피동의 목적어는 주어와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반면에 일본어에서는 목적어가 여격보어와 소유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피해피동에서 요구되는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밀접한 소유관계’가 일본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사동의 상관성이나 목적어 있는 피동문을 형성하는 통사-의미-화용적 조건도 언어마다 달라야 함을 예측할 수 있다.

#### 4. 마무리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어 사동문과 피동문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의 관찰을 통해서 사동문과 피동문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둘 사이에 중의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어는 형태적 사동과 피동이 동일한 형태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몇몇 구문에서 중의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의성이 발생하는 피동사의 목록은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사동 피동 구문의 중의성이 발생하는 것은 엄연한 언어적 사실이며 이것은 범언어적으로도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일종의 유형론적 보편성이다. 우리는 위에서 유형론적으로 피사동 겹침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의미-유형론적으로 사동문에서 피동문의 의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한국어에서 사동문과 피동문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은, (1) 사동과 피동

을 표현하는 형태소가 같다는 점, (2) 두 구문 모두에 행위주가 - 외적으로 명시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 전제된다는 점, (3) 사동문의 피사역주를 표시하는 형태소가 피동문의 행위주를 표시하는 형태소와 동일하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사동문과 피동문의 중의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피동문이 피해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목적어 있는 피동 구문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목적어 있는 피동문의 주어와 잔류목적어 사이에는 ‘밀접한 소유관계’ 또는 ‘인지적 근접성’이라는 제약이 성립해야만 피해피동의 의미가 드러나고 상황에 따라 사동과 피동 사이의 중의성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제시한 ‘인지적 근접성’라는 개념은 인지적 개념으로서 언어외적인 개념이며, 기존의 분리불가분의 소유관계나 신체부위명사 등의 의미 관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수한 구문들의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

## 7장

---

### 처소 교체 구문<sup>1)</sup>

#### 1. 머리말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처소 교체 구문은 크게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은 홍재성(1987)에서 ‘교차 장소보어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진 바 있고, 양정석(1995)에서는 타동사적 ‘처소 교차 구문’과 자동사적 ‘처소 교차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두 구문의 통사적인 행태와 의미적인 특징이 아울러 잘 분석되어 있다. 그리고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은 연재훈(1996)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남승호(2007)에서 처소 변화 동사의 사건 구조와 논항 실현이 형식 의미론의 관점에서 자세히 기술된 바 있다.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은 다음과 같은 구문들을 가리킨다(홍재성 1987: 174-5).

---

1) 7장은 연재훈(1998)을 토대로 하고 있다. 연재훈(1996나, 1998)에서는 ‘장소보어 교체 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체 구문을 가리킬 때는 ‘처소 교체 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단순히 처소보어를 가리킬 때는 ‘장소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1) 가. 골목길에 구경꾼들이 메어진다. ↔ 골목길이 구경꾼들로 메어진다.  
 나. 장터에 사람들이 붐빈다. ↔ 장터가 사람들로 붐빈다.  
 다. 된장독에 구더기들이 우글거린다. ↔ 된장독이 구더기들로 우글거린다.  
 라. 하늘에 별들이 반짝인다. ↔ 하늘이 별들로 반짝인다.

위 구문들 사이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sup>2)</sup>

- (2) 가.  $N0i \ N1j$ -에  $V$  ↔ 나.  $N0j \ N1i$ -로  $V$

(2가)는 단순한 장소보어 자동사문 구조인데 비해서 (2나)는 (2가) 구조의 주어  $N0$ 가 ‘ $N1$ -로’ 보어로 교체되고, (2가) 구조의 보어 ‘ $N1$ -에’가 주어 위치로 이동한 구조이다. 우리는 편의상 (2가)를 ‘에’-구조, (2나)를 ‘로’-구조라 부르기로 한다.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은 다음과 같은 구문들을 가리킨다(연재훈 1996 나:161-164).

- (3) 가. 영수가 책표지에 검은색을 칠했다. ↔ 영수가 책표지를 검은색으로 칠했다.  
 나. 영수가 벽에 신문지를 붙였다. ↔ 영수가 벽을 신문지로 붙였다.  
 다. 순이가 정원에 소나무를 기꾸었다. ↔ 순이가 정원을 소나무로 기꾸었다.

위 구문들 사이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 (4) 가.  $N0i \ N2j$ -에  $N1k$ -을  $V$  ↔ 나.  $N0i \ N1j$ -을  $N2k$ -로  $V$

(4나)는 (4가)에 비해, 처격 장소보어가 직접목적어로 교체되고, 직접목적어는 도구(재료)격 보어로 교체된 구조이다. 타동문 구성도 편의상 (4가)를 ‘에’-구조, (4나)를 ‘로’-구조라 부르기로 한다<sup>3)</sup>.

2) 양정석(1995:80)은 이러한 형식화가, 단일한 층위에서의 일반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치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뒤에서 논의될 ‘전체적 관여’라는 의미 특징이 (2나)에 직접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2가)에서 주어가 지닌 ‘비의도성’, ‘비활동성’의 의미 특징이 형식화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시도하는 형식화는 분포 구조적인 측면에서 구문들 사이의 대응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양정석(1995)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과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통사의 의미 특성을 비교 고찰해 보고, 이 두 구문 사이에 평행성/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두 구문 사이의 평행성이나 차이점을 밝히는 일은 궁극적으로 자동문과 타동문을 기저의 동일한 교체 구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레빈(Levin 1993:50-54)은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에 비대격 분석(unaccusative analysis)을 적용하면, 주어를 기저의 목적어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이나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이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4)</sup> 한국어의 처소 교체 구문에 대해 비대격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필자의 과문함 탓인지 아직 없는 듯한데, 양정석(1995)은 ‘의미역 관계’를 어휘통사 구조로 형식화하여 타동사 구조와 자동사 구조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도 자동사 구조와 타동사 구조 사이에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더 주목하려고 한다. 이제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이 보여주는 몇가지 통사 의미상의 특징적 행태를 바탕으로 이 두 구문 사이에 어떤 평행성 내지는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 2. 자/타동 처소 교체 구문의 통사/의미 특성

### 2.1. 의미특성: 전체적 관여/부분적 관여

우선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과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은 의미적 특성에서

---

4) 우리는 생성문법의 일부 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비대격 분석을 한국어에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을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대당 구문(counterpart)으로 - 혹은 그 역으로- 간주하는 분석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평행성을 보인다. 장소명사구가 (자동문에서) 주어로 사용된 경우와 (타동문에서) 직접목적어로 사용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 즉 단순한 장소보어로 사용된 경우 - 에 비해서 장소가 사건 구조에 전체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상의 특징이 있다(홍재성 1987, 양정석 1995, 연재훈 1996나, 남승호 2007등).

먼저 홍재성(1987:182)의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5) 가. 오늘도 밤하늘에 (많은 + E) 별들이 (반짝인다 + 빛난다).
- 가. 오늘도 밤하늘이 (많은 + E) 별들로 (반짝인다 + 빛난다).
- 나. 오늘도 밤하늘에 (그 별이 + 별 하나가) (반짝인다 + 빛난다).
- 나. ?\*오늘도 밤하늘이 (그 별 + 별 하나)-로 (반짝인다 + 빛난다).

장소명사구가 주어로 사용되지 않으면 (5가)와 같이 복수명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5나)와 같이 특정/불특정 단수 명사도 주어 위치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응되는 교체 구문을 보면, ‘N1-로’ 위치에 단수명사가 사용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구조 사이에 의미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데, 그 의미차이는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장소의 전체적 관여/부분적 관여의 대립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소명사가 주어 위치에 오는 구문에서는 “장소 전체가 문제되는 의미 해석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하나의 반짝임같이 규모가 작은 별의 반짝임은 하늘 전체가 반짝임의 속성을 지니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5나)가 어색한 것 같다(홍재성 1987:183).

장소명사구의 전체적 관여와 부분적 관여라는 의미차이는 다음과 같은 타동성 처소 교체 구문에서도 관찰된다(연재훈 1996:161-166).

- (6) 가. 아기가 책표지에 검은색을 칠했다.
- 나. 아기가 책표지를 검은색으로 칠했다.

타동성 처소 교체 구문에서의 이러한 의미차이는 다음과 같은 두 구문의 대조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6) 다. 아기가 책표지에 검은색을 칠했지만, 다행히 반 이상은 깨끗하게 남아 있다.

라. ?아기가 책표지를 검은색으로 칠했지만, 다행히 반 이상은 깨끗하게 남아 있다.

(6다)는 자연스러운 반면 (6라)는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책표지 전체가 검은색으로 칠해졌다는 것-(장소명사의 전체적 관여)-을 선행절이 함축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내용이 후행절에 따라옴으로써 의미적으로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sup>5)</sup>

다음 예문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의미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데<sup>6)</sup>, (7가)는 벽지로 발라져 있는 벽에 신문지 조각을 한 구석이나 일부분에, 또는 신문에 난 기사를 오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기억을 돕기 위하여 신문지를 오래 붙인 상황 등을 설정할 수 있겠다. 반면에 (7나)는 영수가 벽 전체를 신문지로 도배했거나, 벽 전체가 신문지로 붙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7) 가. 영수가 벽에 신문지를 붙였다.

나. 영수가 벽을 신문지로 붙였다.

전체적 관여 대 부분적 관여라는 의미차이는 장소보어 교체 구문에서 체계

---

5) 이러한 문장 시험은 다음과 같은 영어 문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Brown & Miller 1982: 173이하, 215-17).

(1) 가. The child painted black colour on the book-cover but fortunately more than half the bookcover was not marked.

나. ?The child painted the bookcover with black colour but fortunately more than half the bookcover was not marked.

(1나)의 영어 문장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위치에 있는 ‘bookcover’ 전체가 검은색으로 칠해졌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치되는 후행절이 나타남으로써 어색한 문장이 된 것이다.

6) 전체적 관여의 의미는 다음 예문의 (가)와 (나)를 비교하면 좀더 분명히 부각된다(양정석 1995:81).

(가) 인부들이 트럭에 밀가루 한포대를 실었다.

(나) ?\*인부들이 트럭을 밀가루 한포대로 실었다.

(나)가 어색한 이유는 대격 표지된 장소보어의 전체적 관여와 ‘-로’ 보어 위치에 온 양화표현 사이의 의미충돌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적으로 관찰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아래 예문을 보자.

(7) 다. 영수가 벽을 신문지로 붙이고 있다.

라. 영수가 벽을 신문지로도 붙였다.

(7다)는 비록 (7나)와 동일한 격표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사의 시제와 상이 현재 진행으로 바뀔에 따라 장소보어의 ‘전체적 관여’라는 의미 특성이 사라져 버린 경우이다. 이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제약 조건으로서, 현재 진행 시제인 경우에는 문제의 행위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보어가 완전히 영향을 입거나 완결된 상태로서 전체적 관여를 논의할 계제에 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의미 특성을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7라)는 시제와 장소보어의 격표지는 (7나)와 동일하지만, 도구 명사 뒤에 특수 조사 ‘도’가 첨가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특수 조사 ‘도’의 의미 특성상 우리는 문제의 벽에 신문지 말고도 또 다른 벽지나 종이 등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내재적으로 ‘전체적’ 의미속성을 갖는 동사들의 경우는 타동문의 ‘-에’ 구조와 ‘-로’ 구조 사이에 의미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둘 다 ‘전체적 관여’의 의미만이 나타날 수도 있다.

(8) 가. 영수가 창고에 나무를 채웠다.

나. 영수가 창고를 나무로 채웠다.

‘채우다’라는 동사는 내재적으로 ‘전체적’ 의미 속성을 갖는 동사로서, (가)와 (나) 사이에 의미차이를 관찰하기 어렵고, 둘 다 ‘전체적 관여’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것은 어휘의 개별적 의미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별 어휘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장소보어의 전체와 부분 사이의 의미차이가 위에서 말한 제약 조건들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만 유지된다는 조건을 명시할 필요를 느낀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경우, 목적어가 둘 나

타나는 이중목적어 구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9) 가. 아기가 책표지를 검은색을 칠했다.

나. 영수가 벽을 신문지를 붙였다.

이와 같은 문장 형식은 남기심(1993)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sup>7)</sup> 이러한 구문에서 두 목적어는 자리를 바꿀 수 없다.

(9') 가. \*아기가 검은색을 책표지를 칠했다.

나. \*영수가 신문지를 벽을 붙였다.

이것은 이른바 이중목적어 구문이 되기 이전의 ‘N1-를 N2-로’ 구조나 ‘N1-에 N2-를’ 구조에서는 두 명사구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

(9') 다. 아기가 책표지에 검은색을 칠했다. ↔ 아기가 검은색을 책표지에 칠했다.

라. 아기가 책표지를 검은색으로 칠했다. ↔ 아기가 검은색으로 책표지를 칠했다.

(9가, 나)와 같은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장소보어의 전체적 관여의 의미는 (6나)나 (7나)와 같은 ‘-로’ 구조에서 장소보어의 전체적 관여의 의미보다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의미차이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더 정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제 또 한 가지 범언어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처소 교체 구문의 예를 살펴 보고, 여러 나라 말에서 나타나는 예문들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언급함으

---

7) 남기심(1993: 338-9)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자동사 구문과 비교하여, 이러한 현상은 자동사 구문에서 ‘N1-로’를 ‘N1-가’로 대체시켜 이른바 이중주어 구문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 하다고 하였다. 즉 자동사 구문에서의 ‘N0-가’와 ‘N1-로’의 관계가 타동사 구문에서는 ‘N1-를’과 ‘N2-로’ 사이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 가. 역사는 온통 귀성객으로 들끓고 있었다.

나. 역사가 귀성객이 들끓고 있었다(남기심 1993:339).

이렇게 본다면,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 사이의 평행성을 한 가지 더 인정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보기에 자동사 구문의 이중주어 구문 교체는 자연스럽지 않다.

로써 우리의 논의를 언어 유형론적으로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음 예문 (10)은 많은 언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 장소보어 교체 구문의 예이다.

(10) 가. 영수가 정원에 소나무를 가꾸었다.

나. 영수가 정원을 소나무로 가꾸었다.

(10가)는 영수가 정원에 소나무 말고도 다른 나무나 꽃을 가꾼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10나)는 영수가 정원 전체를 오직 소나무 한가지로만 가꾼 것을 함의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의미차이는 다음과 같은 검증을 통해 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10') 가. 영수는 정원에 소나무를 (가꾸고), 순이는 장미를 가꾸었다.

나. 영수는 정원을 소나무로 (가꾸고), 순이는 장미로 가꾸었다.

(10'가)에서 장소보어 ‘정원’은 처격 표지 ‘에’에 의해서 사건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10'나)에서 장소보어 ‘정원’은 대격 표지 ‘을’에 의해서 사건에 전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 야기되는 의미차이는 (10'가)에서는 영수와 순이가 똑같은 정원에 소나무와 장미를 함께 재배한 경우를 함축하고 있는 듯 하고, (10'나)에서는 영수가 자기의 정원 전체를 소나무로, 순이는 자기의 정원 전체를 장미로 각각 가꾸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이상 소략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처소 교체 구문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보어는 대격 표지와 비대격 표지의 교체에 상응하는 의미차이 - 전체적 관여 대 부분적 관여를 노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타동사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sup>9)</sup>

(11) 가꾸다, 바르다, 붙이다, 장식하다, 덮다, 채우다, 메우다, 조성하다, 새겨넣다,<sup>8)</sup> 싣다, 칠하다.

---

8) ‘새겨넣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명사 분포에 따라 ‘로’-구조를 허용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장소보어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동사들의 목록은 현재로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가지고 있고, 동사 개별적으로 더 정밀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유형론적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11)과 같은 동사 범주가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사한 의미차이를 보여주는 보편적 의미 범주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paint’, ‘plant’, ‘paste’, ‘spray’ 등과 같은 동사들은 거의 모든 언어에서 앞에서 말한 의미차이를 수반하는 장소보어 교체 구문을 형성한다.

## 2.2. 동사부류

자동성 장소보어 교체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부류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12) 가. ‘들끓다’류: 일정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 운동을 묘사한다.  
 끓비다, 북적/북다거리다, 바글/버글거리다, 우글거리다.
- 나. ‘반짝이다’류: 빛의 발사나 반사 등을 묘사: 반짝이다, 빛나다, 깜빡이다, 번뜩이다,
- 다. ‘웅웅거리다’류: 곤충이나 작은 동물의 소리나 반복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웅웅거리다, 왕왕거리다.

이러한 동사부류는 범언어적으로 자연부류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영어와 불어의 예를 보자.

(13) 영어(from Dowty 1997):

- a.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 운동:

crawl, drip, bubble, dance, dribble, erupt, flow, foam, froth, gush, heave, hop, jump, ripple, roil, rumble, run, shake, shiver, swarm, throb, vibrate, pulsate

---

(1) 가. 비석에 이름을 새겨 넣었다. ↔ 나. \*비석을 이름으로 새겨 넣었다.

(2) 가. 비석에 한자를 새겨 넣었다. ↔ 나. 비석을 한자로 새겨 넣었다.

9) 이 외에 더 많은 타동사들의 목록은 남기십(1993:337), 양정석(1995:93) 등을 참고할 것.

b. 동물의 소리나 반복적 움직임:

hum, buzz, twitter, cackle, chirp, whistle; hiss, fizz, creak, boom, rustle; resonate, resound, echo, etc(Salkoff의 자료에는 이러한 동사가 약 200개 정도 예시되어 있다).

c. 빛의 발사나 반사:

beam, blaze, brighten, flame, glow, flicker, flare up, flash, glimmer, glisten, glitter, light up, shimmer

d. 냄새나 맛:

reek, smell, be fragrant, etc; taste

e. 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동사:

abound; be rich, rife, rampant (with)

(14) 불어(from Boons et al, 1976):

a.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 운동:

bouillonner, bruire, degouliner, degoutter, fremir, frissonner, fuser, glouglouter, gesiller, grouiller, ondoyer, palpiter, pullueler

b. 동물의 소리나 반복적 움직임:

carillonner, claquer, cliqueter, crachoter, craquer, crepiter, roufrouter, grincer, resonner, ronronner, tonner, triller, vibrer

c. 빛의 발사나 반사:

briller, chatoyer, clignoter, eclater, etinceler, flamboyer, luire, miroiter, papilloter, petiller, reluire, resplendir

d. 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동사:

abonder, regorger

타동성 처소 교체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부류들도 범언어적으로 자연부류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라브치(Moravcsik 1978: 248)은 영어에서 장소 보어 교체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부류가 자연부류를 형성한다고 지적하고 있고<sup>10)</sup>, 한국어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 말에서도 이러한 동사부류들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 준다. 어쨌든 유형론적으로,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동사부류들은 거의 모든 언어에서 앞에서 말한 의미차이를 수반하는 장소보어 교체 구문을 형성한다.

- (15) a. spray/paint/paste type
- b. load/fill type
- c. plant/cultivate type

그러나 우리는 자동성 장소보어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동사부류들과 타동성 장소보어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동사부류들 사이에는 의미범주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다.

장소보어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타동사는 완결점이 있는 완결동사(telic verbs)들인데 비해, 자동사는 완결점이 없는 비완결동사(atelic verbs)들이다 (2.4. 참고). 또 타동사들은 상태변화(change-of-state)를 함의하는 완성동사(accomplishment verbs)이고, 자동사들은 단순 운동이나 빛의 발사 등을 나타내는 특정 의미부류에 속하는 과정동사(process verbs)들이나 상태동사(stative verbs)들이다. 또 자동사류와 타동사류는 다음에서 보듯이 특정 복수 양화사와의 결합 기능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

10) Moravcsik(1978: 248)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 a. John smeared paint on the wall.
- b. John smeared the wall with the paint.
- (2) a. John planted trees in the garden.
- b. John planted the garden with trees.
- (3) a. He cleaned the fat out of the pan.
- b. He cleaned the pan of the fat.

“A subset of those verbs in English whose complements are alternatively case-marked for the accusative and some adverbial case constitutes a natural semantic class in that its members all express the notion of filling or providing or that of emptying or depriving.”

## 2.3. 수표현 명사구와의 결합 가능성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장소명사가 주어로 사용된 자동사 구문에서는 ‘N1-로’ 위치에 불특정 복수 명사나 집합명사만이 올 수 있고, 단수 명사가 오면 비문이 된다.

- (16) 가. 하늘이 (수많은 별들 + \*북극성 + \*별 하나)-로 반짝인다.  
나. 백화점이 (사람들 + 인파 + \*영희 + \*어떤 여학생)-로 붐빈다.

이것은 타동성 처소 교체 구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단수명사가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로’ 보어로 쓰이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 (17) 가. ?인부들이 트럭을 밀가루 한 포대로 실었다.  
나. ?순이가 정원을 소나무 한 그루로 가꾸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격 표지 장소보어’의 전체적 관여라는 의미특성과 관련된 현상으로서, (17가)가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대격 표지된 장소보어 ‘트럭’이 어떤 물건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전체적 관여를 함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뒤따라 온 도구 명사구는 ‘밀가루 한 포대’로서, 트럭 전체를 채우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을 주는 물량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1)</sup> (17나)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이 수표현 명사구와의 결합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즉 장소명사가 주어로 사용된 자동사 구문에서는 복수명사라도 불특정 양화사(indefinite quantification)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나타내는 복수명사가 오면 어색하게 들린다.

11) 예문 (17가)에서 동사를 ‘실다’에서 ‘채우다’로 교체하면 가능한 문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어휘의 개별적 의미 특성에 기인하는 것 같은데, 이 둘을 구별해 주는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18) 가. 보라매 공원이 수백만 군중으로 붐볐다.  
 나. ?보라매 공원이 157만 명의 군중으로 붐볐다.  
 다. 쓰레기통에 수많은 바퀴가 들끓는다.  
 라. ?쓰레기통에 150 마리의 바퀴가 들끓는다.

이것은 장소명사가 주어로 사용된 경우, 일차적 관심이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동작이나 상태에 있고, 개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위의 예문에서는 군중으로 “붐비는” 동작/상태, 바퀴벌레가 “들끓는” 동작/상태에 일차적 관심이 놓이는 것이지, “군중”이나 “바퀴”라는 개체나 그 개체의 숫자에는 일차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타동성 처소 교체 구문에서는, 자동성 처소 교체 구문과는 달리, 정확한 숫자를 표시하는 특정 복수명사가 와도 무방한 것 같다.

- (19) 가. 인부들이 트럭을 밀가루 백 포대로 채웠다.  
 나. 순이가 정원을 소나무 백 그루로 가꾸었다.

우리는 위에서 자동사 구문에서는 ‘-로’ 보어 위치에 특정 복수명사의 양화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반면에, 타동구문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sup>12)</sup>

---

12) 이러한 차이는 영어에서도 관찰된다. 즉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에서, 대략적 불특정 양화표현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수를 표시하는 특정 양화 표현은 불가능하다(Dowty 1997).

(1) \*The table crawled with seventy-three bees.

\*The table crawled with most ants.

The table crawled with (hundreds of) ants.

\*The table crawled with the same group of ants that stung me yesterday.

자동사문과는 대조적으로, 타동사문에서는 특정 양화 표현이 with-NP와 사용되어도 무방하다.

(2) We loaded the truck with five bales of hay.

## 2.4. ‘-에’ 시간 명사구와의 결합 가능성: 동작의 완결성

장소보어의 전체적 관여와 부분적 관여라는 의미차이는 처소 교체 구문이 ‘-를’ 시간명사구나 ‘-에’ 시간명사구와 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다음 예문을 보자(홍재성 1987:28).

- (20) 가. 철수는 한 시간(E + 동안)을 벽-(에+)을 칠했다.  
나. 철수는 한 시간(E + 동안)에 벽-(\*에+)을 칠했다.

위 ‘칠하다’ 구문에서 보어인 장소명사 뒤에는 ‘-에/를’이 교체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를’ 시간명사구는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을 표시하고 ‘-에’ 시간명사구는 동작의 완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표시한다. 그런데 비대격적 장소보어 ‘N-에’가 선택될 때에는 ‘-에’ 시간명사구가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를’ 시간명사구는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에’ 시간명사구와 부분적 관여를 함축하는 ‘N-에’ 장소보어의 의미특성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N-를’ 구문은 벽을 칠해야 할 대상으로서 공간 전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 ‘-에’ 시간명사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타동성 처소 교체 구문의 ‘-에’ 구조와 ‘-로’ 구조가 시상적 속성에 있어 서로 다른 행태를 보여줌을 관찰할 수 있다. 타동성 처소 교체 구문의 경우에 ‘-에’ 구조는 동작동사의 특질을 가지며 ‘-로’ 구조는 완성동사의 특질을 보인다 (양정석 1995:116).

타동사 구문과는 대조적으로 자동성 처소 교체 구문은 동작의 완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표시하는 ‘-에’ 시간명사구가 자연스럽게 용인되지 않는 것 같다.

- (21) 가. 백화점에 사람들이 한시간(동안+?만에) 들끓었다.  
나. 백화점에 사람들이 한시간(동안+?만에) 들끓었다.

이것은 아마도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을 이루는 동사부류들의 의미적 속성

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동사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정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 운동이나 반복적 움직임을 묘사하는 동사들인데 이러한 반복적 움직임은 동작의 완결이라는 해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들끓다, 바글거라다 등의 동사가 분명 의미적으로는 동작동사이지만 그것의 문법적 행태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동작이 큰 동태적 행위라기보다는 작은 동작의 정태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어의 처소격 조사는 ‘-에’와 ‘-에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는 정태적 행위(있다/없다/살다)와 ‘-에서’는 동태적 행위와 함께 사용된다(cf. Yeon & Brown 2011). 다음 예문에서처럼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들은 ‘-에’ 보어만을 취한다.

(22) 가. 백화점-(에 + \*에서) 사람들이 들끓었다.

나. 백화점-(\*에 + 에서) 사람들이 뛰었다.

이것은 이 동사부류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인데, 이 동사들이 ‘-에’ 장소보어를 택한다는 말은 이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들이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태적 행위라는 것을 함축한다.

## 2.5. ‘-로’ 명사구의 표제명사화

다음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사 장소보어 교체 구문의 ‘-로’ 명사구는 표제명사화 될 수 없다(남기심 1993:273).

(23) 가. 골목길이 구경꾼들로 메어진다. → \*골목길이 메어지는 구경꾼

나. 장터가 사람들로 붐빈다. → \*장터가 붐비는 사람들.

다. 하늘이 별들로 반짝인다. → \*하늘이 반짝이는 별들

이와는 달리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로’ 명사구는 표제명사화 될 수 있다.

- (24) 가. 영수가 책표지를 검은색으로 칠했다. → 영수가 책표지를 칠한 검은색  
나. 순이가 정원을 소나무로 가꾸었다. → 순이가 정원을 가꾼 소나무

‘-로’ 명사구의 표제명사회에 있어서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이 통사행 대상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두 구문에서 ‘-로’ 명사구의 통사적 지위가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6. 주어명사의 의도성

홍재성(1986)에서 지적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적 특성은 자동사적 장 소보어 교체 구문의 ‘에’구조에서 주어가 인물명사일 경우에도 정상적인 인물명사가 보이는 ‘의도성’이나 ‘활동성’의 의미특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물 주어는 행위자(agent)로 해석되기 어렵고, 이들 동사들을 동작동사로 판별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다음 예문에서 이 점을 관찰할 수 있다.

- (23) \*젊은 부인네들이 {일부러, 마지못해} 백화점에 들끓었다.

그러나 자동사적 처소 교체 구문과는 달리,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에서는 인물 주어가 ‘의도성’이나 ‘활동성’의 의미특성을 가질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6) 가. 영수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벽에 신문지를 붙였다.  
나. 순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정원에 양귀비를 가꾸었다.

위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에서 주어는 의도성이나 활동성의 의미특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주어는 의도성이나 활동성의 의미특성을 갖는다.

### 3. 비대격 분석에 대한 비판

레빈(Levin 1993:54)이나 레빈과 라파포트(Levin & Rappaport 1995: 178) 등의 학자들은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과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 사이에 존재하는 평행성에 주목하여 자동사 구문을 타동사 구문의 “비대격” 변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사 구문을 타동사 구문의 대당 구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다우티(Dowty 1997)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비대격 분석을 거부하고 있다.

첫째, 자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부류와 타동사부류에 나타나는 동사부류의 의미 속성(semantic properties)이 전혀 다르다. 더구나 ‘swarm’류의 자동사들은 비대격 동사들이 갖는 의미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sup>13)</sup>

둘째, 장소보어 교체 구문에 나타나는 타동사들이 자동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 동사들은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지 않는다.

- |         |                                    |                                |     |                                    |                                 |
|---------|------------------------------------|--------------------------------|-----|------------------------------------|---------------------------------|
| (27) a. | Max spread a cloth over the table. | ↔                              | a'. | Max spread the table with a cloth. |                                 |
|         | b.                                 | A cloth spread over the table. | ↔   | b'.                                | *The table spread with a cloth. |

---

13) 비능격적(unergative) 자동사와 비대격 자동사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신효필(1992)에서 다시 인용).

- (1) 조동사 선택(auxiliary selection): 이탈리아의 ‘완료(perfect)’ 시제에는 타동사문과 비능격 자동문에서는 avere(have)가 선택되고 비대격 구성에서는 essere(be)가 선택된다.
- (2) 비인칭 수동화(impersonal passives): Dutch에서 비대격 구성은 비인칭 수동태를 갖지만, 비능격 구성은 그렇지 않다.
- (3) 결과 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 영어에서 결과 구문은 비능격 자동사 구문에 는 적용될 수 없다.

이 외에도 일치(agrrement)나, 부분사 ne-접사화(partitive ne cliticisation) 현상 등이 있다.

- (28) a. Max sprinkled water on the lawn. ↔ a'. Max sprinkled the lawn with the water.
- b. The water sprinkled the lawn. ↔ b'. \*The lawn sprinkled with water.

(27a, a'), (28a, a')는 각각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타동사들의 예이고, (27b), (28b)는 이 타동사들이 자동사적으로 사용된 예이며, (27b'), (28b')는 여기에 대응하는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셋째, 이와는 반대로, 처소 교체 구문에 나타나는 자동사들이 타동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 동사들은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지 않는다.

- (29) a. The sound echoed down the hall. ↔ a'. The hall echoed with sound.
- b. The walls echoed the sound down the hall. ↔ b'. \*The walls echoed the hall with sound.
- (30) a. Excitement kindled in her eyes. ↔ a'. \*The walls echoed the hall with sound.
- b. Something kindled excitement in her eyes. ↔ b'. \*Something kindled her eyes with excitement.

(29a, a'), (30a, a')는 각각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자동사들의 예이고, (29b), (30b)는 이 자동사들이 타동사적으로 사용된 예이며, (29b'), (30b')는 여기에 대응하는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넷째, 2.3.에서 간략히 살펴본, 수표현 명사구와의 결합시 보여 주는 차이점 등이 비대격 분석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어의 처소 교체 구문을 분석하면서 양정석(1995)은 ‘처소교차’ 자동사들의 ‘능격성’에 주목하여, 자동사문과 타동사문의 어휘통사 구조를 비슷하게 표시함으로써 비대격 분석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은 양정석(1995:100)에서 제시한, 처소 교체 구문을 이루는 타동사의 두 가지 어휘통사 구조이다.

- (31) 가.  $x < y, z^{\wedge}LOC >$  (청소부들이 건물벽에 페인트를 칠했다)  
 나.  $x < z, y^{\wedge}PAT >$  (청소부들이 페인트로 건물벽을 칠했다)

(31가)에서 ‘x’는 동사구의 외부에 위치하는 논항(‘외부논항’이라고 한다)으로 문장구조에서 주어와 연결되며, ‘y’는 동사구의 ‘내부논항’이면서 ‘직접논항’으로서 목적어로 연결된다. ‘z’는 ‘에/에게’, ‘한테’ 등의 조사에 지배받는 것으로 가정되는 명사구 성분으로 ‘간접논항’이라고 한다. (31나)에서도 ‘x’는 외부논항, ‘z’는 내부직접논항, ‘y’는 내부간접논항이다.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두 가지 어휘통사 구조는 “처소교차 자동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능격동사’로서의 통사적인 특징” 때문에 ‘외부논항’을 결합 다음과 같은 구조로 표시된다(양정석 1995:101).

- (32) 가.  $< y, z^{\wedge}LOC >$  (별들이 밤하늘에 반짝인다)  
 나.  $< z, y^{\wedge}PAT >$  (밤하늘이 별들로 반짝인다)

‘처소교차’ 자동사들이 ‘능격동사’이기 때문에 어휘통사 구조가 위와 같이 주어는 없고 타동사문의 구조와 비슷하게 표시된다는 주장이다<sup>14)</sup>.

그런데 “처소교차 자동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능격동사’로서의 통사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한국어에서 소위 능격동사 혹은 비대격 동사

14) (31)이나 (32)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 어휘통사 구조는 완전히 실현된 통사구조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어휘통사 구조로부터 통사 구조로 연결시켜 주는 연결규칙이 필요하다. 그런데 D구조에서 주어 없는 구조를 형성하는 능격 동사들의 예에서는 내부논항을 표면의 주어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아니면 목적어로 연결하는지 의심스럽다. 아마 S구조에서 주어의 실현을 요구하는 독립적인 제약에 의해서 주어 위치로 실현될텐데, 이러한 제약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겠다.

라고 불리는 동사들이 각주 (13)에 제시된 유럽어들에 보이는 비대격 동사들의 통사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논의되지 않았고, “‘능격동사’들은 주어논항이 전형적으로 ‘대상(theme)’의 의미역을 갖는 동사들”(양정석 1995:96)이라고 의미적 정의만을 내린 상태에서 한국어의 분석에 비대격 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논의와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sup>15)</sup>

우리는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에 비대격 분석을 적용하여,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이나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을 한 가지로 설명하려는 시도나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을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대당 구문으로 - 혹은 그 역으로 - 간주하는 견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사문과 타동사문에 나타나는 동사부류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수표현 명사구와의 결합 가능성, 시상적 속성 등에서 통사 의미적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4.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과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통사 의미 특성을 비교하고 이 두 구문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두 구문 사이의 공통점은, 자동성 처소 교체 구문과 타동성 처소 교체 구문 모두 장소보어의 전체적 관여와 부분적 관여라는 의미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장소보어가 자동문에서 주어로, 타동문에서 직접목적어로 사용되었을 때, 전체적 관여의 의미 특성을 보여 주는 현상은, 조사 ‘로’나 ‘을/를’의 의

---

15) 각 언어마다 비대격 구성과 비능격 구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어의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없이 영어의 비대격 구성에 해당되는 한국어 어휘를 그냥 비대격 동사로 취급해 온 경향이 있다.



미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듯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고를 기약한다.

전체적 관여와 부분적 관여라는 의미차이를 제외하면, 자동성 처소 교체 구문과 타동성 처소 교체 구문은 동사부류, 수표현명사구와의 결합 가능성, 시상적 속성 및 시간 명사구와의 결합 가능성, ‘-로’ 명사구의 표제명사화, 주어명사의 의도성 등에서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제 두 구문 사이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타동사는 완결점이 있는 완결동사들인데 비해, 자동사는 완결점이 없는 비완결동사들이다. 또 타동사들은 상태변화를 함의하는 완성동사이고, 자동사들은 단순운동이나 빛의 발사 등을 나타내는 특정 의미부류에 속하는 과정동사들이나 상태동사들이다.
- 2)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나타내는 양화사가 ‘로’-보어와 함께 쓰일 수 없지만,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에서는 쓰일 수 있다.
- 3) 타동사 구문과는 대조적으로 자동성 처소 교체 구문은 동작의 완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표시하는 ‘-에’ 시간명사구가 자연스럽게 용인되지 않는다.
- 4)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로’ 명사구는 표제명사화 될 수 없지만,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로’ 명사구는 표제명사화 될 수 있다.
- 5) 자동사 처소 교체 구문에서 주어는 의도성이나 활동성의 의미특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주어는 의도성이나 활동성의 의미특성을 갖는다.

가능피동구문

중립동사 구문

상호 구문

주격중출 구문

심리동사구문

수어동사 구문

소유 구문

신체부위명사구문

처소교체구문

관계절

사동문

피동문

격표지 유형론

여격주어구문

소유주 상응 대격 중출 구문

## 8장

###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

#### 1. 머리말

이 장에서는 소위 소유주 상승 구문이라고 불리는 대격 중출 구문의 형태 구조와 의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말하는 소유주 상승 구문이란 다음과 같은 구문을 가리킨다.

- (1) 가.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 나. 영수가 순이를 손을 잡았다.

(1가)에서 소유격 표지 ‘의’와 함께 쓰이던 소유주 ‘순이’가 (1나)에서 대격 표지 ‘를’을 취하면서 목적어의 위치로 상승<sup>1)</sup>되었다고 보고, ‘소유주 상승 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뒤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이때, 소유주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구문들은 일반적으로 신체부위명사구를 포함하는 구문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신체부위명사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

1) 여기서 말하는 ‘상승’이란 변형 조작으로서의 ‘raising’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주어 > 직접목적어 > 간접목적어 > 사격 > 소유격 > 비교’와 같은 문법관계 위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소유격 표지의 명사구가 대격 표지 직접목적어로 교체됨으로써 문법관계 위계가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다.

유형론적으로 신체부위명사구를 포함하는 구문들은 형태, 통사 구조상 신체부위명사가 그 소유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언어외적/실제적 현실(extra-linguistic/real world fact)을 반영한다는 점이 우리의 관점에서 흥미를 끄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와 유럽어들에서는 소유주 명사구가 직접목적어나 여격 표지 목적어자리로 상승되고 소유물 명사구는 전치사구를 포함하는 사격 보어의 위치로 ‘하강’한 다음과 같은 구문들을 소유주 상승 구문이라고 불러 왔다(Fox 1981).

- (2) a. I kicked him in the leg.  
b. I kissed him on the cheek.

- (3) Spanish: a. Le seco las lagrimas.  
her he-dried the tears  
“He dried her tears.”  
b. Le veo las enaguas.  
her I-saw the petticoat  
“I saw her petticoat on her.”

스페인어 예문 (3)에서 소유주는 일반적인 소유격 형태 대신에 여격 대명사 형태로 나타나고, 소유물은 정관사 ‘las’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외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소유주 명사는 대격 표지를 갖는 주목적어<sup>2)</sup>의 위치로 상승되고, 소유물 또한 대격 표지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소위 ‘대격 중출 구문’

---

2) 주목적어는 ‘Primary object’를 가리킨다. 소유주 인상 구문에서 목적어로 상승된 소유주를 우리는 주목적어라 부르고, 원래의 목적어가 대격 표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적어로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부목적어 ‘Secondary object’라고 부른다. 주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상승될 수 있지만, 부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는 통사행태상의 차이를 보인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 가.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 영수가 순이를 손을 잡았다.  
나. 순이가 영수에게 손을 잡혔다.  
다. \*순이 영수에게 순이를 잡혔다.

을 형성하게 된다.<sup>3)</sup>

(4) 가. 영수가 순이의 손을 때렸다. → 영수가 순이를 손을 때렸다.

나. 영수가 순이의 등을 밀었다. → 영수가 순이를 등을 밀었다.

(4가)와 (4나)에서 소유격 표지의 소유주 ‘순이’가 대격 표지의 목적어로 문법관계를 바꾸고 있음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이 때 소유주가 목적어로 상승될 수 있는 것은 뒤에 신체부위명사가 소유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가능-유형 문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앞서서도 잠시 암시된 것처럼, 대격 표지를 갖는 목적어는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나 사건에 의해 일차적으로 변화를 입거나 ‘영향받음(affectedness)’을 그 보편적 의미 특성으로 한다. 그리고 소유격 표지의 사격 명사구는 기본적으로는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나 사건에 의해 변화되거나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4)에서 변화나 영향받음의 관점에서 중립적이었던 소유주 명사구가 목적어의 자격으로 상승되어 대격 표지를 받음으로써 동사의 행위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받는 수동자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승이 가능한 이유는 순이의 ‘손’이나 ‘등’이 동사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신체부위의 소유자인 ‘순이’가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체부위와 그 소유자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 세계의 사실을 언어의 문법구조와 그 행태가 반영하고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신체부위명사가 아닌 분리가능한 소유물의 경우에 소유주 상승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예문 (5)를 (4)와 비교함으로써 그

---

3) 이 경우 대격 표지된 명사구가 두 번 나타나지만, 동사 ‘잡다’, ‘때리다’, ‘밀다’ 등의 논항 구조는 여전히 하나인 것으로 간주한다. 즉 소유주가 인상되어 대격 표지를 받으면, 그것이 주목적어로서 동사의 논항이 되고, ‘손’, ‘등’ 등의 신체부위명사는 대격 표지를 그대로 간접하고 있지만, 이차적 목적어로서 ‘강조’나 ‘의미의 정밀화’에는 기여하지만 논항 구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격 표지된 명사구라 하더라도 논항 구조에 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볼 수 있다.

(1) 가. 영수가 책을 두 권을 샀다.

나. 순이가 친구를 한 명을 만났다.

타당성을 뒷받침 받을 수 있다.

(5) 가. 영수가 순이의 사과를 먹었다. → \*영수가 순이를 사과를 먹었다.

나. 영수가 순이의 선생을 때렸다. → \*영수가 순이를 선생을 때렸다.

(4)에서는 소유주와 소유물 사이의 관계가 밀접했기 때문에 소유물이 동사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입으면 필연적으로 그 소유주도 그 행위에 의해 영향을 입는다. 그 결과 소유주가 동사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목적어의 위치로 상승되어 대격 표지를 갖는 것이 가능했다. 그에 반해서, (5)에서는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가 (4)만큼 밀접하지 않고, 소유물이 동사의 행위에 의해 변화를 입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주는 그 행위에 의해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목적어의 위치로 상승되어 대격 표지를 받으면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통사 구조의 행태상의 차이는 (4),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부위명사가 소유물로 사용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법행태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체부위명사와 그렇지 않은 명사들(분리가능한 소유물 명사들)은 통사행태상 상이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문법현상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자료를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소유주 상승 구문을 허용하는 조건이 ‘신체부위명사’나 ‘분리불가능한 소유관계’라는 간단한 조건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아래에서 대격 중출 구문을 성립시키는 의미-화용론적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2. 소유주 상승 구문의 문법적 관찰

소유주 상승 구문에서 소유주는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등의 문법관계로 상승되고 능격 언어에서는 능격이나 절대격의 격표지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승된 소유주가 사격으로 표지되는 일은 없다 (Payne and Barshi

1999: 3).

전통적 변형문법이나 관계문법에서는 소유격 소유주가 변형을 거쳐 상위 통사 단위인 주어나 목적어로 변형 또는 인상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설명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소유주 상승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을 보자.

(6) 가. 내가 목이 마르다.

나. ?나의 목이 마르다.

(7) 가. \*?경찰이 나를 집을 수색했다.

나. 경찰이 나의 집을 수색했다.

예문 (6-7)은 소유주 상승이 불가능하거나 어색한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소유주 상승 구문과 소유격 구문 사이에는 의미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유주 상승 구문을 소유격 구문에서 도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a. 영수가 발이 넓다.

b. 영수의 발이 넓다.

(9) a. 순이가 손이 크다.

b. 순이의 손이 크다.

‘발이 넓다’나 ‘손이 크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외에도 ‘사교 범위가 넓다’나 ‘인심이 좋다’는 숙어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a)에서는 이러한 숙어적 의미가 잘 드러나지만, (b)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더욱이 소유주 상승 구문과 소유격 구문 사이에는 의미차이뿐만 아니라 화용상의 차이도 존재한다.

(10) a. 영수가 순이의 옷을 만졌다.

b. 영수가 순이를 옷을 만졌다.

(10b)는 순이가 옷을 입고 있는 경우에만 발화 가능한 구문인데 반해서

(10a)는 순이와 옷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문이다.<sup>4)</sup> 이러한 화용론적 의미차이는 형식문법의 틀 안에서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요소들이다<sup>5)</sup>. 형식문법 학자들과는 달리, 기능문법 학자(Chappell and McGregor 1996b)들은 (10a)와 (10b)의 의미차이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 첫째, (10b)에서 옷을 만지는 행위는 순이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10a)에서 소유물, 즉 옷은 소유자인 순이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0b)에서는 영수의 만지는 행위가 순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10a)에서는 순이가 아니라, 순이의 옷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Heine 1997).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두 구문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소유주 상승 구문이 소유격 구문으로부터 도출되었다는 도출 가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

4) 소유주 상승 구문과 대당 소유격 구문 사이의 화용론적 의미차이는 아메리카 인디언어인 모호크어(Mohawk)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Baker 1999:294, ex.(3); 311, ex.(32c); also cited from M-J Kim 2000).

- (1) a. Wa'-khe-hsin-ohare-'(소유주 상승 구문)  
 FACT-1SG:SUBJ/FEM:SG:OBJ-leg-wash-PUNC  
 "I washed her leg."  
 b. Wa'-ke-nohare-'(원래의 소유격 구문)  
 FACT-1SG:SUBJ/(NEUT:SG:OBJ)-wash-PUNC(NEUT:SG:SUBJ)/FEM:  
 SG:POSS-leg-NOM:SUFF  
 "I washed her leg."

베이커의 해석에 따르면, 소유격 구문인 (1b)에서는 씻고 있는 대상인 신체부위 '다리'가 마치 여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 회한한 의미를 나타내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 5) 최근에 소유주 상승 구문의 소유주는 FP라고 하는 specifier 위치에서 허가되고 거기에 'affect'라고 하는 의미역(theta role)이 할당된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Ko 2005, Tomioka & Sim 2005), 이것이 얼마나 설명적 타당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실제로 페어물렌(Vermeulen 2005) 같은 형식문법 학자는 소유주 상승 구문의 소유주가 동사구(VP) 내에서 생성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영향받음' 자질 같은 것은 문법적으로 정의되는 의미역함이 아니고 화용론적으로 결정되고 해석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소유주 상승 구문은 한국어에서 세 가지 구문으로 나타날 수 있다.

- (11) a. 영수가 순이를 팔을 때렸다(대격중출).
- b. 영수가 순이에게 팔에<sup>6)</sup> 주시를 놓았다(여격 중출).
- c. 영수가 순이 크다(주격 중출).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대격 중출 구문으로 한정한다. 우리는 이 구문을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이라 부르기로 한다.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의 특성과 제약에 대해서 고찰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언어학적 사실을 관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 2.1. 소유주와 소유물의 어순

소유주와 소유물 사이의 어순은 항상 소유주가 소유물을 선행한다.

- (12) a. 영수가 순이를 팔을 때렸다.
- b. \*영수가 팔을 순이를 때렸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격 중출 명사구가 서로 밀접하게 붙어서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 다른 문장 성분이 이 둘 사이에 삽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 (13-15)를 보자.

- (13) 양태부사와의 공기
- a. 영수가 순이를 팔을 세게 때렸다.
- b. 영수가 순이를 세게 팔을 때렸다.
- c. 영수가 세게 순이를 팔을 때렸다.

---

6) ‘-에’는 처격 조사로도 쓰이지만, ‘-에게’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여격 조사로도 사용된다. ‘-에게’는 유정물, ‘-에’는 무정물 여격 보어에 쓰이는 것으로 보고 여격 조사가 중출되는 구문으로 보았다(Maling and Kim (1992:43)).

(14) 시간부사와의 공기

- a. 영수가 어제 순이를 팔을 때렸다.
- b. 영수가 순이를 어제 팔을 때렸다.
- c. 영수가 순이를 팔을 어제 때렸다.

(15) 장소부사와의 공기

- a. 영수가 순이를 팔을 교실에서 때렸다.
- b. 영수가 교실에서 순이를 세게 팔을 때렸다.
- c. 영수가 순이를 교실에서 팔을 때렸다.

예문 (13-15)은 소유주와 소유물이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지는 않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부사가 그 사이에 삽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 2.2. 소유주와 소유물의 문법적 지위

문법 관계는 격표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은 문장 내에서 통사적 테스트를 거쳐 정해진다. 다음과 같은 피동화, 관계화, 성분 이동 등의 테스트를 통해 볼 때, 소유주가 문장 주성분(여기서는 목적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소유물은 문장 부성분으로 기능한다.

(16) 성분 이동

- a. 순이<sub>i</sub>를 영수는  $t_i$  팔을 때렸다
- b. \*팔을 영수는 순이를  $t_i$  때렸다.

(17) 관계화

- a. [영수가  $t_i$  팔을 때린] 순이<sub>i</sub>
- b. \*[영수가 순이를  $t_i$  때린] 팔<sub>i</sub>

(18) 피동화

- a. 순이가 영수한테 팔을 잡혔다.
- b. \*팔이 영수한테 순이를 잡혔다.

피동화의 경우,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유주와 소유물이 동시에 피동화 되는 것은 가능하다.

(19) 순이가 영수한테 팔이 잡혔다.

위와 같은 통사적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면,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에서 목적어의 지위를 유지하는 성분<sup>7)</sup>은 소유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의 목적어 성분인 소유물은 목적어의 지위를 상실하고 문장 부가 성분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에서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에 작용하는 제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화용론적 인지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러한 제약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 3. 소유주 상승 구문의 성립 조건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에 작용하는 제약은 언어마다 다른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어떤 언어에서는 신체부위 소유 구문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언어에서는 다른 제약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Chappell and McGregor 1996b 참고). 이 제약은 순수히 통사적 관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Chun 1986, Kim 1990), 그렇다고 관계문법에서처럼 관계 변형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고, 의미역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Shibatani 1994, O'Conner 1996 참고).

---

7) 팔머(Palmer 1994)의 용어에 따르면 primary object라고 할 수 있다.

Park(1985: 341)은 통사적 제약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직접목적어의 소유주가 문장의 주어와 동지시 관계에 있으면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 a. 인수가 자신의 손톱을 깎았다.
- b. \*인수가 자신을 손톱을 깎았다.

두 번째, 만일 소유격 명사를 포함하는 구가 내포문 주어 위치에서 인상된 목적어라면, 소유주 상승이 인상된 목적어 구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 (21) a. 민수가 책의 표지가 찢기었다고 생각한다.
- b. 민수가 책의 표지를 찢기었다고 생각한다.
- c. \*민수가 책을 표지를 찢기었다고 생각한다.

(21c)에서 ‘책의 표지를’이 ‘책을 표지를’로 소유주 상승할 수 없는 이유는 ‘책의 표지’가 이미 (21a) 구조에서 목적어 도출된 (21b)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상진(Park 1985: 342)이 제시한 의미적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이 가능하려면 소유구의 소유주와 소유물 사이에 전체-부분과 같은 일정한 의미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논의에서도 밝혀지겠지만, 이 의미 관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부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유주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전체-부분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군의 언어학자들(Kim 1989; James Yoon 1989, 1990; Yoon 1998)은 (22)의 예처럼, 소유물이 반드시 신체부위명사일 때만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22) a. 존이 메리를 손을 때렸다.  
 b. \*존이 메리를 어머니를 때렸다.

대부분의 경우에 신체부위명사가 소유물일 경우에 대격 중출 구문이 성립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소유물이 신체부위명사가 아닐 경우에도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이 가능하다.

- (23) a. 경찰이 순이를 가방을 잡았다.  
 b. 영수가 순이를 옷을 찢었다.  
 c. 민수가 순이를 신발을 밟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순이’가 실제로 가방을 들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에만 대격 중출 구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재훈(Yeon 1999)에서 지적한 것처럼, (23b)에서 순이의 옷이 옷장에 걸려 있는 경우라면 대격 중출 구문이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선 많은 연구에서 제안된 것과 같은 분리불가능한 소유물(inalienable possession; 신체부위명사 등)과 분리가능한 소유물(alienable possession) 사이의 절대적 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유주와 소유물이 실제로 가깝게 붙어 있느냐, 물리적으로 접근해 있느냐 하는 것이 대격 중출 구문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근거해서 연재훈(Yeon 1999)에서는 물리적 근접성(physical contiguity)을 대격 중출 구문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이 조건을 좀더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물리적 근접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설명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소유주가 분리가능한 소유물, 예를 들면, 사과, 책, 팔찌 등을 들거나 잡고 있는 경우, ‘물리적 근접성’이라는 요소는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지만 대격 중출 구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순이가 사과를 들고 있고 영수가 다가와 그 사과를 깨물어 먹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보자.

(24) a. \*영수가 순이를 사과를 먹었다/깨물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4a)를 발화하는 것은 거의 비문에 가깝다. 반면에 다음 (24b)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어 화자들의 문장 용인성이 (24a)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다. 순이가 사과를 들고 있고, 개가 다가와 순이를 물려다가 그 사과를 문 경우를 상정해 보자.

(24) b. ?개가 순이를 사과를 물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근접성’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영향받음’(affectedness)이라는 요소가 대격 중출 구문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a, b)의 차이는 순이가 실제로 주어의 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24a)에서는 영수가 사과를 먹거나 깨무는 행위에 의해서 순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해석되는 반면에 (24b)에서는 개의 무는 행위에 의해서 순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다음 영어 예문을 살펴보자.

(25) a. ?\*He tapped me on the bracelet.

b. He tapped me on the left rear bumper [to describe a car accident].

영어 화자들이라면 (25a)가 (25b)보다 더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sup>8)</sup>. 내가 팔찌를 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와 팔찌의 물리적 거리가 나와 자동차 뒤 범퍼와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데도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은 물리적 접근성만 가지고는 대격 중출 구문의 제약 현상을 만족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도 소유주가 동사로 야기된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는 주관적 판단이 관여하고 있는 듯하다. (25b)가

8) 이 영어 문장에 대한 문법성은 Yeon(2003)을 논평한 영어 화자의 판단에 토대를 두고 있다.

(25a)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 접근성’이란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접근성’과 ‘영향받음’이라는 자질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영향받음’이라는 요소는 다분히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형식문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식적인 요소에 의해서 제약을 명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보통 신체부위에 가해진 행위는 다른 분리가능한 소유물에 행해진 행위보다 소유주에 더 영향을 입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체부위명사가 다른 명사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행태를 보이는 사실은 인지 언어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신체부위명사는 물리적으로 소유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부위가 영향을 입으면 그 소유주도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체부위명사가 소유물로 등장하는 구문은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기 쉬운 것이다.

그런데 신체부위명사가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비동작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대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기 어렵다. 비동작동사는 목적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따라서 목적어의 ‘영향받음’이라는 자질로 볼 때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6) a. 영수가 순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 b. \*영수가 순이를 목소리를 들었다.
  
- (27) a. 영수가 순이의 다리를 보았다.
- b. ??영수가 순이를 다리를 보았다.

‘목소리’도 넓은 의미에서 신체부위명사로 간주한다면, (26b)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듣다’라는 비동작동사의 사용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 즉 영수가 순이의 목소리를 듣는 사건에 의해서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 ‘순이’는 거의 아무 변화나 영향을 입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가 상승된 구문은 어색하

게 들리는 것이다. 듣는 행위와 비교해서 보는 행위도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므로, (27b)는 완전히 비문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이상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듣다’나 ‘보다’와 같은 비행동 지각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신체부위명사가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해도 대격 중출 구문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sup>9)</sup> 그에 반해, (28a, b)처럼, ‘쳐다보다’ 같은 동사나 ‘뚫어지게’ 같은 의도성이 강한 부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문장의 문법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28) a. ?영수가 순이를 다리를 쳐다봤다.  
b. ?영수가 순이를 다리를 뚫어지게 봤다.

따라서 대격 중출 구문의 성립은 문맥과 언어외적 화용론적 상황에 많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격 중출 구문의 성립 조건을 통사적 제약이나 의미역할의 특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형식문법 학자들의(Tomioka & Sim 2005) 노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의 성립은 언어에 따라서, 소유주의 의미적 특

---

9) 하이만(Hyman 1977)도 동사의 종류에 따라 소유주 상승 구문의 허용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폭스(Fox, 1981)도 똑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영어와 네덜란드어의 예를 들고 있다.

- (1) Dutch: a. Ik schudde hem de hand  
I shook him the hand  
“I shook his hand.”  
b. \*Ik zag hem de hand  
I saw him the hand  
“I saw his hand.”
- (2) a. I hit her on the leg.  
b. \*I saw her on the leg.

(1a)의 ‘shake’나 (2a)의 ‘hit’와 같은 동작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소유주를 목적어자리로 인상해서 소유주 상승 구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1b)나 (2b)에서처럼 지각동사가 사용된 구문에서는 소유주를 목적어자리로 상승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유주 상승 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성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유주가 인물명사인가, 아니면 유정명사나 무정명사인가의 대립에 따라 소유주 상승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Hyman 1977:106). 폭스(Fox 1981)도 무정물의 소유주-소유물 관계는 유정물의 소유관계만큼 현저하지 않고 ‘영향받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유정물만큼 영향받음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정물의 경우에는 유정물만큼 대격 중출 구문이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폭스(Fox 1981: 328)의 다음 예문을 보자.

- (29) a. I hit her on the leg.  
 b. ?I hit the tree on the branch.  
 c. \*I painted the house on the door.

예문 (29)에서 보는 것처럼, 인물명사가 소유주일 경우에는 소유주 상승이 자연스럽지만, 비인물명사나 무정명사가 소유주로 사용되면서는 그 자연스러움이 덜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소유주로서 유정물과 무정물의 차이는 ‘물리적 근접성’의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가지 사이의 근접성은 사람과 다리의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기에 관여하는 요소는 소유주의 전형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한다. 전형적인 소유주는 사람이나 유정물로 인식되고 있고 무정물은 보통 전형적인 소유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형성이라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문화에 따라 범언어적으로 차이를 보여 주기는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에서는 무정물 소유주의 경우에도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을 허용한다. 호주 원주민 언어의 하나인 마알리어(Mayali)<sup>10)</sup>에서는 소유주 상승 구문이 인물명사뿐만 아니라 나무나 식물 같은 비인물-유정 소유주의 경우에도 허용된다(Evans 1996:92). 유정성의 정도에 따른 소유주

10) 마알리는 호주 북서부 Gunwinyguan어의 하나이다.

상승의 허용 가능성은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비인물명사나 무정명사가 소유주로 나타나더라도 소유주 상승의 허용도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예문이 이 사실을 보여준다.

- (30) a. 영수가 나무의 가지를 잘랐다.
- b. 영수가 나무를 가지를 잘랐다.

- (31) a. 민수가 집의 벽을 허물었다.
- b. 민수가 집을 벽을 허물었다.

(30b)에서는 비인물-유정명사 ‘나무’가 소유주 상승되었고, (31b)에서는 무정명사 ‘집’이 소유주 상승되었는데, 둘 다 자연스러운 문장들을 형성하고 있다. 범언어적으로 소유주 상승 구문은 소유주가 유정물인 경우에 국한되는 언어가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어는 이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유정성의 정도가 소유주 인상 구문 형성에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 (32) 가. 영수가 그 책의 표지를 찢었다.
- 나. 영수가 그 책을 표지를 찢었다.

(32나)에서 무정명사 ‘책’이 목적어자리로 상승되어 대격 표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영어와는 달리, 소유주의 유정성의 정도가 소유주 상승 절차의 제약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아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정성의 정도가 피동 구문을 형성하는 데는 하나의 제약으로 행세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영어와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영어에서는 피동문의 주어자리에 유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적어도 행위자 인물명사구가 명시된 피동문에서는 무정명사가 주어자리에 오는 것이 아주 어색해 보인다. 예문 (33)을 보자.

(33) 가. 영수가 그 책을 표지를 찢었다.

나. \*그 책이 영수에게/에 의해서 표지를 찢겼다.

(33)에서 소유주 상승 절차에 의해서 목적어자리에 온 대격 표지 부정명사 ‘그 책’은 피동문의 주어자리에 올 수 없다. 이것은 다른 소유주 상승 구문에서 대격 표지된 인물명사가 피동문의 주어자리로 또 한 번 상승될 수 있다는 통사행태와 비교해 볼 때, 특이한 현상이며, 따라서 한국어의 피동문 형성에서는 유정성의 정도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34) 가. 영수가 순이를 손을 잡았다. → 순이가 영수한테 손을 잡혔다.

나. 영수가 순이를 등을 밀었다. → 순이가 영수한테 등을 밀렸다.

목적어자리로 상승된 인물명사 ‘순이’는 (34)에서처럼, 피동문의 주어자리로 자연스럽게 인상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비인물명사와 부정명사가 소유주 상승된 (35)문장의 피동문의 허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35) 가. 영수가 나무를 가지를 잘랐다. → ?나무가 영수한테 가지를 잘랐다.

나. 영수가 집을 벽을 허물었다. → \*집이 영수에 의해 벽을 허물렸다.

비인물명사가 피동문의 주어로 사용된 (35가)는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비문법적이지는 않고, 부정명사가 피동문의 주어로 사용된 (35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장이 되어 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행위자 인물명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피동문에서 부정명사는 피동문의 주어자리에 잘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다.<sup>11)</sup>

영어에서 유정성의 정도는 소유주 상승 절차의 제약조건으로 사용된 반면,

---

11) 행위자 인물명사가 삭제된 피동문에서는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부정명사가 자유롭게 피동문의 주어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

(1) 가. 아파트가 지난달에 헐렸다.

나. 책 표지가 찢겨서 보기가 나쁘다.

다. 이 음식이 오늘은 잘 안 먹힌다.

한국어에서 유정성의 정도는 피동문에서의 주어화 절차의 제약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한국어 문형 구조에서 유정성의 정도는 어떤 명사구 논항이 주어 위치에 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즉 한국어 문장에서 두 개의 명사구 논항이 명시적으로 표시될 경우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보통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앞서서도 논의된 바 있다.<sup>12)</sup> 이상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유정성의 정도라는 의미 자질이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주어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행세하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소유주 상승 구문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서 논의를 진행하자.

우리는 지금까지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을 허용하는 제약으로 ‘영향 받음’ 자질과 ‘물리적 근접성’을 상호 작용하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연재훈(Yeon 1999)에서 제시한 ‘물리적 근접성’이란 자질만 가지고는 제약 조건을 만족스럽게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을 위에서 강조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지원을 얻을 수 있다. 범언어적으로 소유주 상승 구문은 소유주가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끊어진 시체 등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 근접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시체나 무의식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도 물리적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의식 있는 소유주와 별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영향받음’이란 자질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명이나 의식이 없는 소유주의 경우에는 소유물에 대한 동사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입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 상승 구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주 상승 구문에서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를 단순히 분리불

---

12) 5장 5절 능동, 피동의 선택: 주어 선택 제약과 유정성의 관계를 참고할 것. Klaiman(1988)은 한국어에서 기본적으로 유정성(Animacy)의 정도가 주어의 선택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능동문과 피동문의 선택이 주어 명사구의 유정성 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능한 소유관계나 신체부위명사라고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제약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서도 소유주 상승 구문에 나타나는 의미관계는 신체부위명사나 전체-부분 등의 의미관계보다 훨씬 다양한 의미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름’이나 ‘사진’ 등의 초상권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대리 대표권(personal representation; Chappell-McGregor 1996)’까지도 포함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6) a. 반장이 순이의 이름을 적었다.
- b. 반장이 순이를 이름을 적었다.
  
- (37) a. 영화감독이 영수의 사진을 찍었다.
- b. 영화감독이 영수를 사진을 찍었다.

위 예문들에서는 ‘신체부위’나 ‘분리불가능한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름’, ‘사진’ 등이 소유물로 쓰인 구문에서 소유주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예문들의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체부위’라는 개념이 너무 협소한 조건임을 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름’이나 ‘사진’과 같은 비신체부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리불가능이나 분리가능이라는 용어도 협소하고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름이나 사진, 가발 등의 명사가 분리가능한 소유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언어마다 경계선이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도 어렵다. 언어유희론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들에서 분리불가능한 소유물과 분리가능한 소유물의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Chappell & McGregor (1996), Nichols (1988), Haiman (1985)).

근접성이라는 개념도 따라서 물리적, 실제적 거리라기보다는 인지적, 심리적, 주관적인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근접성이란 물리적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거리가 아니라, 상이한 언어나 문화에 따라 이름이나 사진 등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언어 개별적인

주관적인 거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언어에 따라 사진, 이름, 아들, 가발 등등을 소유주의 근접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근접성과 영향받음이라는 자질로 대격 중출 구문의 제약 조건을 설명하면 그동안 제안되었던 신체부위명사리든가, 분리불가능한 소유관계 등의 개념은 필요 없게 된다. 또한 이 조건은 ‘목적어 있는 피동문’의 허용 조건을 밝히는 데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 4. 정리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의 성립 조건을 순전히 통사적 제약이나 의미 역할의 제약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 소유주 상승 구문에서 대격 중출을 허용하는 조건을 소유관계의 의미역할이나 통사 제약에서 찾으려는 어떤 노력도 인지적, 화용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 수고가 된다.

(38) a. 영수가 순이의 옷을 찢었다.      → 영수가 순이를 옷을 찢었다.

대격 중출은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38b)는 순이가 옷을 실제로 입고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이의 옷이 옷장에 있거나 벽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38b)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의 제약 조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언어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대격 중출 구문의 격표지 행태를 설명하려는 수많은 논문들(Park 1985, Chun 1986, James Yoon 1989, Kim, Y. 1990, O'Grady 1991, Yoon 1990)은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각자의 이론적 틀 안에서 격표지 일치나 격표지 허가의 기제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

문에 언어외적인 인지적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영향받음’과 ‘물리적 근접성’이 대격 중출 구문의 성립 조건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인지적 화용적 요소임을 논증을 통해 밝혔다. 이 두 요소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신체부위명사’나 ‘분리 대 비 분리 소유명사’라는 부정확하고 협소한 의미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더 정확하게 성립 조건을 명시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이 두 가지 개념은 ‘목적어 있는 피동문’에 나타나는 대격 명사의 허용 조건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가능피동구문

중립동사 구문

주격중출 구문

상호 구문

심리동사구문

수어동사 구문

소유 구문

신체부위명사구문

처소교체구문

관계절

사동문

피동문

격표지 유형론

여격주어구문

소유주 상응 대격 중출 구문



## 9장

### 관계절의 유형론

#### 1. 머리말

관계절의 유형론을 논하려면 관계절의 정의가 필요한데, 인도-유럽어에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인 The man [whom I saw] 류의 관계절은 범언어적으로 아주 드문 유형의 관계절이다. 따라서 이런 정의에 입각해서 관계절을 유형론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인도-유럽어 밖의 다른 언어에는 관계절이 없다고 간단하게 말해 버리는 것도 옳지 않다. 기능적인 면에서 비슷한 기능을 가진 구문들을 범주화할 수 있다. 즉 ‘기능상의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로서 관계절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능이란 무엇인가? {The man}이라는 집합 중에서 {Whom I saw}가 참인 집합이라는 의미에서 관계절을 정의한다.

이제 범언어적으로 이런 정의에 맞는 관계절을 대상으로 관계절의 유형론을 논의하기로 하자.<sup>1)</sup>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제한적 용법의 관계절(restrictive R.C.)에 관심을 집중하기로 한다.

---

1) 영어에서는 ‘the man seen by me’와 같은 유형의 분사절(participial clause)도 이런 정의를 만족시킨다.

## 2. 관계절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

관계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형론적 연구가 있었다.

### 2.1 어순에 따른 관계절 유형 연구

관계절의 유형을 어순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 a. N            Rel
- b. Rel        N
- c. [... N ...] Rel: 표제명사가 관계절 속에 위치(Internally headed RC)

(a)와 (b)는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앞에 위치하는가 뒤에 위치하는가에 따른 분류로서, 대부분의 인도-유럽어들이 (a)의 경우에 속하고,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언어들이 (b)에 속한다. (c)는 표제명사가 관계절 속에 위치하는 경우로,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IHRC)’라고 불린다. 남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만(Yuman) 어족 언어인 Diegueno 말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이 언어는 동사가 문장 끝에 오는 V-final 언어이다.

- (1) [taney        ʔwa:        ʔwu:w]   -   pu        -   Ly        ʔciyawx  
Yesterday   house   I-saw               the               Loc   I will sing  
“I will sing in the house which I saw yesterday”

영어로 번역하자면 ‘I will sing in the [I saw the house yesterday]’ 정도가 될 것이다. 표제명사인 ‘house’가 관계절 안에 들어 있다. 이런 유형은 범언어적으로 아주 드물다.

구로다(Kuroda 1992)와 호리에(Horie 2005) 등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표제명사가 관계절 내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어에도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IHRC)가 존재한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2) [Hon-ga      tukue-no    ue-ni      at-ta]      no-ga      itunomanika    nakunat-ta  
 book-Nom   desk-Gen   top-Loc   exist-Past   book-Nom   soon           disappear-Past

“The book, which had been on the desk, disappeared before I aware of it.”

그러나 이 구문과 비슷한 한국어의 다음 예문은 문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듯하다.

- (2') ?[책이 책상 위에 있던] 것이 눈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다.

이러한 구문이 문법적이라고 하면서 한국어에도 ‘IHRC’의 존재를 주장한 논의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직관으로는 한국어에서 IHRC 구문은 일본어에 비해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듯하다.<sup>2)</sup>

## 2.2. 관계화되는 요소의 유형에 따른 분류

두 번째는 관계절의 어떤 위치의 요소가 관계화되는가에 따른 유형 분류이다. 관계화되는 요소가 문장의 주어인가 목적어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 (e.g) The man whom I saw ran away.

관계절을 포함하는 위 문장은 ‘The man ran away’라는 주절에 ‘I saw the man’이 내포된 것이다. 이 경우 내포문의 직접목적어를 관계화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화 된 문장에서의 성분을 문제시한다는 것이다. 주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하는 것은 이 분류에서 중요하지 않다.

2) 다음과 같은 구문도 한국어 ‘IHRC’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예) ‘[만두 빛은 짓]을 먹었다’, ‘경찰이 [도둑이 나오는 짓]을 잡았다’ 등

## 2.3. 관계절의 종류에 따른 분류

관계절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 (a) 비삭감(non-reduction) 유형
- (b) 대명사 잔존(pronoun retention) 유형
- (c) 관계대명사(relative pronoun) 유형
- (d) 공백(gap) 유형

위 네 가지 유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 2.3.1. 비삭감(Non-reduction) 유형

위에서 예를 든 Diegueno 말에서는 표제명사(head noun)가 관계절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을 비삭감(non-reduction) 유형이라고 부른다.

### 2.3.2. 대명사 잔존(Pronoun retention) 유형

관계화 된 자리에 그것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대체되어 있는 유형이다.

영어와 달리 페르시아어에서는 다음 예에서처럼 관계절 안에 잔존대명사가 나타날 수 있다. 페르시아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 이런 유형의 관계절이 존재한다.

- (3) mardi      ke      man      shir-ra      be      u      dadam  
man      that      I      milk-Obj      to      him      gave  
“the man that I gave milk to”

영어에서 비슷한 예를 들자면, 문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구어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들 수 있다.

(3') This is the road [that I don't remember where it leads].

위 문장에서는 관계절 안의 'the road' 위치에 대명사 'it'이 대체되어 남아 있다. 'This is the man that his dog ran away.' 같은 문장도 위 문장보다는 덜 적절하지만 입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 2.3.3. 관계대명사(Relative pronoun) 유형

대부분의 유럽어들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다음 예를 보자.

(4) the man [whom] I saw.

이러한 유형의 관계절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 이 관계대명사는 격표지 되어 있다. 둘째, 직접목적어가 원래 위치에서부터 앞으로 나와 전치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유형은 대명사 잔존(pronoun retention) 유형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대명사가 원래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위치 이동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모호한 문장도 만들어진다.

(5) The prince [whom Goya helped to paint]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Goya helped the prince to paint. 또는 Goya helped to paint the prince.

### 2.3.4. 공백(Gap) 유형

이 유형에 속하는 관계절에는 어떤 위치의 어떤 요소가 관계화 되었는지 말

해주는 표시가 없다. 예를 들면, ‘The man [I saw yesterday] ran away.’와 같은 경우에 스스로 생략된 요소를 찾아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saw가 타동사이므로 the man이 목적어로 이 공백(gap)에 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통사적 정보를 이용해 어떤 요소가 관계화 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지만, 일본어나 한국어는 보통 통사적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문맥이나 화용론적 지식을 동원해야 관계화 된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3. 관계화 가능성 위계(Accessibility to RC formation)

영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간접목적어, 보어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관계화 될 수 있지만, 어떤 언어에서 특정 위치는 관계화 되지 않는다. 관계절 연구에서 유형론적으로 흥미로운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떤 위치에서 관계화가 가능한가 하는 위계의 문제이다. 존 로스(John Ross)는 그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extraction and constraints on extraction’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콤리(Comrie)는 accessi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관계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예문을 보자. (6-9)문장에서 ‘the man’을 관계절의 표제명사로 관계화 시킨 구문이 (6’-9’)이다.

- (6) I think [that you saw the man.]
- (7) I think [ you saw the man.]
- (8) I think [that the man saw you.]
- (9) I think [ the man saw you.]

---

3) 한국어나 일본어는 영어와 달리 문장 속에서 논항들이 다 실현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계절의 표제명사를 동사의 논항으로 꼭 해석할 필요가 없다. 또 문장의 논항이 아닌 부가어(adjunct)들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몇 가지 예이다.

(예) 본 사람이 누구냐? 산 가게가 어디 있냐? 술 많이 마시는 직장 생활, 등등

- (6') I have never met the man that I think that you saw.  
 (7') I have never met the man that I think you saw.  
 (8') \*I have never met the man that I think that saw you.  
 (9') I have never met the man that I think saw you.

(8')에서 보는 것처럼, (8) 문장의 ‘the man’은 관계절의 표제명사로 관계화 될 수 없다. 따라서 (8)의 위치에서는 관계화가 불가능(not accessible)하다고 얘기한다. (8)과 (9)의 중요한 차이는 둘 다 종속절의 주어이지만 하나는 접속사가 명시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접속사가 명시된 종속절의 주어 위치는 관계절의 표제명사로 적출되지 않는다. 관계화 가능성 위계는 이처럼 통사 구조에 민감하고, 통사적 요인에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언어마다 관계화 가능성의 위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이 유형론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에드워드 키난(Ed Keenan)은 오스트로네시아어(Austronesian)의 일종인 말라가시(Malagasy)어를 연구하면서 관계화 가능성이 영어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키난(Keenan)과 콤리(Comrie)가 서로 영향을 사용하던 동료 시절, 이 두 학자는 50여 개의 언어를 연구한 후 논문을 발표하고 Accessibility Hierarchy를 제안하였다.

실제로 말라가시<sup>4)</sup> 문장의 예를 보자.

- (10) Nividy      ny      vary      ho an'      ny ankizy      ny      vehivary  
       bought              rice      for              children              woman  
       “Woman bought rice for children.”

위 문장에서 woman을 관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4) 말라가시는 VOS 어순이고, 글말(written language)에서 어말 ‘-i’는 ‘-y’로 표기하고, 모음 /o/는 [u] 소리로 발음한다.

- (11) Ny nehivary [izay nividy ny vary ho an' ny ankizy]  
 woman bought rice for children  
 “The woman who bought rice for children”

그런데 (10)의 예에서 ‘woman’은 관계화 될 수 있지만, 다른 요소 예를 들면 ‘rice’, ‘children’ 등은 관계화 될 수 없다. 즉 말라가시어에서 관계화 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는 주어 위치이다.

그렇다면 말라가시 사람들은 목적어나 그 외의 성분들은 관계화 시켜서 말할 수 없다는 말인가? 주어 이외의 요소를 관계화 시켜서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 말라가시는 태(voice)를 나타내는 방법이 3가지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능동태와 수동태 이외에도 상황태(circumstantial voic)라고 하는 제3의 유형이 있다. 따라서 목적어나 다른 요소를 관계화하려면 ‘태’를 바꾼 다음 관계화 시키면 된다. 목적어인 vary ‘rice’를 관계화 시키는 절차를 보자. 우선 능동문인 (10)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2) Novidinin' ny vehivary ho an' ny ankizy ny vary  
 buy(passive) woman for children rice  
 “Rice was bought by the woman for the children.”

여기서 novidinin은 ‘buy’의 피동형이다. 이 피동문을 다시 관계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 (13) Ny vary [izay novidinin' ny vehivary ho an' ny ankizy]  
 Rice buy-Pass woman for children  
 “The rice which was bought by the woman for the children”

자, 이제 ‘children’을 관계화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말라가시에는 상황태(circumstantial voice)라고 하는 세 번째 태(agent와 patient를 제외한 다른 요소를 주어화 시키는 태)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우선 문장(10)을 상황태로 전환한다.



- (14) Nividianan'      ny vehivary    ny vary    ny ankizy  
 Bought (circ)      woman      rice      children  
 “Children were bought rice by the woman”<sup>5)</sup>

여기서 ‘nividianan’이 ‘buy’의 circumstantial form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children’을 관계화 시키고 싶으면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관계화 시키면 된다.

- (15) Ni ankizy      [izay nividianan'    ny vehivary      ny vary]  
 Children      bought (circ)      woman      rice  
 “Children for whom rice were bought by the woman.”

결론적으로 말라가시는 주어만 관계화 될 수 있지만, 풍부한 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로 태를 변화시킨 다음, 관계화 시킬 수 있다.

키난과 콤리는 일차적으로 50여 개의 언어를 조사하고, 그 이후 더 많은 언어를 연구한 후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제시하였다. 주어만 관계화 시킬 수 있는 언어 (예: Malagasy),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관계화 시킬 수 있는 언어 (예: Kinyarwanda (반투어)), 주어와 목적어뿐만 아니라 사격 목적어도 관계화 시킬 수 있는 언어(예: North Frisian), 주어, 목적어, 사격 목적어 뿐만 아니라, 소유주까지 관계화 시킬 수 있는 언어(예: English) 등의 위계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는 실제로 비교보어(complement of comparison)까지 관계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다음과 같은 위계가 성립된 것이다.

- (16) Subj > Dir Obj > Oblique Obj > Possessor

어떤 연구에서는 간접목적어와 사격 목적어(oblique Obj)를 구별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이 구별을 버린 이유는 범언어적으로 간접목적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sup>6)</sup> 그렇다면 시간, 장소 등을

5) 이 문장의 정확한 영어 번역은 불가능하고 대강 이 정도의 의미가 된다는 뜻이다.

나타내는 부사격 부가어들의 관계화 위계는 어떻게 하는 점이 궁금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범언어적으로 이러한 부가어들의 관계화 위계를 설정하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경향이 있다.

한편 이러한 위계가 다른 영역에도 유효할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언어습득이나 다른 문법현상(사동문의 피사역주)에 이러한 위계가 확대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실제로 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콤리 자신도 피사역주의 문법범주에 이러한 위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4. 관계절 안의 잔존대명사

앞에서 페르시아말에서는 관계절 안에 잔존대명사(resumptive pronoun)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2.3.2. 참고). 실제로 페르시아말에서는 모든 위치를 관계화 할 수 있고, 공백(gap) 유형과 대명사 잔존(pronoun-retention) 유형의 두 가지 관계화 책략이 가능하다. 그런데 소유주(possessor)를 관계화 할 때는 반드시 pronoun retention 타입의 관계절을 사용하고, 사격 보어(Oblique object)를 관계화 할 때도 반드시 pronoun retention 타입을 사용한다. 직접목적어(Direct Object)를 관계화 할 때는 gap과 pronoun retention 중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어(Subject)를 관계화 할 때는 gap 책략을 사용한다.

키난과 콤리(1977)는 관계절 안에 잔존대명사가 나타나는 언어에서는 어떤 성분이 주로 잔존대명사로 나타나는지 예측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보편소를 제시하였다(Moravcik 2011: 84).

---

6) 이것에 대해서는 콤리(1989)의 논의를 참조할 것.

- (16) In all languages, on the scale of relativizable constituents, known as the Accessibility Hierarchy, if a language uses resumptive pronouns for any one type, it also uses them for all types to the right.

Accessibility Hierarchy:

Subject > Direct Object > Indirect or Oblique Object > Genitive

예를 들어 다시 말하자면, 어떤 언어에 ‘the book that I have read it’ 같은 관계 구문 (직접목적어자리에 잔존대명사 ‘it’을 가진 구문)이 존재한다면 그 언어에는 ‘the man that I have given the book to him’ 같은 관계 구문(간접목적어자리에 잔존대명사 ‘him’을 가진 구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Dan Maxwell이 <Language> 논문에서 위계가 낮아질수록 혼동의 가능성이 적은 명확한 구문(the more explicit constructions)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현상이다. 영어 입말에서도 pronoun retention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는 사격 목적어나 소유주(possessor)의 경우이지, 직접목적어나 주어의 경우는 드물다.

영어처럼, 주어-직목적어-간목적어의 어순을 가진 언어에서는 머리명사와 gap의 거리가 멀수록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힘이 많이 들어가므로, 이럴 경우 잔존대명사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16')와 같은 보편성은 다음과 같이 더 일반적인 보편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 (16') Universal functional generalization(Moravcik 2011:85)

For all languages, the more difficult a construction is to process, the more likely that the language will use a more explicit expression type.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해서, 한국어 관형절 해석에서는 의미·화용론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자.

## 5.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관계절 유형론 연구: 한국어 관형절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

지금까지는 통사론적 관점에서의 관계절 유형론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좀 다른 관점인,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유형론을 살펴보자.<sup>7)</sup>

관계절 생성과 해석에는 통사적 정보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화용론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에는 통사적 위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요소가 관계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용적으로 이상하면 관계절이 성립하지 않는다. 똑같은 구조를 가진 한국어나 일본어의 관계절이 사용한 표제명사에 따라 적절성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통사적으로 관계절 가능성 위계(accessibility)가 정해지는 언어와 관계절 형성에 화용론이 중요성을 갖는 언어로 유형을 분류할 수도 있겠다.<sup>8)</sup>

### 5.1. 한국어에 관계절이 존재하는가?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 관계절을 관형절과 구분해서 따로 설정하는 것은 유럽어에 경도된 관점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예문을 보면 유럽어의 관계절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한국어의

---

7) 구노(Kuno)나 마쓰모토(Yoshiko Matsumoto) 등이 관계절 해석에 화용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학자들이다.

8) 드문 예이지만, 영어에서도 화용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퍼거슨(Ferguson)이라는 언어학자가 언어 유형론자들을 언급하면서 사용한 문장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They take some languages that they know and some languages that they have friends who know.”

이 문장은 화용론적인 정보를 고려해야만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관형절 특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소리’는 유럽어의 관계절 표제명사처럼 관계절 안에 공지시 명사(Coreferential NP)를 갖지 않는 한국어 특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국어에는 다음과 같이 공지시 명사구가 없는 관계관형절도 흔하게 존재한다.<sup>9)</sup>

- (17) 가. 귀가가 늦어지는 교외생활  
       나. 손씻을 필요가 없는 음식으로 먹읍시다.  
       다. 오바이트 하지 않는 술로 합시다.

또한 다음 예문처럼 하위범주화 된 요소를 제치고 화용론적으로 적절한 요소들이 표제명사로 선택된 관계절도 있는데, 이런 문장들은 유럽어의 관계절 정의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즉 논항보다 화용론적 요소가 중시되는 경우이다.<sup>10)</sup>

- (18) 가. 살 돈이 있니? / Cf. 살 물건이 있니?  
       나. 먹은 그릇은 깨끗이 닦아라.  
       다. 어제 먹은 식당은 아주 비싸다.

위에서 본 것처럼 비논항 머리명사를 가진 관계관형절의 해석이나 공지시 명사가 없는 관계관형절의 해석에는 특별한 의미-화용적 제약이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관계절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한국어 관계절 해석에는 화용론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음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 5.2. 한국어 관계절에서 의미와 화용론적 요소의 중요성

한국어나 일본어는 영어와 달리 문장 속에서 논항들이 다 실현될 필요가

9) 이런 예문들을 주제화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10) 다음 예문처럼 소위 ‘섬제약’을 어기는 관계절도 한국어에서는 가능하다(신효필 1994).

(예) [[e e 빈대떡을 먹은] 신사가 매를 맞은 ] 요리집

없기 때문에 관계절의 표제명사를 동사의 논항으로 꼭 해석할 필요가 없다. 또 문장의 논항이 아닌 부가어(adjunct)들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들을이는 언어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외적, 화용론적 지식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해석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표제명사와 관계절 사이에 가능한 몇 가지 해석을 보여주는 예이다.

(19) [[책을 산 학생]

(19a) ‘the student (who) bought a book’

(19b) ‘the student (from whom) ( ) bought a book’

(19c) ‘the student (for/to whom) ( ) bought a book’

(19a)는 학생이 동사 ‘사다’의 주어 역할을 하는 표제명사가 된 것으로 가장 일반적 해석이지만, 이것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일 관계절 (19)가 다음 (20)과 같은 문장에서 사용되면 (19b)와 같은 해석을 받을 수도 있다.

(20) 책을 산 학생한테서 사전도 샀다.

위의 예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산 경우, 책을 사준 학생은 누구냐고 묻는 (19c)도 가능한 발화 환경을 상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예는 관계절 표제명사의 문법역할이 동사의 하위범주화 논항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예를 보여준다. 비싼 보석을 사고 싶어 하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21) 살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보냐?

이 때 ‘사다’라는 동사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핵심명사로 요구하지만 이 경우 ‘돈’은 목적어가 아니라 도구격을 가진 부가어이다. 이처럼 한국어 관계절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맥과 화용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사의 하위범주화 정보만 가지고는 표제명사의 문법역할을 결정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2) [[연 선생이 산] 백화점]이 어디예요?

위 문장은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22a) Where is the department store (in which) Mr Yeon bought (it)?

(22b) Where is the department store (which) Mr Yeon bought?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선택되는가 하는 것은 말할이와 들을이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언어외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작용한다. 즉 연 선생의 경제능력에 좌우되는 것이다. 연 선생이 백화점을 매입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22a)가 더 그럴듯한 해석이 된다.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면 이런 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3) 삼성이 산 백화점이 어디예요?

(24) 그 복부인이 산 땅이 어디예요?

위 두 예문의 주어는 모두 백화점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이며 이럴 경우, (22b)의 해석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어 관계절의 해석에서 표제명사와 관계절 사이에 의미-화용론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관찰할 수 있다.

표제명사와 관계절 사이의 의미-화용적 관계는 그럴듯하게 성립 가능한 연관성이 상정되어야 한다. 이 ‘성립 가능한 연관성’이란 대화 참여자 간의 언어외적 세계 지식, 배경 지식 등을 통해서 성립할 수 있는 연관성을 말한다. 예를 들면 (25a)는 표제명사가 관계절 동사와 맺는 관계가 모호한 부가어이지만 성립 가능한 반면, (25b)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설정되지 않고는 해석 불가능한 경우이다.

(25) a.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연속극

b.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연필

관계절을 성공적으로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언어 구조 외적인 지식, 즉 이전의 문맥에서 주어진 정보라든가 대화 참여자 간에 공유하고 있는 문장 참여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들도 통사적인 정보만을 가지고는 해석 불가능한 한국어 관계절의 예문들이다.

(26) 가. 키가 크는 우유

나.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

다.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라. 얼굴이 예뻐지는 세면법

이러한 예들은 표제명사가 선행 관계절 속의 논항 성분이 아니므로 영어와 같은 유럽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들이다. 물론 이러한 언어구조 외적인 요소들도 언어 구조 내적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절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5.2.1. 표제명사와 동사의 상관관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관계절 동사와 관련을 맺는 필수 논항이다. 다음을 보자.

(27) a. [ [x 가 먹은] y]

‘y (which) x ate’ (y: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것)

b. [ [x 를 산] y]

‘y (which) bought x’ (y: 구매자)

c. [ [x 가 y를 만난] z]

‘z (at/in... which) x met y’ (z: 장소나 시간 등)



화용론적 지식이 개입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표제명사는 관계절 동사의 필수 논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표제명사로 특수한 명사가 사용되면 관계절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8) a. 영수가 먹은 음식
- b. 책을 산 사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먹다’는 음식, ‘사다’는 구매자나 물품을 표제명사로 요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의미적으로 좀 특수한 명사가 표제명사로 사용되면 그것과 어울리는 특수한 해석을 요구받기도 한다.

- (29) 영수가 먹은 그릇을 씻었다.
- (30) 영수가 먹은 식당은 아주 비싸다.
- (31) 살 돈이 있니?
- (32) 내가 책을 산 작가가 상을 받았다.

(29-32)의 예문들은 모두 표제명사로 쓰인 명사들이 특별한 의미 화용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관계절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의 예이다. 이 경우 관계절 동사의 필수 논항으로서의 해석보다 의미-화용론적으로 우선하는 해석을 받게 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29)의 경우에 ‘그릇을 먹다’라는 해석보다는 ‘(음식을) 그릇에/으로 먹다’라는 해석이 화용론적으로 훨씬 자연스러우므로 필수논항인 음식을 제치고 그릇이 표제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30)도 음식을 먹은 식당을 의미한다. (31)은 ‘사다’라는 동사의 필수 논항인 물건을 제치고 부가어인 ‘돈’이 표제명사로 사용된 예문이다. (32)도 문법적으로는 어색한 문장이지만 의미-화용론적 맥락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훌륭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관계절이다.

기존의 관계절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이 도외시되었는데, 한국어 관계절의 해석에는 화용론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사의 하위범 주화에 따른 표제명사의 해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특수한 표제명사가 관계절 동사의 필수 논항 해석을 받는 것보다 다른 비논항으로서의 해석을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면 그러한 해석도 한국어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5.2.2. 관계절 시제 정보

한국어의 관계절은 관형어미의 형태에 따라 시제가 표시되는데, 다음의 예를 보자.

- (33) a. [[담배를 샀] 잔돈]  
b. [[담배를 샀] 잔돈]/[[담배를 시는] 잔돈]

동사의 시제에 따라 ‘잔돈’이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생긴 잔돈인지, 그 이전부터 존재하는 잔돈인지 차이가 날 수 있다.

### 5.2.3. 첨가 요소에 따른 해석

표제명사의 의미역할을 표시해 주는 요소가 첨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관계절의 문법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 (34) a. \*유미가 먹은 사람  
b. 유미가 함께 먹은 사람

(34a)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34b)처럼 ‘함께’가 첨가되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 5.2.4. 전후 문맥의 의미에 따른 해석

똑같은 관계절도 주절의 문맥의 의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 (35) a. 나는 청첩장을 보낸 친구들한테 축의금을 보냈다.
- b. 나는 청첩장을 보낸 친구들한테 확인메일도 함께 보냈다.

(35)는 뒤에 나오는 문맥의 의미에 따라 관계절의 해석이 달라지는 예이다. 이와는 반대로 앞에 나오는 문맥에 따라 관계절의 의미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다음 문장만 따로 떼어서 보면 선호되는 해석(preferred reading)은 ‘내가 여자를 만나는 것’이다.

- (36) 만나기로 한 여자는 집으로 가 버렸다.
- ‘The girl (with whom) (I) arranged to meet has gone home.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맥이 주어지면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 (37)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은 나타나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여자는 집으로 가 버렸다.
- ‘The girl (who) arranged to meet (him) has gone home.’

이 경우에는 여자가 만남의 주체이고 남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문장 속에서 논항들이 다 실현될 필요가 없고, 관계절의 표제명사를 동사의 필수논항으로 꼭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문장의 논항이 아닌 부가어(adjunct)들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한국어의 관계절이 통사적인 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화용론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5.3. 마무리: 기능 유형적 설명

관계절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통사 외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데, Fox and Thompson(1990a; 1990b) 은 여기에 대해 재미있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N-Rel 유형의 언어에서는 관계절 해석에서 엄격한 통사 논항 구조가 요구되는 반면, Rel-N 유형의 언어는 관계절의 의미-화용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N-Rel 유형과 Rel-N 유형의 언어 사이의 정보 프로세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N-Rel 유형 언어에서는 표제명사가 관계절 앞에 나오기 때문에 표제명사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N-Rel 유형 언어의 화자는 청자에게 처음 나온 표제명사에 대한 격 정보, 성/수 일치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정보 프로세싱을 위해 필요하고 이런 정보가 관계대명사를 통해 제공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청자의 통사 정보 기대치가 충족된다는 가설이다(Rumelhart 1977). 반면에 Rel-N 유형의 언어에서는 표제명사에 대한 정보가 의미적으로 적절하게 앞에 제시되기 때문에 청자는 앞에 주어진 문맥으로부터 가장 적절한 후보를 표제명사의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청자는 이 의미적 정보를 토대로 앞에 나온 관계절 동사와 뒤에 나온 표제명사의 통사 관계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통사정보보다는 다양한 의미-화용 정보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가설이다.

한국어나 일본어 관계절의 성립 조건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통사론적 관점에서의 관계절 유형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다른 관점인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유형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계절 생성과 해석에는 통사적 정보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화용론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에는 통사적 위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요소가 관계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용적으로 어색하면 관계절이 성립하지 않는다. 똑같은 구조를 가진 한국어나 일본어의 관계절이 사용한 표제명사에 따라 적절성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통사적으로 관계절 가능성 위계

(accessibility)가 정해지는 언어와 관계절 형성에 화용론이 중요성을 갖는 언어로 유형을 분류할 수도 있겠다. 한국어나 일본어는 영어와 달리 문장 속에서 논항들이 다 실현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계절의 표제명사를 동사의 논항으로 꼭 해석할 필요가 없다. 또 문장의 논항이 아닌 부가어(adjunct)들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들을이는 언어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외적, 화용론적 지식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해석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한국어 관계절 해석에 관여하는 화용론적 요인과 언어외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논증하였다.

## |참고문헌|

- 고영근 1986. “능격성과 국어의 통사 구조” 「한글」 129호 한글학회.
-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창수·시정곤 1991. “목적어 있는 피동문” 「주시경학보」 7. 탑출판사.
- 권재일 1988. “문법기술에서의 ‘정도성’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호 국어국문학회.
- 권재일 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 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 김건희 2003. “형용사의 주격중출 구문과 여격 주어구문에 대하여” 「한말연구」 13호 한말연구학회.
- 김규철 2001. “다시 두 사동문의 의미를 찾아서” 『국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 김기혁 1995. 『국어 문법 연구 -형태·통어론』. 박이정.
- 김기혁 2009. “사동 구성의 긴밀성과 피사동자의 격표지” 「한글」 283호 한글학회.
- 김백련 1964. 『조선어 동사 형용사의 상 범주』. 과학원 출판사. 평양.
- 김세중 1994. “국어 심리 술어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원경 2007. “피동은 문법범주인가?” 「한국어학」 35호 한국어학회
- 김윤신 2006. “사동·피동 동형동사의 논항교체 양상과 의미해석”, 「한국어의 미학」 6. 한국어의미학회.
- 김홍수 1989. 『현대 국어 심리 동사 구문 연구』. 탑출판사.
- 김홍수 1998. “피동과 사동”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 남기심 1993. 『국어 조사의 용법 - ‘-에’와 ‘-로’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박이정.

- 남기삼·고영근. 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남수경. 2007. 한국어 피동문의 문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승호. 2007.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류구상 외. 2001. 『한국어의 목적어』. 월인.
- 류시중. 1995.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연구 -원형이론적 접근”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목정수. 2003. 『한국어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목정수. 2009. 『한국어, 문법 그리고 사유』. 태학사.
- 목정수·김영중. 2006. “한국어 피동문의 구조와 기능의 의미 해석” 『인문언어』 제8집. 국제언어인문학회.
- 박석준. 2002. “여격어를 존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 문장의 통사구조” 『배달말』 31호. 배달말학회.
- 박소영. 2010. “한국어 소유 피동문의 두 유형 - 소유물 격교체와 피동화의 유형론” 『국어학』 59호. 국어학회.
- 박양규. 1978. “사동과 피동” 『국어학』 7호. 국어학회.
- 박재연. 2007. “보조용언 구성 ‘-어지-’의 양태 의미에 대하여” 『국어학』 50호. 국어학회.
- 박철우. 2007. “국어의 태 범주” 『한국어학』 37호. 한국어학회.
- 배희임. 1988. 『국어 피동 연구』. 고대 민족문화 연구소.
- 서정수. 1971. “국어의 이중주어 문제” 『국어국문학』 52호. 국어국문학회.
- 성광수. 1976. “국어 간접 피동에 대하여-피동 조동사 ‘지(다)’를 중심으로” 『문법연구』 3호. 문법연구회.
- 성광수. 1987. “국어 피동사 공백과 의사피동의 원인” 『국어학 신연구 1』. 탑출판사.
- 손호민. 1978. “긴형과 짧은 형”. 『어학 연구』 14-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송석중. 1978. “사동문의 두 형식”. 『언어』 3.2. 한국어학회.
- 송홍규. 2008. “신체 관련 술어의 피동 표현”,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 송홍규. 2010. “파생적 피동문의 유형과 접사의 기능 분석” 『우리 어문 연구』 37호. 우리어문학회.
- 신효필. 1992. “한국어 비대격과 타동 구성의 대조: 어휘사상이론을 중심으로”. 『언어학 논집』. 제1집. 언어정보연구원.
- 신효필. 1994. 한국어 관계절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심재기. 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양인석. 1974.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어학 연구」 10-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양정석. 1995. 『국어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도서출판 박이정.
- 연재훈. 1989. “국어 중립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한글」 203호 한글학회.
- 연재훈. 1993가. “The Degree of the Transitivity in Korean: A Functional -Typological Aproach” 「어학연구」 2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연재훈. 1993나. “조시아말의 형태론 개관: split ergativity의 한 예” 「언어학」 제15호. 한국언어학회.
- 연재훈. 1995. “기능-유형 문법에서의 분석과 설명” 「언어학」 제17호. 한국언어학회.
- 연재훈. 1996가. “A functional-typological study on case-marking deviations” 「담화와 인지」 제2권. 담화 인지 언어학회.
- 연재훈. 1996나. “문법 관계 교체 구문의 연구 - 장소보어 교체 구문과 소유주 인상 구문을 중심으로” - 「한글」 제232호. 한글학회.
- 연재훈. 1996다. “국어 여격 주어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집. 국어학회.
- 연재훈. 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권 1호. 한국언어학회.
- 연재훈. 1998. “장소보어 교체 구문의 자동사문과 타동사문” 「언어」 23권 1호. 한국언어학회.
- 연재훈. 2002. “사동문 피사역주의 격표지 중첩에 관한 문제” 고영근 외.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연재훈. 2005. “피동문의 유형론” 이정민 외 공편.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그리고 그 너머』. 한국문화사.
- 연재훈. 2007. “사동문의 유형론” 「국제고려학」. 제11호. 국제고려학회.
- 오충연. 2008. “국어 피동의 상”, 「어문학」 100호. 한국어문학회.
- 우순조. 1994. 한국어의 형상성과 관계 표지의 실현양상.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 논문.
- 우인혜. 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 유동석. 1995.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 신구문화사.
- 유동석. 1998. “주제어와 주격중출문”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 유승섭. 2007. “국어 접미파생 사동문의 논항 형성 고찰” 『한글』 276호 한글학회.
-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유현경. 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 257-276.
- 유혜원. 1999.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 연구” 『한국어학』 9. 한국어학회.
- 유혜원. 2000. “-아/어지다’의 의미기능 연구” 『논항구조란 무엇인가』 월인.
- 이남순. 1985. “주격중출문의 통사구조” 『국어국문학』 93호 국어국문학회.
- 이상억. 1970/1999. “국어의 사동, 피동 구문 연구”. 『국어연구』 26.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같은 이름으로 집문당에서 1999년 출판함]
- 이상억. 1972. “동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 사동, 피동성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8-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선희. 2004.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 -조사 {-를}과 논항 실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익섭. 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국어학회.
- 이익섭. 1978. “피동성 형용사문의 통사 구조” 『국어학』 6. 국어학회.
- 이익섭, 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정민.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이정민. 1976.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언어』 제1권 제1호 한국 언어학회.
- 이정택. 2003. “목적어 있는 피동문에 관한 연구” 『배달말』 3. 배달말학회.
- 이지선. 2008. “타동성과 국어 사동표현의 의미” 『어문연구』 36호 어문연구학회.
- 이필영. 1990. “관계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주제별 국어학 연구사』. 동아출판사.
- 이향천 1991. “피동의 의미와 기능”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홍식. 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 임동훈. 1997. “이중주어문의 통사구조” 『한국문화』 19호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임홍빈. 1972. “국어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호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임흥빈. 1977. “피동성과 피동 구문”, 「국민대 논문집」 7.
- 정인상. 1980. “현대국어의 주어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제44호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정희정. 1988. “‘에’를 중심으로 본 토씨의 연구” 「국어학」 17. 국어학회.
- 함희진. 2008. “V1-어+지다”형 합성동사의 형성과 기원“ 「한국어학」 41호 한국어학회.
- 홍기선. 1995. “이동동사와 장소명사 표지” 「어학연구」 31-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홍재성. 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 홍재성 외. 1996.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사전』. 동아출판사.
- 홍종선 외. 2003. 『한국어 문법론의 연구 현황과 과제』. 박이정.

- Aissen, J. L. 1979. *The Syntax of Causative Constructions*. New York: Garland.
- Andrews, A. 1985. “The major functions of the noun phrase” In: Shopen (ed.) (1985)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62-1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ker, Mark. 1999. “External Possession in Mohawk: Body Parts, Incorporation, and Argument Structure” In Payne and Barshi ed.: 293-324.
- Boons, Jean-Paul, Alain Guillet, & Christian Leclere. 1976. *La structure des phrases simples en francais: constructions intransitives*. Geneve-Paris: Libraire Droz.
- Brown, Keith. & J. Miller. 1982. *Syntax: Generative Grammar*. Hutchinson & Co. Ltd.
- Brown, Keith. & J. Miller. 1991. *Syntax: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Sentence Structure*. (2nd edition) HarperCollins Academic.
- Bybee, J.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
- Chappell, Hilary. 1986. “The passive of bodily effect in Chinese” *Studies in Language* 10: 271-96.

- Chappell, H. and W. McGregor. 1996a. "Prolegomena to a theory of Inalienability" In Chappell and McGregor (eds.). 3-30.
- Chappell, H. and W. McGregor. (eds.) 1996b. *The Grammar of Inalienability: A Typological Perspective on Body Part Terms and the Part-Whole Relation*. Mouton de Gruyter.
- Chun, Soon Ae. 1986. "Possessor ascension in Korean" *Relational Studies on Korean*. ed. by Soon Ae Chun, 51-97. Department of Linguistic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Chun, S. A. & D. A. Zubin. (1990). "Experiential vs. Agentive Constructions in Korean Narrative" *CLS* 16.
- Cho, Euiyon. 1988. Some Interactions of Grammar and Pragmatics in Korea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Cole, Peter. 1983. "The grammatical role of the causee in universal grammar"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49.2: 115-133.
- Comrie, B. 1975. "Causatives and Universal Grammar"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1974: 1-32.
- Comrie, B. 1976. "The syntax of causative constructions: Cross-language similarities and divergences" In: Shibatani (ed.) 1976: 261-312.
- Comrie, B. 1977. "In defence of spontaneous demotion: the impersonal passive" in Cole and Sadock, eds. *Grammatical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Comrie, B. 1981,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lackwell.
- Comrie, B. 1985. "Causative verb formation and other verb-deriving morphology" In Shopen, T. (ed.)
- Comrie, B. & Kaoru Horie. 1995. "Complement Clauses Versus Relative Clauses: Some Khmer Evidence" In: Abraham, Givón, Thompson (eds.) *Discourse Grammar and Typology*. John Benjamins.
- Comrie, B. & M. Polinsky. (eds) 1993. *Causatives and Transitivit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on. 1980. "Peculiar Passives" *Language*. Vol. 56: 42-66.
- DeLancey, S. 1984. "Notes on Agentivity and Cusation" In: *Studies in Language* 8-2: 181-213
- DeLancey, S. 1984. "Transitivity and Ergative Case in Lhasa Tibetan", *BLS* 10: 131- 140.
- Dixon, R. M. W. 1979. "Ergativity", *Language* Vol. 55: 59-138.
- Dixon, R. M. W. 1989. "Subject and Object in Universal Grammar" In *Essays on Grammatical Theory and Universal Grammar*. Clarendon Press. Oxford.
- Dowty, David. 1997. "Subject and Object 'Locative Alternation': Differences, Commonalities,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Paper presented at CoLLaTE Colloquium" Gent University, Belgium.
- Evans, Nicholas. 1996. "The syntax and semantics of body part incorporation in Mayali" In Chappell, H. and W. McGregor. (eds.)
- Foley, W. A. and Van Valin, R D Jr. 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CUP.
- Fox, B. 1981. "Body part syntax: Towards a universal characterization" *Studies in Language* 5-3: 323-342.
- Fox, B. and Thompson, S. 1990a. "A Discourse Explanation of the Grammar of Relative Clauses in English Conversation" *Language* 66: 297-316.
- Fox, B. and Thompson, S. 1990b. "On Formulating Reference: An Interactional Approach to Relative Clauses in English Conversation" *Papers in Pragmatics* 4: 183-95.
- Gerdt, D. & C. Youn. 1988. "Korean Psych Constructions: Advancement or Retreat?" *CLS* 24: 155-175.
- Givó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이기동 옮김. 문법 이해론. 범한서적 주식회사).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aiman, John.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 781-819.

- Haiman, John. 1985. *Natural Syntax - Iconicity and ero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 1990. "The grammaticalisation of passive morphology" *Studies in Language* 14-1: 25-72.
- Heine, Bernd. 1997. *Possession: Cognitive sources, forces, and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tzron, R. 1976. "On the Hungarian causative verb and its syntax" In: Shibatani (ed.) 1976: 371-398.
- Hopper, P. J. & Thompson, S. A.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251-299.
- Hyman, L. 1977. "The Syntax of Body Parts." *Haya Grammatical Structure*. Southern California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6.
- Katamba, Francis. 1993. *Morphology*. The Macmillan Press Ltd. London.
- Keenan, E. L. 1976.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Khrakovsky. 1973. "Passive constructions (Definition, Calculus, Typology, Meaning)" in Kiefer, F. ed. *Trends in Soviet Theoretical Linguistics*. Dordrecht: Reidel.
- Kim, Kyunghwan. 1994. "Adversity and retained object passive constructions" *Japanese/Korean Linguistics* 4: 331-346. CSLI. Stanford.
- Kim, Min-Joo. 200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External Possession Constructions (EPCs)" Ms.
- Kim, Young-Joo. 1989. "Inalienable possession as a semantic relationship underlying predication: the case of multiple-accusative constructions" I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445-467.
- Kim, Young-Joo.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Klaiman, M. H. 1981. "Toward a Universal Semantics of Indirect Subject Constructions" *BLS* 7: 123-135.
- Klaiman, M. 1984. "The Grammar of Doing and Undergoing in Korean" *Language Research*. Vol. 20. No.4. Seoul.

- Klaiman, M. 1988. "Affectedness and control" in Shibatani. ed. *Passive and Voice*. Amsterdam: John Benjamins.
- Klaiman, M. 1991. *Grammatical Voice*.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5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noob, Stefan. 2002. "Arguments for a new non-morphological approach to Korean voice and diathesis - Toward an event semantics and constructional analysis" *Eoneohag(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No. 32. 61-96.
- Knott, Judith M. 1988. "The Leningrad Group for the Typological Study of Languages: Introduction and translations by J. M. Knott" *SOAS Typology Project* 1. University of London.
- Ko, H. 2005. Syntactic Edges and Linear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Kozinsky, Isaac. & Maria Polinsky. 1993. "Causee and patient in the causative of transitive: Coding conflict or doubling of grammatical relations?" In Comrie, B. & M. Polinsky (eds.)
- Kulikov, L. I. 1998. Causatives. ms.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Langacker, R W. and P Munro. 1975. "Passives and their meaning" *Language*. Vol. 51: 780-830.
- Lee, Keedong. 1993. *A Korean Grammar on Semantic-Pragmatic Principles*. 한국문화사.
- Lee, Hyosang. 1985. "Causatives in Korean and the binding hierarchy" In Eilfort et al. (eds.) *CLS* 21-2: 138-153.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Levin, Beth.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 Levin, & M. Rappaport.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Vol. 26. MIT Press.
- Li, Charles N. and S. A. Thompson. 1977. "The causative in Wappo: A special case of doubling" *BLS* 3: 175-181.

-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wley, James D. 1968. "Lexical insertion in a transformational grammar without deep structure" In: darden, Bill J. et al. (eds.) *Papers from the 4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71-80.
- Maling, Joan and Soowon Kim. 1992. "Case assignment in the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 37-68.
- Mallinson, G. & Blake, B. J. 1981. *Language typology: cross linguistic studies in syntax*. Amsterdam: North-Holland.
- Mano, Miho. 2005. A Functional Typological Study of Non-canonical Construction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Kobe University.
- Matsumoto, Yoshiko. 1988. "Semantics and pragmatics of noun-modifying constructions in Japanese" *BLS* 14. 166-175.
- Moore, John. & Polinsky, Mary. 1998. "Review of: Song1996" *Linguistic Typology* 2.2: 231-251.
- Moravcsik, Edith A. 1978. "On the distribution of ergative and accusative patterns", *Lingua* 45: 233-279.
- Moravcsik, Edith A. 1978. "On the case marking of objects" In: Greenberg et al. (ed.)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 4: 249-89.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ravcsik, Edith A. 2011.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In Jae Jung Song (ed.)
- Moreno, J. C. 1985. "Anticausatives: A Typological Sketch" In *CLS* 21-2: 172-181. Chicago Linguistic Society.
- Narita, Koh. 1997. "Case-Marking Particle Deletion in the Relative Clause in Japanese" *Proceedings of the 1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Pergamon, Oxford, Paper No.0061.
- Nedialkov and S. J. Jaxontov. 1988. "The Typolog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Comrie, B. ed.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Vol. 12.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Nedjalkov and Silnitsky. 1973. "The Typology of Morphological and Lexical Causatives" In: Kiefer, F. ed. *Trends in Soviet Theoretical Linguistics*. Dordrecht: Reidel, pp. 1-32.
- Nichols, Johanna. 1988. "On alienable and inalienable possession" In the Mary Haas festschrift ed.by Shipley. Berlin: Mouton de Gruyter. pp. 557-609.
- O'Conner, Mary C. 1996. "The Situated Interpretation of Possessor-raising" Shibatani & Thompson (eds.) *Grammatical Constructions*. 125-156.
- O'Grady, William. 1991. *Categories and Case: The Sentence Structure of Korea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Palmer, F. R. 1994. *Grammatical roles and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Sang Jin. 1985. "Possessor Ascension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10-2: pp. 329-363.
- Payne, Doris and Immanuel Barshi. 1999. "External Possession: what, where, how, and why" In Doris Payne and Immanuel Barshi (eds), *External Possess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p. 3-29.
- Rumelhart, David E. 1977. *Introduction to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John Wiley & Sons. Inc., NewYork.
- Saksena, A. 1980. "The affected agent" *Language* 56: 812-826.
- Salkoff, Maurice. 1983. "Bees are swarming in the garden" *Language* 59.2: 288-346.
- Shibatani, Masayoshi. (ed.) 1976.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 (Syntax and semantics, 6). New York etc.: Academic Press.
- Shibatani, M. 1982. "Japanese Grammar and Universal Grammar" *Lingua* 57. 103-123.
- Shibatani, M. 1983.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Typology and Function of Case-marking" *Proceedings of the 13th ICL*. Tokyo.
- Shibatani, M. 1985. "Passives and related constructions: a prototype analysis" *Language* Vol. 61: 821-848.
- Shibatani, M. 1994. "An Integrational Approach to Possessor Raising,



- Ethical Datives, and Adversative Passives” *Proceedings of the 20th Annual Meeting of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461-486.
- Siewierska, A. 1984. *The passive: a comparative linguistic analysis*. London: Croom Helm.
- Silverstein. 1976. “Hierarchy of features and ergativity” in Dixon. ed. *Grammatical categories in Australian Languages*. Canberra: 112-172.
- Sohn, Ho-min.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ng, Jae Jung. 1991. “Causatives and universal grammar: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In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Vol. 89-1: 65-94.
- Song, Jae Jung. 1991. “Korean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Conspiracy and Pragmatics”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Vol. 11. No. 2: 195-220.
- Song, Jae Jung. 1995. “Review of Causatives and Transitivity” (eds.) by Comrie & Polinsky. *Lingua* 97: 211-232.
- Song, Jae Jung. 1996. *Causatives and causation: A universal typological perspective*. London etc.: Longman.
- Song, Jae Jung. (ed.) 2011.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Song, Nam Sun. 1987. “Empathy-based affectedness and passivization”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1987. 74-89.
- Song, Nam Sun. 2002. “A Comparative Study of Japanese Passive and Korea Passive” *Eoneohag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No. 32: 165-196.
- Sridhar. 1976. “Dative subjects, rule government, and relational grammar”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s*. Vol. 6. No. 1.
- Sugamoto, N. 1982. “Transitivity and Objecthood in Japanese” In Hopper & Thompson (eds.) *Studies in Transi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 Syed, S. M. 1985. *Morphological causatives and problems of the transformational approac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Tenny, Carol L. 198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Dordrecht: Kluwer.
- Tomioka, S. & C.-Y. Sim. 2005. "Event Structure of Inalienable Possession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28th annual Penn Linguistics Colloquium*. pp. 279-292.
- Van Valin, R. D. 1991. "Another look at Icelandic case marking and grammatical relation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9: 145-194.
- Van Valin, R. D. 1994. "Functional Relations" In: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 Pergamon Press.
- Van Valin, R. D. & W. A. Foley. 1980. "Role and Reference Grammar" In: *Syntax and Semantics* Vol 13: 329-352. New York: Academic Press.
- Vermeulen, R. 2005. "External Possession in Korean"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7: 175-213.
- Wachowicz, K. 1976. "Some Universal Properties of Morphological Causatives" *Working Papers on Language Universals*. No. 20: 59-106. Stanford University.
- Wierzbicka, Anna. 1975. "Why 'kill' does not mean 'cause to die': The semantics of action sentences" *Foundations of Language* 13: 491-528. (Reproduced as Ch. 5 in: Wierzbicka, Anna. 1980. *Lingua mentalis*. Sydney: Academic Press).
- Yeon, Jaehoon. 1991. "Causative-Passive Correlations revisited" *Language Research* vol.
- Yeon, Jaehoon. 1993. "Causatives and the Encoding of the Causee" *SOA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3: 407-426.
- Yeon, Jaehoon. 1994. "Grammatical relation changing constructions in Korean: A functional-typological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Yeon, Jaehoon. 1998. "A Typological Study on the grammatical encoding of the causee in causative constructions" *Korean Linguistics*. Vol

9: 211-230.

- Yeon, Jaehoon. 1999. "A cognitive account of the constraints on possessor- ascension construction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Vol. 35-2.
- Yeon, Jaehoon. 2003. *Korea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ir Form and Meaning*. Saffron Korean Linguistics series. Saffron Books. London.
- Yeon, Jaehoon. 2005. "Causative-Passive Correlations and Retained-Object Passive Constructions" In Yeon, J. (ed.) *Studies in Korean Morpho-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Perspective*. Saffron Books. London.
- Yeon, Jaehoon. & Lucien Brown.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Routledge. London.
- Yoon, Jeong-me. 1998. "Ambiguity of relational nouns and the argument structure of nouns" In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8:515-528. Stanford, CA:CSLI.
- Yoon, James Hye-suk. 1989. "The grammar of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 in Korean, Mandarin and French" I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357-368.
- Yoon, James Hye-suk. 1990. "Theta theory and the grammar of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s" *NE'LS* 20:

## |찾아보기|

### ㄱ

가능구문 135, 167  
 가능태 144, 145, 146  
 가능피동구문 132  
 간접목적어 17, 26, 38, 74, 75, 115,  
 165, 178, 179, 211, 238, 242  
 간접사동 21, 22, 23, 24, 44, 99, 100,  
 101, 102, 103, 104, 105, 118,  
 120  
 간접주어 구문 16  
 격표지 33, 41, 42, 45, 46, 53, 56, 57,  
 60, 62, 64, 65, 70, 76, 81, 85,  
 86, 102, 105, 118, 119, 121,  
 157, 194, 215, 218, 237  
 격표지 교체 10, 14, 17, 23, 66, 84,  
 130  
 격표지 유형론 55, 57  
 격표지 중첩 107, 120, 121  
 결과상 151  
 결과태 150, 151, 152, 153  
 결과피동 153  
 경험주 70, 72  
 경험주(experiencer) 44, 118  
 공동격 66  
 공동격(comitative) 65  
 과정동사 200, 209  
 과정피동 150, 153  
 관계절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2, 244, 246, 249, 250,

251, 252, 253, 254

관계표지 17  
 관계표지 중출 17  
 관계화 가능성 위계 238, 239  
 근접한 소유관계 185  
 기능-유형론 9, 57  
 기능-유형론적 문법 19

### ㄴ

능력동사 207, 208  
 능력언어 215  
 능동자 14, 15, 59, 60, 123, 124

### ㄷ

대격 177, 179, 196, 197, 211  
 대격언어 46, 61, 66  
 대격중출구문 13, 16, 28, 171, 178,  
 179, 180, 181, 184, 185, 213,  
 217,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30, 231  
 도구 58, 59, 107, 116, 178  
 동작주 13, 58, 59, 60, 70, 123, 144,  
 151, 176

口

목적어 있는 피동문 177, 178, 180, 182, 187, 188 230  
 무정명사 30, 31, 35, 39, 52, 156, 157, 161, 162, 166, 225, 226, 227, 228  
 무표격 41, 42  
 문법관계 56, 57, 58, 60, 69, 70, 71, 73, 74, 75, 76, 85, 106, 107, 108, 109, 111, 113, 114, 117, 120, 121, 123, 144, 168, 181, 213, 218  
     문법관계 교체구문 10, 11, 13, 14, 15, 16, 17  
     문법관계 위계 17, 26, 105, 107, 108, 114, 120, 211  
 물리적 접근성 223

ㄴ

반사동구문(anticausative) 132  
 배경 피동 124  
 범언어적 보편소 22, 47, 99  
 부분격 46, 66, 84  
 부분적 관여 14, 46, 47, 192, 194, 197, 202, 209  
 분리가능 182  
 분리불가능 181, 182, 183  
 분석적 피동 140, 145, 167  
 불특정 양화사 201  
 비대격 202, 205  
     비대격 분석 191, 205, 207, 208  
 비완결동사 200, 209  
 비의도성 주어 42, 64, 67  
 비인칭 피동문 124, 167  
 비일관적 격표지 56, 61, 62, 63, 65, 85, 86  
 비전형적 격표지 56, 76, 85

비전형적 타동문 56, 66, 69, 85, 86

入

사격 71, 102, 125, 211, 213, 215  
     사격목적어 109, 241, 242, 243  
 사동문 10, 11, 12, 25, 42, 45, 89, 90, 95, 100, 103, 104, 105, 107, 108, 111, 114, 115, 117, 118, 119, 120,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83, 188  
 사역주 115, 116, 118, 119, 120, 172  
 상태 피동 137  
 상호구문 132, 167  
 상황태 240, 241  
 생격 46, 66, 84  
 소유구문 184, 219  
 소유주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8, 229, 230, 242, 243  
     소유주 상승 29, 31, 33, 181, 211, 214, 215, 220  
     소유주 상승구문 13, 14, 28, 31, 32, 33, 212, 214, 215, 216, 217, 219, 224, 226, 229, 230  
 수동자 11, 14, 15, 59, 60, 67, 123, 124, 125, 130, 159, 162, 213  
 수여동사 106  
     수여동사 구문 26  
 수혜자 44, 58, 59, 118, 129, 178  
 신체부위명사 184, 185  
     신체부위명사 구문 27  
 신체부위명사 구문 212  
 심리동사구문 15  
 심리술어 68, 76, 77  
 심리형용사 72, 78, 136  
     심리형용사 구문 84

## ○

여격주어 56, 68, 69, 70, 76, 79, 84  
     여격주어구문 16, 56, 57, 66, 67, 69, 70  
 연속체 86  
 연속체(continuum) 39, 166, 167  
 영향받음 21, 28, 213, 216, 222, 223, 225, 228, 229, 230, 231  
 영향입음 46, 50, 179  
 완결동사 199, 209  
 완성동사 200, 203, 209  
 원인격 41, 42, 55, 60, 61, 63, 64, 65, 81  
 원인격 언어 10, 55, 56, 57, 60, 61, 62, 65, 76, 81, 82, 85, 86, 87  
 원인격(ergative) 41  
 원형이론  
     원형이론적 접근 131, 167  
     원형이론적 정의 144  
 유사 피동문 132, 167  
 유정명사 26, 105, 160, 162, 181  
 유정성 160, 162, 163, 164, 165, 178, 180, 226, 227, 228  
     유정성 위계 36, 37, 163  
 의도성 15, 16, 21, 25, 39, 41, 42, 45, 64, 65, 69, 78, 79, 80, 81, 85, 87, 103, 117, 144, 204, 205, 209, 224  
 의미역할 58, 123, 124, 216, 230, 251  
 인지적 거리 21, 22, 27, 99  
 인지적 근접성 171, 188  
 인지적 접근성 184

## ㄱ

잔류목적어 183, 184, 185, 188  
 잔존대명사 242, 243

장소보어 13, 47, 189, 192, 194, 196, 199, 202, 204, 206, 209  
 재귀구문 167  
 재귀구문(reflexive) 132  
 전체적 관여 14, 46, 47, 190, 192, 193, 194, 195, 196, 197, 200, 202, 209  
 전형성 39, 46, 57, 69, 86, 132, 143, 166, 225  
 절대적 182, 183, 220, 221  
 접속문 동일 주어 생략 70  
 접요소(infix) 139  
 정도성 86, 132  
 정도성(degree) 85  
 존재구문 86  
 주체 존재 일치 현상 70, 71  
 중립동사 63  
     중립동사 구문 12  
 중복 사동 96, 97  
 지시성 46, 51  
 직접 사동 44  
 직접목적어 26, 39, 66, 74, 107, 109, 110, 112, 113, 166, 173, 179, 191, 192, 236  
 직접사동 21, 22, 23, 24, 25, 44, 99, 100, 101, 102, 103, 120  
 짧은 사동형 22, 44, 99  
 쪼개진 원인격 56, 62

## ㄷ

처소격 203  
 처소교차 자동사 207, 208  
 처소교체 구문 119, 189, 190, 192, 196, 197, 206, 208, 209  
 처소역 59

## ㅌ

타동성 67, 69, 83, 84, 85, 86  
탈초점화(defocused) 144  
탈행동화 156  
태 159, 162, 241  
태(voice) 240  
통사적 사동 23, 95, 98, 101, 120  
통사적 피동 138, 139, 140, 141, 144,  
146, 148, 149, 178  
통제성 15, 21, 39, 41, 42, 45, 117,  
119, 121, 159, 166

행동주형 언어 64  
행위주 가능성 위계 163  
형식주의 19  
형태적 사동 23, 91, 92, 188  
형태적 피동 178  
후치사 52, 53

## ㅍ

파생적 피동 138, 139, 140, 145, 146,  
147, 148, 149, 150, 167  
피동문 137, 139, 145, 146, 150, 153,  
154, 155, 156,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6, 167,  
169, 170, 171,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7, 188, 212, 227,  
228, 240  
피동작주 151, 153, 174, 176, 178  
피동조동사 140  
피사역주 188, 242  
피영향자 14, 133, 175, 176  
피해피동 171, 182, 185, 186, 187, 188

## ㅎ

한정성 51, 52  
한정적 목적어 51  
함의적 보편소 4, 20  
행동주 23, 101, 129, 146, 154

